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Ⅱ 서 언 Ⅱ

멕시코가 중남미 경제의 성장 중심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이끈 ‘아시아 호랑이’에 빗대어 멕시코를 ‘아즈텍 호랑이(Aztec Tiger)’로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힘입은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빠른 부상입니다. 완만한 임금 증가세에 따른 중국과의 임금 격차 축소, 미국 제조업의 부활, 전 세계 45개국과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힘입어 멕시코는 북미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페냐 니에토(Pena Nieto)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정책 추진입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최대 2%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혁정책으로 오랫동안 단혀 있던 에너지 및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막대한 사업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도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멕시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하고,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보다 경제적 효과가 클 것

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멕시코 경제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요인일 수 있습니다. 2014년 본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기회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니에토 정부의 구조개혁정책이 경제성장 촉진, 내수시장 확대, 숙련 노동력 공급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와 멕시코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 같은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해 최근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멕시코와 중견국 협의체(MIKTA)를 결성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권기수 미주팀장의 책임하에 김진오·박미숙 전문연구원, 이시은 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정여천 선임연구위원, 조충제 연구위원, 외교부 서원삼 과장,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박사,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인터뷰 및 설문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업체 관계자 및 멕시코 현지 정부 부처 인사, 대학 및 연구소 전문가 여러분

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 및 업계를 비롯해 멕시코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 일 형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 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북미시장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

의 523달러보다 낮았고, 2030년까지도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칠레와 콜롬비아보다는 2배 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어링 전략에서 리쇼어링 전략이나 니어쇼어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 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써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 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가장 심도깊은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과 발전 부문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되었다. 방송통신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 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세제개혁은 세수 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감이 보다 크게 작

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은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대멕시코 흑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

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현실화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 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는 ①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활용 미흡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족 ③ 치안 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국가와는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써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동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

질적·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 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 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

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에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Ⅰ 서언	3
Ⅰ 국문요약	6
Ⅰ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7
가. 연구의 내용	27
나. 연구방법	29
다.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31
Ⅰ 제2장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35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37
가. 제조업 부상의 주요 특징	37
나. 제조업 부상의 배경	46
2.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65
가. 총요소생산성 추정	65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	74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81
Ⅰ 제3장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91
1. 개혁 추진의 배경	92
2. 산업구조개혁	100
가. 에너지산업 개혁	100
나. 방송통신산업 개혁	119

다. 금융산업 개혁	130
3. 제도개혁	135
가. 교육개혁	135
나. 세제 개혁	143
다. 노동개혁	148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57
Ⅱ 제4장 한·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65
1. 교역	166
가. 교역 현황 및 추이	166
나. 교역의 주요 특징	167
2. 투자	173
가. 투자 위상 및 추이	173
나. 투자의 주요 특징	175
다. 대멕시코 투자 실태 조사	180
라.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	184
3. 제도협력	185
가. 정부간 협정	185
나. 민관협력채널	189
4. 경제협력 평가	194
가. 무역	194
나. 투자	195
다. 제도협력	197
Ⅱ 제5장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201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	202
가. 외부환경 분석: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203

나. 내부환경 분석: 한국(정부 및 기업)의 강점과 약점	210
다. 한국·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212
2.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219
가. 융합협력 방안	219
나. 상생협력 방안	234
다.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방안	240
라.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244
Ⅰ 제6장 결론	261
Ⅰ 참고문헌	277
Ⅰ 부록	289
Ⅰ Executive Summary	299

표 차례

표 2-1.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산과 중국산 시장점유율 추이	36
표 2-2. 미국시장에서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1) 추이 ...	39
표 2-3. 대미 10대 공산품 수출품의 MCA 추이	41
표 2-4. 미국시장에서 멕시코 공산품의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결과 (2000~12)	43
표 2-5. 멕시코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44
표 2-6. 멕시코 제조업의 구조 변화	45
표 2-7. 주요국의 제조업 노동비용(시간당 임금, 복리후생비 및 사회보험료 포함)	47
표 2-8. 멕시코 노동자의 평균임금(일급) 추이	48
표 2-9. 멕시코와 중국에서 미국까지의 선박운송 일수 비교	51
표 2-10.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국별 제조업 경쟁력 분류	51
표 2-11.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1) 추이	54
표 2-12. 멕시코와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국 현황	56
표 2-13. 주요국 및 지역별 FTA 커버율 비교	57
표 2-14. 멕시코의 FTA 추진 현황	58
표 2-15. 멕시코 주요 수출 공산품의 미국 및 중남미 수출 비중 추이	59
표 2-16. 주요 자동차 업체의 대멕시코 투자 계획(2007~13년)	61
표 2-17. 생산함수 추정 결과	68
표 2-18. 수출과 수입 중간재 사용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80
표 2-19. 멕시코 공산품의 해외부가가치 및 국내부가가치 현황(2009년)	84
표 3-1. 에너지개혁 조기 이행에 필요한 10대 정책	112
표 3-2. 'Ronda Cero' 시행에 따른 Pemex의 탄화수소 매장량	113
표 3-3. 멕시코 방송통신개혁법안(헌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	123
표 3-4. 멕시코 방송통신 부문 후속 조치(이행법)의 주요 내용	126

표 3-5. OECD 국가들의 PISA 2012 평균점수 비교	136
표 3-6. 교육수준별 주요 통계(2012~13년)	139
표 3-7. 멕시코 고용시장 현황(2014년)	150
표 3-8. 2012년 멕시코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	155
표 3-9. 멕시코의 11대 공공정책 개혁 추진 현황	158
표 3-10. 산업·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입법 경과	159
표 4-1.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168
표 4-2. 시기별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상품(MTI 3단위 기준) 변화	169
표 4-3. 시기별 한국의 대멕시코 수입상품(MTI 3단위 기준) 변화	170
표 4-4. 멕시코의 대한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172
표 4-5. 멕시코의 국별 제조업 부문 무역수지 추이	173
표 4-6. 투자목적별 대멕시코 투자 현황(2010~14년 기준)	176
표 4-7. 기업규모별 대멕시코 투자 현황	177
표 4-8. 업종별 대멕시코 투자 현황(2014년 6월 말 누계 기준)	178
표 4-9. 한국과 일본의 업종별 대멕시코 투자 비교	179
표 4-10. 투자형태별 대멕시코 투자 추이	179
표 4-11. 멕시코의 대한 연도별 투자 현황	185
표 4-12. 한·멕시코 정부 간 협정 체결 현황	186
표 4-13. 한·멕시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간 주요 협력채널 현황	187
표 4-14. 한·멕시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채널 현황	188
표 4-15. 한·멕시코 민간 부문 간 주요 협력채널 현황	193
표 5-1. 한·멕시코 경제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매트릭스(Matrix)	218
표 5-2. 멕시코 항공기산업 교육 프로그램	227
표 5-3. 멕시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230
표 5-4. 멕시코 산업구조 개혁에 따른 우리와의 협력기회	233
표 5-5.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주요 내용	254
표 6-1. 한·멕시코 간 내외부적 경제협력 환경	271

그림 차례

그림 2-1. 멕시코 월평균 임금 비교(2011)	49
그림 2-2. 멕시코 월평균 임금 전망(2030) 비교	50
그림 2-3. 세계 상위 25대 수출국의 제조업 생산비용 비교	52
그림 2-4. 멕시코와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비교	55
그림 2-5. 멕시코와 브라질의 비즈니스 환경 비교	56
그림 2-6. 대멕시코 FDI 추이	60
그림 2-7. 멕시코 10대 FDI 유치 분야	60
그림 2-8. 국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입품의 비중	62
그림 2-9. 멕시코 분야별 수출에서 중간재 수입품의 비중	62
그림 2-10. 연도별 제조업 전체 총요소생산성	70
그림 2-11. 총요소생산성(2003~11년 평균)	71
그림 2-12.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성장률	72
그림 2-13. 각 산업의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변화	73
그림 2-14. 멕시코 비공식 부문 고용 비중(전체 고용 대비 비공식 부문 고용) 85	
그림 2-15. 멕시코 은행의 민간 부문 신용대출(GDP 대비 비중) 추이	86
그림 2-16. 중남미 주요국 은행의 2000년대 민간 부문 신용대출 비교	86
그림 2-17. 멕시코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87
그림 2-18. 멕시코와 미국의 요소별 국가경쟁력 비교	88
그림 2-19. 멕시코, 중국, 브라질의 요소별 국가경쟁력 비교	88
그림 3-1. 주요국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소득증가율 비교(2000~11년)	95
그림 3-2. 멕시코 석유생산량 추이	101
그림 3-3. 멕시코의 석유매장량 추이	102
그림 3-4. 연료별 발전량 추이	104
그림 3-5. 멕시코의 전력산업 주요 지표	105

그림 3-6. 멕시코 협약(Pacto por Mexico)’의 에너지개혁 방향	107
그림 3-7. 에너지개혁 2차 법안(이행법)의 주요 내용	110
그림 3-8. 교통통신부(SCT)의 2012년 주요 통신정책	120
그림 3-9. 방송통신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현황	121
그림 3-10. 중남미 주요국과 한국의 교육 관련 공공 지출(2008년) 비교	137
그림 3-11. 멕시코의 교원 고용 현황(2014년 기준)	138
그림 3-12. 주요국의 조세수입 구성(2011년)	144
그림 3-13. 멕시코, 중남미 및 OECD의 각 부문별 공공지출 비중 비교	144
그림 3-14. 멕시코의 공식실업률 추이(2000~13년)	149
그림 3-15. 주요국의 실질 최저임금(PPP 기준, 2000~13년) 추이	152
그림 3-16. 멕시코의 최저임금 변화(1994~2012년)	156
그림 4-1.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입 추이	166
그림 4-2. 용도별 대멕시코 수출 추이	171
그림 4-3.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투자 및 수출 추이	175
그림 4-4. 한국과 일본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지역 비교	180
그림 4-5.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 동기	181
그림 4-6. 투자 및 운영 자금 조달	182
그림 4-7. 원부자재 조달	183
그림 4-8. 우리 기업이 현지 경영 시 체감하는 애로사항	184
그림 5-1.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	205
그림 5-2. 개혁이 경제에 미칠 영향	206
그림 5-3. 개혁이 기업에 미칠 영향	206
그림 5-4. 멕시코 정부의 개혁이 기업의 경영에 미칠 긍정적 영향	207
그림 5-5. 멕시코 시장의 위협요인	208
그림 5-6. 멕시코 정부의 개혁이 우리 기업의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	209
그림 5-7. 멕시코 진출 시 우리 기업 또는 정부의 강점	211
그림 5-8. 멕시코 진출 시 우리 기업 또는 정부의 약점	212

그림 5-9. 중남미 주요국의 노동비용 비교(2013년 기준)	220
그림 5-10. 멕시코 기업의 아시아시장 진출 동기	223
그림 5-11. 멕시코 기업의 아시아시장 진입 방식	223
그림 5-12. 향후 협력 대상 아시아 기업	241
그림 5-13.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 동기	242
그림 5-14. 금융지원에 대한 요구	245
그림 5-15. 국가간 제도(협정)적 협력 기반 구축에 대한 요구	246
그림 5-16. 민관 부문간의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요구	247
그림 5-17. 협력센터 설립 및 시장진출 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	248
그림 5-18. FTA 미체결로 인한 피해	249
그림 5-19.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멕시코와 제3국 간의 FTA	250
그림 5-20. 한-멕시코 FTA에 대한 관심	251
그림 5-21. FTA 협상 관심 분야	251
그림 6-1. 한·멕시코 경제협력 환경 및 협력방안	274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남미 제2위의 경제대국이며 제1위의 교역국인 멕시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개혁정책을 토대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해왔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출범은 멕시코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멕시코 경제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경제의 성장 정체에 따른 수출 둔화, 각종 개혁정책 지연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1990년대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저성장세에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멕시코 경제는 종전의 무기력증에서 탈피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며,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멕시코 경제의 변화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힘입은 미주 지역 생산기지로의 빠른 부상과 페냐 니에토 정부¹⁾의 성공적인 개혁정책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최근 멕시코 경제가 미주지역 생산기지로 빠르게 부상하는 배경에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기댄 측면이 크다. 중국의 빠른 소득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과 멕시코 간 제조업 생산비용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그간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던 멕시코가 제조업 생산기지로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제 회복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변화²⁾도 미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

1) 2012년 12월 취임.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아웃소싱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은 오프쇼어링보다는 리쇼어링(Reshoring)이나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전략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완만한 임금 증가와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에 힘입은 제조업 생산경쟁력 확보, 비즈니스 환경 개선,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 확고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산업클러스터의 발전 등이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 멕시코의 매력을 제고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정책 추진도 최근 멕시코 경제의 빠른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 변수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먼저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개혁정책으로 오랫동안 단혀 있던 에너지 및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막대한 사업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도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다.

이 같은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멕시코는 최근 들어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주자로 평가되어왔다. 골드만삭스는 2011년 한국, 터키,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멕시코를 차세대 성장시장인 ‘믹트(MIKT)’의 일원으로 선정했다.³⁾ *Financial Times*는 2013년 초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이끈 ‘아시아 호랑이’에 빗대어 멕시코를 ‘아즈텍 호랑이(Aztec Tiger)’로 칭하기까지 했다. 멕시코는 최근의 안정적 성장세에 힘입어 10년 내 브라

3) 차세대 성장시장으로서 멕시코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멕시코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조어로는 브림(BRICM: 브릭스+멕시코), 마빈스(MAVINS: 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E7(브릭스+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등이 있다.

질을 제치고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멕시코는 2013년 5월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여파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혼란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⁴⁾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은 일부 투자 진출을 제외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 상태다.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멕시코 시장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FTA 미체결에 따른 차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멕시코 경제가 제공하는 막대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 및 진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빠른 부상과 니에토 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과제와 개혁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유망 협력 및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제시에도 주력하였다.

4) *Financial Times*는 신흥시장 중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코렉시코(Korea+Mexico)’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 네 가지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먼저 최근 멕시코 제조업이 부상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제조업 부상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둘째, 멕시코가 총체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가? 개혁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있었는가? 구조개혁이 멕시코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구조개혁이 한·멕시코 간 경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에는 기회요인인가? 위협요인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멕시코의 빠른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멕시코 경제의 부상에 대응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2010년 이후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멕시코 경제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인 제조업의 부상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해보았다. 먼저 제조업 부상의 주요 배경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여기서는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와 중국의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통해 수출경쟁력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또한 최근 멕시코의 제조업 부상이 지속가능한 질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조명하기 위해 제

조업의 중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멕시코 제조업의 지속성장 여부와 이를 통한 멕시코 경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제3장에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니에토 정부가 폭넓은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니에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을 크게 산업구조개혁과 제도개혁으로 구분해 각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했다. 산업구조개혁에서는 통신, 에너지, 금융개혁을 다루고 제도개혁에서는 교육, 세제, 노동개혁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 평가해 일련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 향방에서 갖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한·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멕시코 현지 투자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4장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의 경제협력환경을 분석했다.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위해 SWOT 분석 기법을 사용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인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 범위

먼저 본 연구는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를 주요 분석시기로 한다. 그러나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2000년대를 전체 분석시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분석은 2012년 12월 니에토 정부 출범 이후 시기를 주요 분석 시점으로 한다.

둘째, 내용 면에서 본 연구의 핵심 분석대상은 최근 멕시코 경제환경의 변화다.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를 제조업 부상과 구조개혁 정책 추진에서 찾고 두 주제의 분석에 주력했다.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과 구조개혁정책 추진은 비슷한 시점에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부터다. 반면에 멕시코에서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논의는 2012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니에토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정책이 제조업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고보다는 제조업 부상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적 과제가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구조개혁정책을 고찰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충실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기법을 동원했다. 먼저 현지 스페인어 1차 자료를 토대로 심층적인 문헌 조사를 실시했다.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 멕시코 정부의 개혁정책 등은 현지 스페인어 1차 문헌과 전문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둘째,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분석을 위해 다양한 계량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먼저 멕시코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해 시장 비교우위지수(MCA)와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멕시코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을 위해서는 고정효과모형과 일반최소자승법(FGLS)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고정효과모형과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했다.

셋째,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먼저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했다. 본격적인 설문조사 및 인터뷰는 8~10월에 걸쳐 3명의 연구진이 멕시코 현지를 방문해 실시하였다. 전체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응답 업체는 33개였다.⁵⁾ 또한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협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3년 10~11월에 걸쳐 멕시코 기업(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넷째,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을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SWOT matrix를 응용하여 협력전략을 추출했다.⁶⁾

5) 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에 진출한 현지법인 수는 224개에 달하나 KOTRA 등을 통해 입수한 접촉 가능업체는 약 150개였다.

6) 외부환경은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멕시코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기회(Opportunities) 요인과 위협(Threat)요인으로 대별된다. 기회(O)와 위협(T)이라는 외부요인은 외부요인평

마지막으로는 멕시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규모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했다.

다.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멕시코 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멕시코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수행된 바 있다. 당시 민관협력 채널인 ‘한·멕시코 21세기위원회’의 간사기관 역할을 수행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1세기위원회 회의 준비와 양국간 협력의제 발굴을 위해 2003년 6월 개최된 세미나 발표 원고를 재구성해 2004년 ‘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⁷⁾ 2005년에는 21세기위원회 논의 결과를 종합해 양국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⁸⁾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양자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확대, 한·멕시코 IT 연구센터 강화, 한·멕시코 고위기업인협의회 설치, 직항로 개설 등을 제안했다. 2010년에는 수출입은행에서 멕시코의 정치경제 현황, 주요 산업 현황,

가행렬(External Factor Evaluation Matrix, EFE Matrix)을 이용해 평가했다. 내부환경은 협력 주체인 한국이 가진 역량으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으로 구분하고, 강점(S)과 약점(W)은 내부요인평가행렬(Internal Factor Evaluation Matrix, IFE Matrix)을 이용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분석에 기초하여 이 두 요소를 결합한 경제협력 전략, 즉 S-O, W-O, S-T, W-T 전략을 제시하였다.

7) 김원호 편(2004).

8) 한·멕시코 21세기위원회(2005).

투자환경을 분석해 △중소협력업체의 동반진출 △IDB 금융지원 프로젝트 활용 △FTA 체결 등 우리의 대멕시코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한바 있다.⁹⁾ 2012년에는 산업연구원에서 중단된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를 위해 ‘한·멕시코 특혜관세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협상전략’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¹⁰⁾ 같은 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KOTRA와 공동으로 멕시코 산업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양국간 유망협력산업으로 석유화학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선정해 이들 산업에 대한 주요 현황과 잠재력 등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진출방안을 제시하였다.¹¹⁾

최근 멕시코 경제나 제조업 부상에 초점을 맞춘 국내 연구로는 KOTRA(2013)에서 수행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멕시코’란 주제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 원인과 제조업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¹²⁾

배찬권 외(2012)는 문헌분석을 통해 1994년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평가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교역, FDI, 생산성, 재정, 인플레이션), 고용과 소득불평등 변화, 농업과 농촌 경제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¹³⁾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 연구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두

9) 한국수출입은행(2010).

10) 김수동(2012).

11) 김진오, 이시은(2012).

12) 김형일, 안성희(2013).

13) 배찬권 외(2012).

변수, 즉 멕시코의 제조업 부상과 구조개혁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한·멕시코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와 제언도 최근 빠르게 변모하는 멕시코의 경제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멕시코 경제환경의 두 가지 변화인 제조업 부상과 구조개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 최근 멕시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JETRO(2014)의 「멕시코 경제의 기초지식」이라는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안정적 거시경제 △변화하는 소비시장 △미주지역을 겨냥한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출산업 △외국계 기업과 재벌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멕시코 시장 △통상정책의 중심은 미주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 등을 주제로 최근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¹⁴⁾

멕시코 경제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연구로는 Bolio et al.(2014)이 주축이 되어 작성한 매킨지 글로벌 연구원(Mckinsey Global Institute)의 보고서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멕시코 경제가 제조업 부상 및 포괄적인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로 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에 비해 경제성장이 더디다고 지적한다. 즉 멕시코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현대적인 대기업 부문과 전통적이며 낙후된 중소기업 부문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멕시코 경제가 성장을 재점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14) JETRO(2014).

이 저자들의 주문이다.¹⁵⁾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다양한 사례가 목격된다. 먼저 Boston Consulting Group(2014)은 “The Shifting Economics of Global Manufacturing”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25개 수출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멕시코와 미국을 경쟁력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군(rising global stars)으로 평가했다.¹⁶⁾ 다음으로 BBVA(2014a)는 2002~12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6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멕시코 공산품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를 환율효과, 노동생산성 제고, 단위당 노동비용 하락 등에서 찾았다.¹⁷⁾ 멕시코의 대표적인 민간경제연구소 중의 하나인 CIDAC(2014)도 “Reshoring Mexico 2014”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멕시코의 제조업 경쟁력을 비교하고 2000년대 초반 저렴한 생산비용을 겨냥해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한 제조업 부문 중 멕시코로 회귀(reshoring) 가능한 산업 부문을 제시한다. 가전, 컴퓨터 및 전자, 플라스틱·고무, 금속기계, 수송장비, 가구, 전자장비, 의류장비 등 8개 산업이 그 대상이다.¹⁸⁾

멕시코의 제조업 부상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데 반해 아직까지 니에토 정부의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연구는 개혁정책이 진행 중이어서 일부 단편적인 분석 기사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15) Bolio *et al.*(2014).

16) Boston Consulting Group(2014).

17) BBVA(2014a).

18) CIDAC(2014).

제2장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2. 제조업 경쟁력의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미시장은 물론 남미시장 생산기지로서의 제조업의 부상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제조업의 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먼저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미국시장에서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경쟁력 제고, 국내 경제에서의 제조업 위상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본다. 다음으로 본 장에서는 멕시코에서 제조업이 부상한 배경을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세 번째로는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해 멕시코 제조업의 생산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서는 이상

표 2-1.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산과 중국산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대미 시장점유율		대미 공산품 시장점유율	
	중국	멕시코	중국	멕시코
2000	8.6	10.9	10.5	11.2
2001	9.3	11.3	11.4	11.8
2002	11.1	11.3	13.6	11.6
2003	12.5	10.7	15.6	10.9
2004	13.8	10.3	17.5	10.5
2005	15.0	10.0	19.8	10.1
2006	15.9	10.4	21.1	10.5
2007	16.9	10.6	22.5	10.8
2008	16.5	10.1	23.4	10.4
2009	19.3	11.1	26.0	11.2
2010	19.5	11.8	26.4	12.1
2011	18.4	11.7	25.7	12.0
2012	19.0	12.0	25.9	12.5

자료: UNCOMTRADE(<http://comtrade.un.org>, accessed May 7, 2014)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의 분석을 통해 멕시코가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가. 제조업 부상의 주요 특징

1) 제조업 수출경쟁력 제고

가) 제조업 수출경쟁력 현황

2010년 이후 멕시코의 제조업 부상에 대한 기사와 분석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멕시코가 중국을 대신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멕시코 제조업의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2000년까지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오던 제조업은 2000년대 초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상대를 만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저렴한 인건비로 무장한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멕시코의 제조업은 침체 일로를 겪었다. 1999~2003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30%씩 증가하는 데 반해 멕시코의 수출은 6%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미국 시장에서 수입국 순위도 중국에 밀려 2003년에는 3위로 내려앉았다. 이 시기 300개의 업체가 멕시코를 떠나 중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며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멕시코 제조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멕시코 제조업이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을 쌓을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본 절에서는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최근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을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경쟁력 제고, 국내 경제에서의 제조업 위상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보기로 한다.

먼저 수출시장에서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멕시코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추적했다. NAFTA 출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미국시장에서 멕시코 공산품의 점유율은 2001년 11.8%를 기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005년에는 10.1%까지 떨어졌다.

그에 반해 미국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해 2002년에는 멕시코를 앞섰다. 2006년에는 20%대 점유율을 보이며 멕시코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등락을 보이던 멕시코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그에 반해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26.4%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아직까지 중국과 비교해 격차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8년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시장에서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공산품의 수출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방법¹⁹⁾을 활용해 미국시장에서 멕시코 공산품의 비교우위를 분석했다.

표 2-2. 미국시장에서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¹⁾ 추이

SITC 1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화학 제품(5)	0,22	0,20	0,20	0,20	0,24	0,26	0,25	0,23	0,22	0,19	0,20	0,21	0,22
원료별 제조품(6)	0,61	0,61	0,64	0,64	0,66	0,70	0,62	0,65	0,66	0,66	0,63	0,68	0,68
기계 및 운송장비(7)	1,30	1,37	1,33	1,33	1,34	1,35	1,39	1,44	1,50	1,48	1,50	1,47	1,45
기타 공산품(8)	0,89	0,86	0,88	0,87	0,83	0,80	0,73	0,68	0,68	0,64	0,64	0,66	0,69

주: 1)은 공산품의 MCA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에 있다, 1보다 작으면 비교열위에 있다고 정의.

자료: UNCOMTRADE(<http://comtrade.un.org>, accessed May 7, 2014)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먼저 SITC 1단위를 중심으로 5~8류 공산품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료별 제조품과 기계 및 운송장비의 비교우위가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계 및 운송장비의 비교우위는 2000년 1.3에서 2012년

- 19) 통상 세계 시장에서 각국의 비교우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가 사용된다. Balassa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 지수는 특정 국가 i상품의 경쟁력이 그 국가의 평균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다. 여기서는 RCA를 일부 변형한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사용(김남두 외 1997, pp. 46~48)해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멕시코와 중국의 품목별 비교우위를 구하였다. MC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CA^i = \frac{X_j^i / TX_j^i}{X_j / TX_j}$$

X_j^i : 특정국가 i상품의 j시장에 대한 수출액

TX_j^i : j시장에 대한 i상품의 총수출액(j시장의 i상품 총수입액)

X_j : 특정국가의 j시장에 대한 수출액(j시장의 총수입액)

TX_j : j시장에 대한 총수출액

MCA_{ij}가 1보다 클 경우 해당국가의 i상품은 j시장에서 상대적으로(해당국가의 j시장 수출 전체에 비하여) 양호한 수출성적을 보인다. 그에 반해 1보다 작을 경우 그 상품의 수출성적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5로 크게 높아졌다. 그에 반해 화학제품과 기타 공산품의 비교우위는 정체를 보이거나 소폭 하락했다.

다음으로는 보다 세분화(SITC 2단위)해 대미 10대 수출상품(2012년 기준)의 비교우위를 분석(2000/2012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도로주행 차량(78), 전기기계장치(77), 사무용 기계 및 자동처리장치(75),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74), 원동기 및 설비(71), 전문·과학·통제기구 및 장치(87), 비철금속제품(68) 등 여섯 개 품목의 비교우위가 상승했다. 그에 반해 통신 및 녹음재생기기(76), 가구 및 부분품(82), 기타 금속제품(69) 등 세 개 품목의 비교우위는 소폭 하락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주종 수출품의 비교우위 상승이 대미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비교우위 증가(2000년 1.46→2012년 1.86)가 가장 현저했다.

비교우위 증가에 힘입어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산 주요 공산품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먼저 도로주행차량의 점유율은 2000년 15.9%에서 2012년에는 22.3%로 6.4%포인트나 증가했다. 그 밖에 전기기계장치(16.2%→19.1%),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처리장치(9.7%→13%),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12.5%→15.8%), 원동기 및 설비(14.1%→17.3%), 가구(15.7%→16.6%), 전문·과학·통제기구 및 장치(16.5%→19.7%), 비철금속제품(4.7%→13.9%) 등의 점유율이 증가세를 보였다.

표 2-3. 대미 10대 공산품 수출품의 MCA 추이

SITC 2단위	비교우위			시장점유율(%)	
	2000	2012	변화	2000	2012
도로주행차량(78)	1,458	1,857	↑	15.9	22.3
통신 및 녹음과 재생기기(76)	2,071	1,693	↓	22.6	20.3
기타 전기기계장치(77)	1,481	1,592	↑	16.2	19.1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처리장치(75)	0,884	1,081	↑	9.7	13.0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74)	1,143	1,315	↑	12.5	15.8
원동기 및 설비(71)	1,287	1,438	↑	14.1	17.3
기타 전문·과학·통제기구 및 장치(87)	1,506	1,643	↑	16.5	19.7
가구 및 부분품(82)	1,436	1,386	↓	15.7	16.6
비철금속제품(68)	0,434	1,161	↑	4.7	13.9
기타 금속제품(69)	1,026	0,934	↓	11.2	11.2

자료: UNCOMTRADE(<http://comtrade.un.org>, accessed May 7, 2014)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제조업 수출경쟁력 변화 요인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산 공산품의 수출경쟁력을 살펴본 결과,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아직까지 괄목할 만하지는 않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비교우위 분석에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계 및 운송장비, 비철금속제품을 비롯한 원료별 제조품의 비교우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멕시코 공산품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제고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서는 불변시장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 모델²⁰⁾을 이용하여 2000~12년 멕시코 공산품의 대미 수출 증가요인을 분석했다.

20) CMS 분석은 각 품목별 시장점유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수출경쟁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CMS 분석을 통해 멕시코 공산품의 대미 수출 증가요인을 ① 미국 총수입수요 신장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② 대미 상품구성의 유리성에 따른 특정상품의 수요급증에 힘입은 수출증가 효과 ③ 경쟁력 증가에 의한 수출증가 효과²¹⁾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들 세 가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²²⁾

(1) 미국의 수입수요 신장에 의한 부분: $X_{us} \times r_{us}$

X_{us} : 기준연도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

r_{us} : 미국의 총수입 신장률(2000~02, 2003~05, 2006~08, 2009~12)

(2) 대미 수출상품 구성의 유리성에 의한 부분:

$$\sum X_{us,i} (1 + r_{us,i}) - X_{us} (1 + r_{us})$$

$X_{us,i}$: 기준연도 멕시코의 i상품 대미 수출액

$r_{us,i}$: 2000~02, 2003~05, 2006~08, 2009~12 기간 미국의 i상품 수입 신장률

(3) 대미 수출경쟁력 강화에 의한 부분: $X_{tus} - \sum X_{us,i} (1 + r_{us,i})$

X_{tus} : t연도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

여기서 수입수요 증가효과는 미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멕시코의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수출증가분으로, 미국의 소득증대에 기인한

21) 가격경쟁력 및 비가격경쟁력 정도를 동시에 반영한 부분이다.

22) 최인범(1993), pp. 43~47.

표 2-4. 미국시장에서 멕시코 공산품의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결과(2000~12)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입수요 신장		수출상품 구성의 유리성		경쟁력 강화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00~02	-6,096	466,9	-1,083	83,0	5,873	-449,8	-1,306
2003~05	45,732	139,5	-320	-1,0	-12,631	-38,5	32,780
2006~08	25,685	146,2	-1,420	-8,1	-6,699	-38,1	17,567
2009~12	81,476	80,1	8,576	8,4	11,644	11,4	101,696

자료: UNCOMTRADE(<http://comtrade.un.org>, accessed May 7, 2014)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수입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상품구성효과는 각 품목별(SITC 2단위 기준)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수출 증대액에서 수입수요 증가효과를 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경쟁력 효과는 실제 대미수출 증가액에서 수입수요 증가효과와 상품구성효과를 공제한 잔여부분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2000~12년을 네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멕시코의 대미 수출변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시기는 2000~12년을 우선적으로 3년을 단위로 하여 네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통계자료의 한계로 2009~12년을 제4기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2000년대 들어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수입수요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2008년까지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는 전무했다. 그러나 2009년 들어서부터 뚜렷하지는 않지만 수출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9~12년 멕시코의 대미 수출 증가에서 수출경쟁력 제고에 따른 효과는 11%에 달했다.

2) 국내 경제에서 제조업 위상 제고

경제발전에 따라 멕시코의 산업구조도 자연스럽게 1차산업에서 2차산업, 2차산업에서 3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산업구조의 재편 과정은 지속되고 있다. 1차산업의 비중은 2003년 3.8%에서 2013년 3.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2차산업의 위상도 30.5%에서 29.7%로 소폭 약화되었다. 특히 2차산업의 위상 약화는 광업의 비중 하락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광업의 위상은 2003년 6.1%에서 2013년 4.5%로 1.6%포인트 하락했다. 그에 반해 3차산업의 비중은 62.5%에서 65.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멕시코 산업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제조업의 위상이 200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위상은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위상 확대는 최근 개도국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에서 목격되는 추세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스페인의 BBVA 은행은 최근 연구에

표 2-5. 멕시코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 %, GDP 대비)

산업 분류	2003	2009	2010	2011	2012	2013
1차산업	3.8	3.6	3.5	3.3	3.4	3.4
2차산업	30.5	29.8	30.0	30.0	29.9	29.7
광업	6.1	5.2	5.0	4.7	4.6	4.5
전력·가스·수도	1.1	1.4	1.5	1.5	1.5	1.5
건설	6.2	6.6	6.2	6.3	6.2	6.2
제조업	17.1	16.7	17.4	17.6	17.6	17.5
3차산업	62.5	64.7	64.7	65.2	65.1	65.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INEGI 홈페이지(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July 8, 2014).

서 2007~12년 제조업 위상(GDP 대비)이 확대된 국가는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가 유일하다고 밝혔다.²³⁾

제조업을 세분화해 살펴본 결과, 최근 제조업의 위상 확대는 자동차 등 수송기기, 음료 및 담배, 컴퓨터 및 전자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조

표 2-6. 멕시코 제조업의 구조 변화

(단위: %, GDP 대비)

분 야	2003	2009	2010	2011	2012	2013
식품	23.0	24.0	22.3	21.6	21.2	21.2
음료 및 담배	5.7	7.0	6.4	6.4	6.3	6.3
섬유재료	1.6	0.9	1.0	0.9	0.8	0.8
섬유제품	0.6	0.4	0.4	0.4	0.4	0.4
의류	3.9	2.6	2.5	2.2	2.0	2.0
가죽·피혁	2.2	1.3	1.3	1.2	1.2	1.2
목제품	1.7	1.1	1.1	1.1	1.2	1.2
제지	1.9	2.4	2.3	2.2	2.2	2.2
인쇄	1.1	0.9	0.9	0.9	0.9	0.9
석유부산물	3.0	3.2	2.8	2.5	2.4	2.4
화학제품	11.0	10.3	9.2	8.8	8.4	8.4
플라스틱·고무	2.9	2.7	2.7	2.7	2.8	2.8
비금속	7.1	6.7	6.3	6.2	6.0	6.0
기초금속	5.1	5.2	5.4	5.3	5.2	5.2
금속	3.0	3.2	3.2	3.3	3.4	3.4
기계 및 장비	2.8	2.2	2.7	2.8	2.8	2.8
컴퓨터 및 전자	3.9	4.6	4.6	4.6	4.4	4.4
전기기계	2.5	3.2	3.2	3.1	2.9	2.9
수송기기	13.0	13.9	13.9	20.1	22.1	22.1
가구	1.7	1.4	1.4	1.3	1.3	1.3
기타 공산품	2.1	2.4	2.4	2.2	2.2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INEGI 홈페이지(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July 8, 2014).

23) BBVA(2014a), p. 54.

사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송기기산업의 성장이 매우 두드러졌다. 제조업 GDP에서 차지하는 수송기기산업의 비중은 2003년 13%에서 2013년 22.1%로 제고되었다. 그 결과, 수송기기산업은 전통적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식품산업의 위상을 앞질렀다. 그 밖에 음료 및 담배(5.7%→6.3%), 컴퓨터 및 전자(3.9%→4.4%), 전기기계산업(2.5%→2.9%)의 위상도 높아졌다.

나. 제조업 부상의 배경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생산비용 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운임 비용 상승 △미국의 경기회복과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멕시코의 완만한 임금상승에 힘입은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에 힘입은 안정적인 환율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상의 대내외 요인을 종합해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고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제조업 생산비용의 경쟁력 제고

최근 멕시코가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사실은 생산비용 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노동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멕시코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확실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주요국의 제조업 노동비용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 비교 대상국 중 멕시코가 1.4%로 가장 낮았다. 브라질의 경우 그 증가율은 15.4%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으며, 미국의 증가율은 멕시코의 두 배인 2.9%에 달했다.

2008~12년 멕시코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일급)을 업종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조의 힘이 강한 광업이나 전기·가스·수도 분야에 비해 제조업 분야의 연평균 임금증가율은 4.1%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3.8%)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2-7. 주요국의 제조업 노동비용(시간당 임금, 복리후생비 및 사회보험료 포함)

(단위: 달러, %)

국가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연평균 증가율 (2002~12)
미국	27.37	29.32	30.49	32.78	34.74	35.67	2.99
브라질	3.08	3.82	5.99	8.44	10.08	11.20	15.40
멕시코	5.59	5.26	5.88	6.47	6.23	6.36	1.44
일본	21.75	25.59	24.32	27.80	31.99	35.34	5.54
한국	10.37	12.73	17.55	16.50	16.62	20.72	8.00
필리핀	1.02	1.09	1.34	1.77	1.90	2.10	8.38
중국	0.73	0.81	1.06	1.36	-	-	-
프랑스	23.31	32.60	34.70	43.29	40.55	39.81	6.13
독일	27.63	37.70	39.33	47.51	43.76	45.79	5.77
헝가리	4.19	6.17	6.86	9.78	8.40	8.95	8.81
폴란드	3.98	4.69	6.03	9.38	8.01	8.25	8.43
스페인	13.81	19.78	21.75	27.68	26.60	26.83	7.65
영국	22.11	28.52	31.25	34.22	29.44	31.23	3.91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 홈페이지(www.bls.gov/fls/#compensation, accessed September 7, 2014).

표 2-8. 멕시코 노동자의 평균임금(월급) 추이

(단위: 페소,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2008-12)
농림수산업	127.2	131.9	136.4	143.4	150.1	4.22
광업	300.4	342.7	373.1	390.3	419.0	8.67
제조업	231.9	243.3	251.3	261.1	272.4	4.11
건설업	169.1	174.6	178.9	184.7	191.9	3.21
전기·가스·수도	496.4	521.1	544.7	592.2	636.3	6.41
상업	196.4	204.4	211.6	219.7	229.8	4.00
운송통신	285.2	296.6	305.5	315.8	326.4	3.43
기업개인서비스	228.0	234.7	242.9	254.4	264.2	3.76
사회서비스	235.6	248.7	261.2	273.0	286.7	5.03
전체	222.3	231.6	239.2	249.3	260.1	4.00
소비자물가지수	92.2	95.5	99.7	103.6	107.2	3.84

주: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 가입 노동자 기준. 임금은 사회보험부담금을 포함한 광의의 봉급으로 복리후생비를 포함.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 12월=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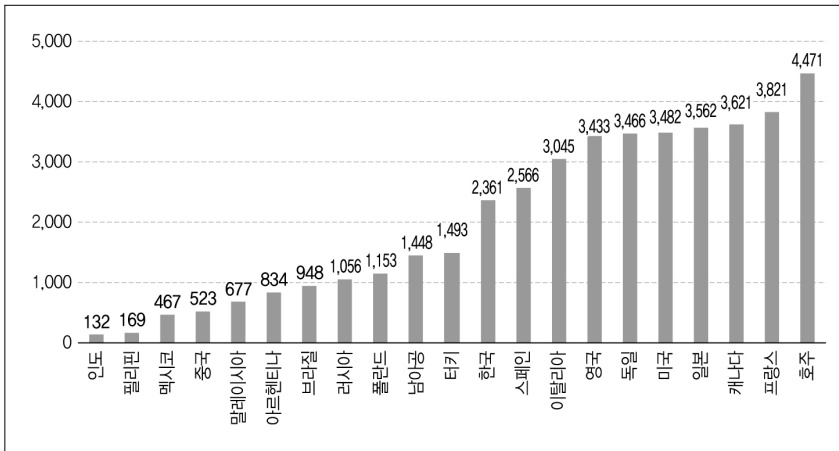
자료: 멕시코 노동사회복지부(STPS) 홈페이지(stps.gob.mx/bp/secciones/conoce/areas_atencion/areas_atencion/web/menu_infsector.html, accessed June 7, 2014).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2000년대 멕시코의 노동비용 상승은 경쟁국에 비해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08년 이후 임금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완만한 노동비용 증가에 힘입어 멕시코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강력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빠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중국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반해 멕시코의 임금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양국간 임금 격차는 크게 좁혀졌다. 최근의 많은 통계에서는 이미 중국의 임금이 멕시코의 임금 수준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컨설팅기관인 PWC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중국의 523달러를 하회하며, 2030년까지도 멕시코의 임금경

그림 2-1. 멕시코 월평균 임금 비교(2011)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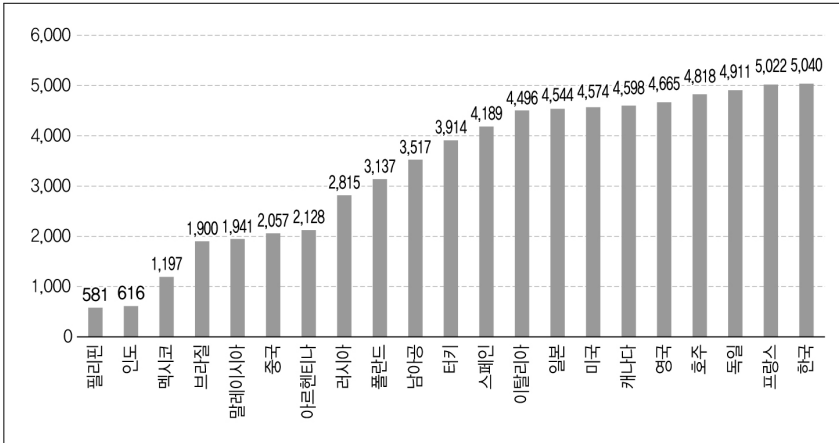
자료: PWC(2013), p. 5.

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멕시코와 중국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PWC는 전망한다.

멕시코의 실질 임금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제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미숙련 노동자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입되고 있지만 제조업 부문이 이들을 모두 흡수할 만큼 발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숙련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업이나 비공식 부문으로 흡수되고 있다. 제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잉여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임금상승 압력은 낮을 수밖에 없다. 둘째, 노동자의 낮은 임금협상력도 멕시코에서 임금증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멕시코에서는 석유나 광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이 낮은 편이다. 이렇듯 미숙련 노동자의 공급과잉과 노동조합의 미

그림 2-2. 멕시코 월평균 임금 전망(2030) 비교

(단위: 달러)



자료: PWC(2013), p. 6.

발달 등으로 인해 멕시코 제조업의 실질임금은 과거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으며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²⁴⁾

그러나 단순히 낮은 인건비만으로 멕시코의 제조업 경쟁력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자동차, 통신장비 및 항공기 등 일부 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이공계 대학 졸업자들이 풍부하게 배출되고 있다. 특히 케레타로 주에서는 2009년 3월 멕시코에서는 처음으로 항공 분야 전문대학이 설립되면서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임금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물류 측면에서도 멕시코는 중국과 비교해 월등한 우위를 갖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을 염두에 둘 경우 중국은 물류

24) 그 밖에 비교적 높은 인구 증가율, 2000년대 들어 친기업 성향 정부의 집권, 여성 노동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도 멕시코의 완만한 임금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Gerardo Castillo Ramos 민간경제연구센터(CEESP) 박사와 Isidro Sologas 이베로아메리카대학 교수(2014년 8월 26일, 멕시코시티) 인터뷰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9. 멕시코와 중국에서 미국까지의 선박운송 일수 비교

미국 도시	멕시코	중국
뉴욕	6일	31일
LA	4일	17일

자료: ProMexico(2013), p. 7.

비용 측면에서 멕시코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해상운임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현재 중국에서 미국까지 컨테이너당 해상운송 비용은 5,000달러에 달한다. 그에 반해 멕시코에서 미국까지 트럭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비는 3,000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컨설팅기관인 AlixPartners도 2011년 임금, 물류비용,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미 수출 생산기지로서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가장 저렴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2014)의 연구에서는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멕시코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전 세계 상위 25대

표 2-10.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국별 제조업 경쟁력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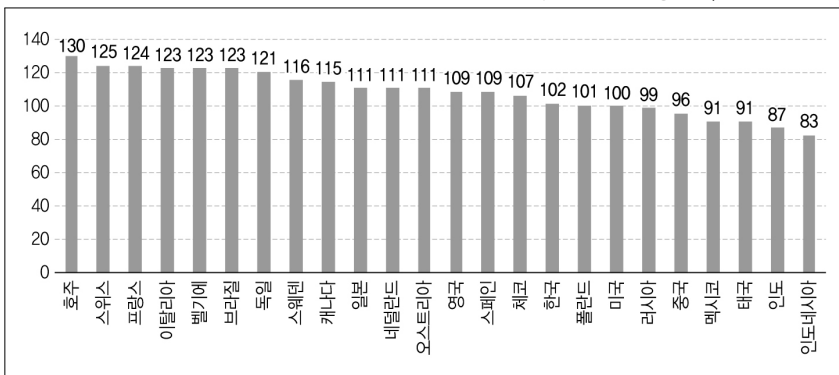
분류	성격	대상 국가
Under pressure	- 전통적으로 제조업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 -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최근 경쟁력 약화	브라질, 러시아, 중국, 폴란드, 체코
Losing ground	- 전통적으로 제조업 생산비용이 높은 국가 - 에너지 비용 상승 및 생산성 개선 미흡으로 경쟁력 약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Holding steady	- 글로벌 리더국과 비교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네덜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Rising stars	- 다른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 개선 - 완만한 임금 상승, 지속적인 생산성 개선, 안정적인 환율, 에너지 비용 우위	미국, 멕시코

자료: Boston Consulting Group(2014), p. 6.

수출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비용을 비교하고 이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제조업 생산비용을 임금, 노동 생산성, 에너지 비용, 환율 등 네 가지 변수를 반영해 산정하였다. 먼저 전통적으로 제조업 생산비용이 낮았으나 최근 생산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군(Under pressure)이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폴란드, 체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국가군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생산비용이 높은 국가들로 에너지 비용 증가 및 생산성 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가 그룹(Losing ground)이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세 번째 국가군(Holding steady)은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로 네덜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등이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임금 상승, 지속적인 생산성 개선, 안정적인 환율, 에너지 비용 우위 등에 힘입어 세계적인 제조업 생산기지로 뜨고 있는 국가군(Rising stars)이다. 미국과 멕시코가 대표적이다.

그림 2-3. 세계 상위 25대 수출국의 제조업 생산비용 비교

(단위: 제조업비용 지수, 미국 2014=100)



주: 노동비용, 전력 및 천연가스 비용, 기타 비용 기준.

자료: Boston Consulting Group(2014), p. 6.

보스틴컨설팅그룹(2014)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상위 25대 수출국 중 멕시코는 세 번째로 제조업 생산비용이 낮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만이 생산비용 측면에서 멕시코를 앞선다.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비용은 중국보다도 낮으며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태국과 같은 수준이다.

2)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한 요소로 평가된다. 먼저 멕시코 페소화는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극심한 혼란을 보인 데 반해 멕시코의 환율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였다. 멕시코는 낮은 경상수지 적자 규모²⁵⁾ 등 양호한 경제기초여건, 니에토 정부의 성공적 개혁정책에 따른 대내외 신인도 제고²⁶⁾, 미국 경제회복에 편승한 성장 기대감 등에 힘입어 다른 신흥국과의 차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⁷⁾

또한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특수에 힘입은 수출 증가로 남미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

25) 멕시코의 경상수지(GDP 대비)는 무역수지 균형, 2차 소득수지 흑자에 힘입어 다른 주요 중남미 국가들(평균 3~4%대 적자)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12년 1.3%(GDP 대비)에서 2013년에는 무역수지 악화로 소폭 악화(2.1%)되었다.

26) S&P는 2013년 12월 19일 성공적인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은 재정구조 개선을 높게 평가해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27) 2013년 11월에는 IMF로부터 730억 달러 규모의 신속적 신용공여제도(FCL) 인출 자격을 재승인받아 외환위기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였다.

표 2-11.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¹⁾ 추이

(2005=100, 연평균 기준)

연도	멕시코	중남미	브라질
2004	103,7	106,8	122,6
2005	100,0	100,0	100,0
2006	100,0	97,2	89,0
2007	100,9	94,3	82,5
2008	103,3	88,6	79,9
2009	117,9	88,0	81,5
2010	108,9	85,2	70,6
2011	108,9	82,9	67,5
2012	112,3	80,8	75,5
2013	106,2	80,7	78,6

주: 1) 전체 수출입액을 가중치로 사용.

자료: ECLAC(2014a), p. 72.

시기 중남미 지역의 실질실효환율은 일차산품 수출 부문에 힘입은 수출 증가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중남미 지역의 실질실효환율은 약 20% 하락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브라질의 실질실효환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그에 반해 중국 특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멕시코의 실질실효환율은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멕시코의 실질실효환율은 약 6% 증가했다. 이 같은 실질실효환율 증가세에 힘입어 멕시코 공산품의 수출 가격경쟁력은 크게 제고되었다.

멕시코가 환율 상승에 힘입어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데 반해 중국의 대미 환율은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환율 측면에서 중국과 멕시코의 가격경쟁력 차이는 더욱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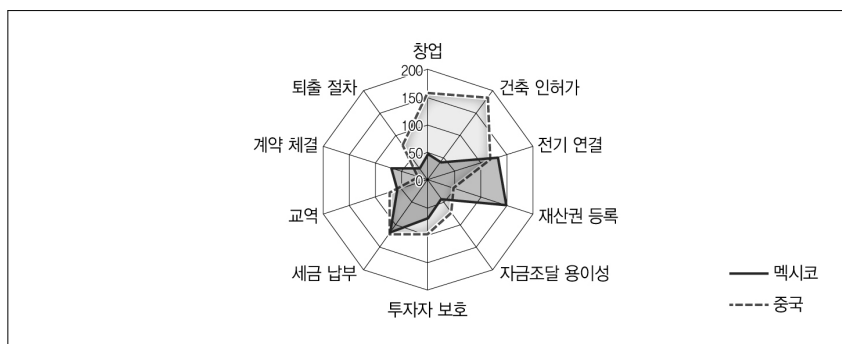
3)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 정책에 힘입어 멕시코의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 결과,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함께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멕시코의 비즈니스 환경은 주요 경쟁국인 중국 및 브라질과 비교해보면 보다 뚜렷한 장점을 파악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doin business)을 10개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한다.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국과 비교할 경우 멕시코는 전력 활용, 재산권 등록, 계약체결 측면에서만 중국에 뒤지고 나머지 7개 분야에서는 중국을 크게 앞선다. 브라질과의 비교에서도 멕시코는 전력 활용, 재산권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분야에서 브라질을 크게 앞선다. 특히 멕시코는 법인의 설립과 청산 부문에서 절차가 매우 간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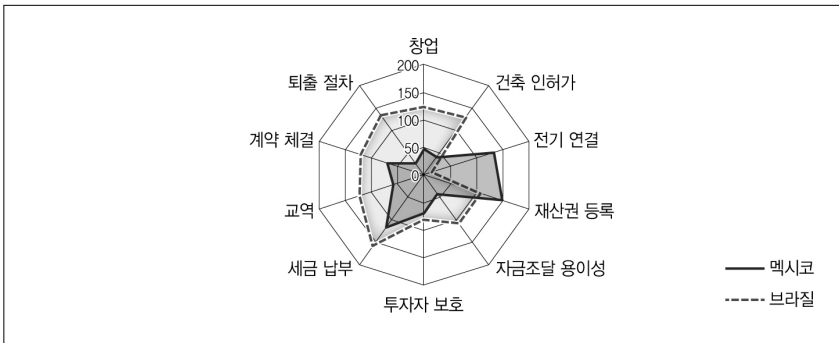
멕시코는 또한 전 세계 2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해 안정적인 투

그림 2-4. 멕시코와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비교



자료: World Bank(2014), p. 184, p. 209.

그림 2-5. 멕시코와 브라질의 비즈니스 환경 비교



자료: World Bank(2014), p. 180, p. 184.

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보장협정 정책에 힘입어 전체 협정 중 40%가 2000년대 후반에 체결되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가 전 세계 45개국과 체결한 FTA 네트워크²⁸⁾도 제조업 부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2013년 현재 멕시코의 FTA 커버율은 91.2%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같은 FTA 네트워크에 힘입어

표 2-12. 멕시코와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국 현황

국가	연도	국가	연도	국가	연도	국가	연도
스위스	1996	독일	2001	쿠바	2002	T&T	2007
아르헨티나	1998	오스트리아	2001	벨기에/룩셈부르크	2003	스페인	2008
네덜란드	1999	스웨덴	2001	체코	2004	인도	2008
프랑스	2000	한국	2002	파나마	2006	슬로바키아	2009
포르투갈	2000	이탈리아	2002	아이슬란드	2006	중국	2009
덴마크	2000	우루과이	2002	호주	2007	벨라루스	2009
핀란드	2000	그리스	2002	영국	2007	싱가포르	2011

자료: ProMexico(2013), p. 6.

28)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현재 FTA 체결국은 15개국에 불과하다.

멕시코는 전 세계 12억 소비자, 전 세계 GDP의 60%에 해당하는 시장에 특혜관세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12년 6월 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결성했다. 태평양동맹은 중남미에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이어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경제통합체로 시장규모는 2조 달러에 달한다. 태평양동맹의 결성으로 멕시코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한 결과, 멕시코의 평균 관세는 4%에 불과해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경쟁적인 가격으로 중간재와 완성재를 수입할 수 있다.

이 같은 FTA 네트워크에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멕시코는 최근 들어 북미 생산거점으로서

표 2-13. 주요국 및 지역별 FTA 커버율 비교

(단위: %, 2012년 기준)

	FTA 커버율	FTA 발효 상대국 및 지역					
		1위		2위		3위	
멕시코	81.3	NAFTA	66.6	EU	8.5	일본	2.7
EU	73.6	EU	63.3	스위스	2.6	EEA	1.6
캐나다	67.7	NAFTA	65.4	EFTA	1.2	페루	0.5
아세안	59.7	아세안	24.5	중국	13.3	일본	10.6
미국	39.4	NAFTA	29.0	한국	2.6	DR-CAFTA	1.6
한국	35.3	아세안	12.3	미국	9.5	EU	9.3
호주	26.9	아세안	14.5	미국	7.6	뉴질랜드	3.0
일본	18.9	아세안	15.3	인도	1.0	멕시코	0.9
인도	18.3	아세안	9.7	일본	2.5	한국	2.3
중국	16.6	아세안	10.3	대만	4.4	칠레	0.9

주: FTA 커버율은 FTA 발효국 및 지역(2013년 6월 시점)과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2012년 통계 기준)을 의미.

자료: Raku Yomi(2013, 11, 14), “미주대륙의 공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 Nikko AM Fund Academy Market Series.

표 2-14. 멕시코의 FTA 추진 현황

(단위: %)

	FTA	발효일	멕시코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2013)		
			수출	수입	교역
발효	NAFTA	1994.4.1	81.5	51.7	66.6
	콜롬비아	1995.1.1	1.2	0.2	0.7
	칠레	1999.8.1	0.5	0.4	0.5
	이스라엘	2000.7.1	0.0	0.2	0.1
	EU(28개국)	2000.7.1	5.2	11.2	8.2
	EFTA(4개국)	2001.7.1	0.3	0.5	0.4
	우루과이	2001.7.1	0.1	0.1	0.1
	일본	2005.4.1	0.6	4.5	2.5
	페루	2012.2.1	0.5	0.2	0.3
	중미(5개국)	2013.9.1	1.3	1.3	1.3
	총 45개국	-	91.2	70.2	80.7
서명	태평양동맹		2.2	0.8	1.5
협상 중	브라질	-	1.4	1.2	1.3
	한국(중단)	-	0.4	3.5	2.0
	TPP	-	0.5	2.4	1.5

자료: JETRO 통상홍보(2014. 6. 10) 홈페이지(<https://news.jetro.go.jp>, accessed July 7, 2014).

뿐만 아니라 남미를 포괄하는 미주지역 제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²⁹⁾ 2012년 현재 멕시코 공산품(석유제품 제외)의 주요 수출선은 미국(전체 수출의 77.6%)으로 중남미·카리브(7.7%)를 포함할 경우 전체 수출의 약 90%를 미주지역이 차지한다.³⁰⁾

멕시코의 대중남미 수출은 2001~12년 연평균 12.9% 증가했다. 이는

29) 멕시코는 태평양과 대서양에 현대적인 컨테이너항을 모두 갖고 있다. 콜롬비아, 페루, 칠레로 수출 시에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만사니요 항과 라사로카르테나스 항을 이용한다. 반면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출 시에는 대서양에 위치한 알타미라 항과 베라크루스 항을 이용한다. 파나마 운하를 통해 남미지역으로의 수출도 가능하다.

30) 멕시코는 미주지역 국가와 NAFTA,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자동차 교역의 FTA인 자동차협정(ACE 55호)을 체결하고 있다.

표 2-15. 멕시코 주요 수출 공산품의 미국 및 중남미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품목	대상지역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승용차	미국	86.1	85.4	85.2	79.4	65.7	67.7	60.6	62.3
	중남미	1.1	1.3	1.7	4.7	10.2	12.9	16.1	15.3
컬러 TV	미국	99.3	97.6	93.2	88.7	88.3	81.9	83.0	81.9
	중남미	0.6	1.5	4.1	5.4	5.6	10.1	9.6	11.9
자동차 부품	미국	95.1	95.4	95.5	93.0	90.6	90.6	88.7	89.1
	중남미	0.9	0.9	0.7	0.7	1.3	1.7	2.0	2.3
휴대 전화	미국	97.0	96.5	90.8	76.5	71.1	64.5	65.4	67.4
	중남미	0.0	0.3	3.5	19.6	17.6	8.5	8.4	6.0
컴퓨터 노트북	미국	89.9	90.5	92.8	80.4	85.7	93.2	93.1	91.9
	중남미	1.7	2.9	1.4	4.1	4.8	2.0	1.7	1.7
수출 총계	미국	88.7	88.1	87.5	84.7	80.2	80.1	78.6	77.6
	중남미	4.0	4.1	4.6	5.7	7.6	7.1	7.6	7.7

자료: INEGI 홈페이지(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18, 2014) 자료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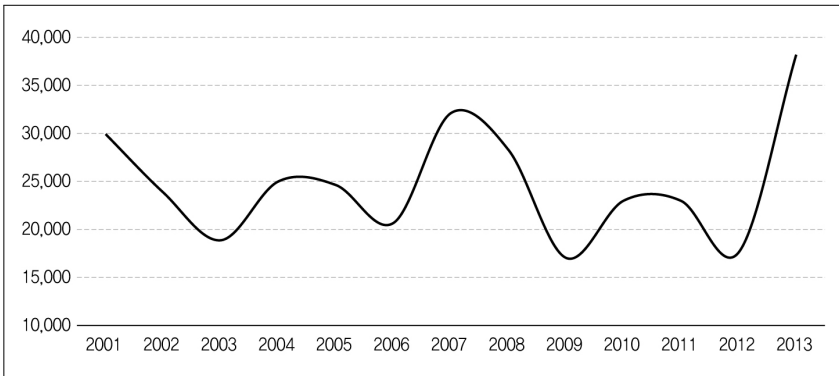
같은 기간 대미 수출 증가율(5.7%)과 전 세계 수출 증가율(6.9%)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승용차, 컬러TV,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특히 승용차 수출 비중은 2000년 1.1%에서 2012년 15.3%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이 빠른 대중남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멕시코가 대중남미 생산거점으로 변모할 날도 머지않을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멕시코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 재평가 등에 힘입어 대멕시코 FDI는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100억 달러대였던 FDI 규모는 200억 달러대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춤했던 대멕시코 FDI는 2013년 사상 최고치인 383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대멕시코 FDI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2009~13년 분야별로는 수송기기가 22.5%로 가장 많은 FDI를 유치했으며 그 뒤를

그림 2-6. 대멕시코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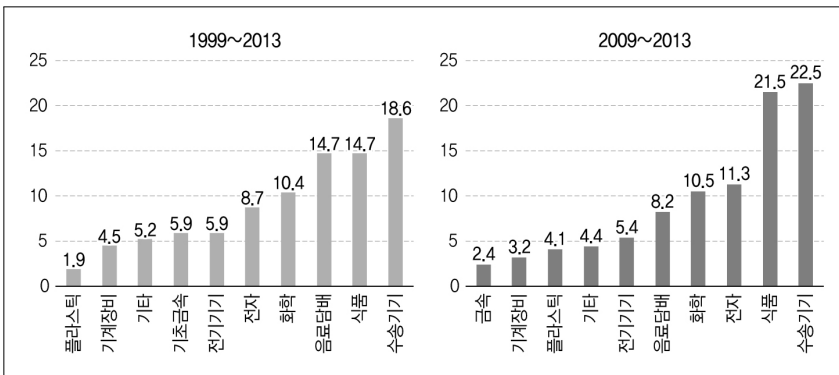
자료: ECLAC(2014b),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3*, p. 39.

식품(21.5%), 전자(11.3%), 화학(10.5%) 등이 잇고 있다.

ECLAC(2014b)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세계 자동차 메이저들이 발표한 대멕시코 투자규모는 191억 달러에 달했다. 업체 중에서는 GM이 가장 많은 53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 밖에 포드, 폭스

그림 2-7. 멕시코 10대 FDI 유치 분야

(단위: %)



자료: BBVA(2014b), p. 23.

표 2-16. 주요 자동차 업체의 대멕시코 투자 계획(2007~13년)

(단위: 백만 달러)

업체명	2007~09	2010	2011	2012	2013	2007~13
지엠	3,870	435	540	420		5,265
포드	3,000			1,300		4,300
피아트-크라이슬러		550	620			1,170
폭스바겐	1,053	1,020		700	1,300	4,073
다임러 트럭	871					871
르노-닛산		600		2,000		2,600
혼다			800			800
마쓰다			500		270	770
총계	8,794	2,605	2,460	3,720	1,570	19,149

자료: ECLAC(2014b),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3*, p. 39.

바겐 등도 4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4)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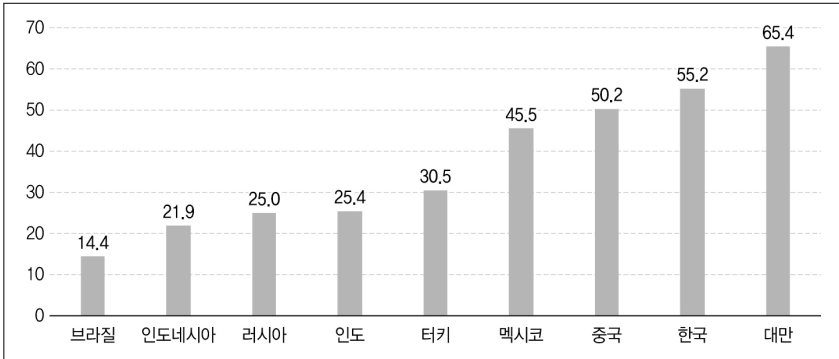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는 점도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프쇼링(Offshoring)과 아웃소싱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오프쇼링보다는 니어쇼링(Nearshoring)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즉 미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는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가 최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지리적 이점 이외에 중국과 인건비 격차가 축소되면서 생산 비용 측면에서도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멕시코 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그림 2-8. 국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입품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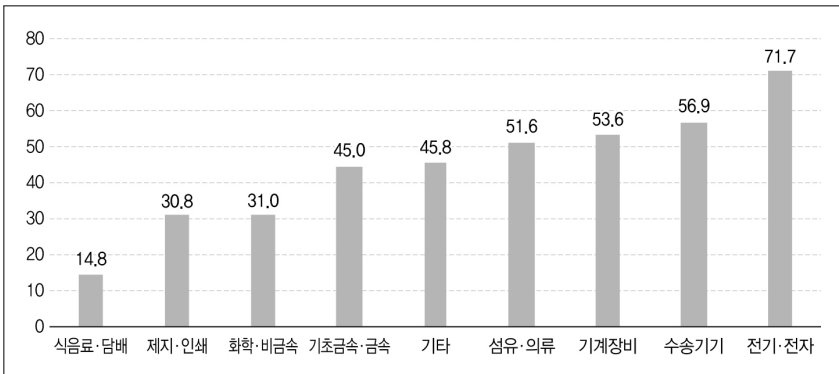


자료: BBVA(2014b), p. 24.

확고한 참여도 멕시코 제조업이 빠르게 부상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GVC는 자본이나 지식 및 기술, 생산표준의 이전 채널로 중요성이 크다. 현재 전 세계 교역의 80% 이상이 다국적기업의 생산네트워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림 2-9. 멕시코 분야별 수출에서 중간재 수입품의 비중

(단위: %)



자료: BBVA(2014b), p. 25.

개도국 중에서도 멕시코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다. 한 국가가 GVC에 얼마나 편입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는 척도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입품의 비중을 사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멕시코는 개도국 중에서 대만, 한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2009년 기준으로 멕시코 총수출에서 중간재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의 중간재 수입품 비중이 72%로 가장 높다. 그 밖에 수송기기, 기계장비, 섬유·의류 분야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마킬라도라 산업 육성책도 멕시코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멕시코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마킬라도라 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비NAFTA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 인하 △자치단체 기업에 대한 토지제공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멕시코 정부는 2006년 마킬라도라 산업을 위한 법령과 수출상품 수입을 위한 임시수입 프로그램(PITEX)을 통합해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인 IMMEX³¹⁾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³²⁾ IMMEX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들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임시 수입할 수 있으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도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³³⁾ 2012년 현재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약 6,000개(제조업체

31) Fomento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e de Servicios de Exportación.

32) 권기수(2005), pp. 92~95.

33) 김형일, 안성희(2013), p. 11.

5,055개, 비제조업체 1,180개)로 멕시코 총수출의 64%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에서 클러스터의 발전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멕시코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이다. 현재 멕시코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항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클러스터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은 외국인 투자의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었는데, 주요 메이저 자동차 기업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각 산업 클러스터에서는 생산체인에 연결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부품생산, 수입, 완제품 제조까지의 공정이 클러스터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클러스터 내에는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가 풍부하게 공급되어 기업들이 쉽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항공기업들의 멕시코 투자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인근에 항공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이 항공산업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자동차 산업을 위한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항공기업이 활용하면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는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 최근 JETRO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제조업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최대 매력을 발전된 산업 클러스터라고 지목하고 있다.³⁴⁾ 산업 클러스터는 정부의 지원 아래 성장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산업단지와 특정 업종에 집중된 산업단지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체인이 갖추어진 경우는 제조업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며 중급 또는 고급 기술을 요하는 자동차, 항공, 전자 산업 등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미숙련 노동자와 저임금을 활용하는 산업단지는 특

34) JETRO 通商弘報(2014. 6. 2) 홈페이지(<https://news.jetro.go.jp>), (accessed July 7, 2014)

정산업에 특화되지 못하고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이 한 단지 내에 밀집되어 있으며, 생산체인도 발전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앞 절에서는 멕시코의 제조업이 ① 생산비용의 상대적 하락 ② 안정적인 환율 ③ 비즈니스 환경 개선 ③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멕시코의 재평가 등에 힘입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절에서는 앞서의 분석을 토대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멕시코 제조업의 생산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서 제조업 생산성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세부산업별 분석으로 이분해 실시한다.

우선 제조업의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총요소생산성을 구하고, 세부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총요소생산성이 세부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총요소생산성 추정

재화의 생산은 노동, 자본, 중간재 등의 투입요소가 생산기술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때 생산하는 재화의 양은 투입요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지만 같은 양의 요소를 투입하더라도 생산기술이 다르다면 산출량이 차이를 갖게 된다. 이때 각 생산요소의 투입 외에 산출량

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라고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의 생산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해당 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산업의 기술수준, 경영 효율성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경제 제도의 효율성 등 다양한 거시적 요인이 반영될 수도 있다.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여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1994년 발효한 NAFTA가 멕시코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López-Córdova *et al.*(2003)은 1993~2000년 기간 동안 멕시코 제조업 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NAFTA가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NAFTA 체결 이후에 나타난 기업간의 경쟁 증가, 관세 인하, 외국기업의 국내 생산 증대 등이 멕시코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³⁵⁾ Cabral and Mollick(2011)은 1984~2000년 기간 동안 멕시코 25개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는데, NAFTA 이후 산업 내 수입의 증가가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음을 밝혔다.³⁶⁾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NAFTA 체결을 전후한 기간 동안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최근 멕시코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생산에서 투입요소와 생산량과의 관계는 생산함수를 통해 나타낼

35) López-córdova *et al.*(2003), p. 80, pp. 83-85.

36) Cabral and Mollick(2011), p. 108.

수 있는데, 생산함수는 자본, 노동, 중간재 등의 투입요소와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멕시코 제조업의 생산함수를 추정한다면 그 안에 포함된 총요소생산성도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생산함수는 노동, 자본과 함께 중간재를 포함하는 확장된 코브-더글러스(augmented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사용하였다. 이 함수를 로그 값으로 변환하면 [식 2.1]과 같다.

$$\ln Y_{i,t} = \beta_1 \ln K_{i,t} + \beta_2 \ln L_{i,t} + \beta_3 \ln M_{i,t} + \ln A_{i,t} + \epsilon_{i,t} \quad [\text{식 2.1}]$$

위 식에서 아래 첨자 i 는 제조업을 세분화했을 때 각 세부산업을 나타내고,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Y 는 i 산업의 t 연도 생산금액이고, K 는 기계, 운송장비, 컴퓨터 등을 포함하는 고정자본을 금액으로 나타낸 값이다. L 은 고용된 노동자 수, M 은 투입된 중간재 또는 원료의 금액이다. A 는 총요소생산성이고, ϵ 은 임의의 오차(random error)를 나타낸다. 이때 Y , K , L , M 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실제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총요소생산성 A 는 관측이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위 식을 통해 추정하게 된다.

멕시코 통계청(INEGI)은 제조업을 227개로 세분하여 2003~11년 각 세부 제조업의 생산액(Y), 고정자본 투입(K), 고용자 수(L), 중간재 사용(M)의 패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식 2.1]의 생산함수의 각 계수 β_1 , β_2 , β_3 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추정한 이 계수를 이용해 최종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A 를 추정하고자 한다.

생산함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일반최소자승법(FGL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을 이용해 추정한다. 제조업의 세부산업은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에도 각 세부산업별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징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특성이 데이터로는 관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면 이를 통제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정효과모형 추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최소자승법을 이용해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일반최소자승법을 사용한 이유는 검정결과 잔차항의 분산이 산업별로 다른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잔차항에 1차 자기상관(first-order 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산성과 1차 자기상관을 고려한 일반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과 FGLS를 사용한 추정 결과는 [표 2-17]과 같다.

표 2-17. 생산함수 추정 결과

종속변수: $\ln Y_{i,t}$		
설명변수	고정효과모형(FE)	일반최소자승법(FGLS)
$\ln K_{i,t}$	0.184*** (0,023)	0.195*** (0,007)
$\ln L_{i,t}$	0.369*** (0,022)	0.278*** (0,006)
$\ln M_{i,t}$	0.626*** (0,024)	0.613*** (0,006)
관측수	2,043	2,043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2)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자본(K), 노동(L), 중간재(M) 사용이 증가할수록 제조업 생산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 이내에서 유의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자본투입량이 1% 증가할 때 산업 생산은 0.18% 증가하고, 노동 투입이 1% 증가할 때 생산은 0.369% 증가하며, 중간재 투입이 1% 늘어나면 산업생산이 0.626% 증가한다. 따라서 각 생산요소가 생산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중간재가 가장 크고, 노동과 자본이 그 다음의 크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FGLS를 사용한 추정에서도 각 생산요소는 생산증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때 고정효과모형과 비교했을 때 노동의 기여도는 낮고 자본의 기여도는 다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세 생산 요소가 생산증가에 양(+)의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고정효과모형과 동일하다. 두 분석 모두를 종합하면 2000년대 이후 멕시코 제조업이 성장하는 데 각 생산요소가 기여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중간재 투입의 기여도가 가장 컸으며, 노동투입이 그 다음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자본의 기여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추정한 생산함수에서 각 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hat{\beta}_1$, $\hat{\beta}_2$, $\hat{\beta}_3$ 라 하면 각 세부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은 [식 2.2]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ln \widehat{TFP}_{i,t} = \ln \widehat{A}_{i,t} = \ln Y_{i,t} - \hat{\beta}_1 \ln K_{i,t} - \hat{\beta}_2 \ln L_{i,t} - \hat{\beta}_3 \ln M_{i,t} \quad [\text{식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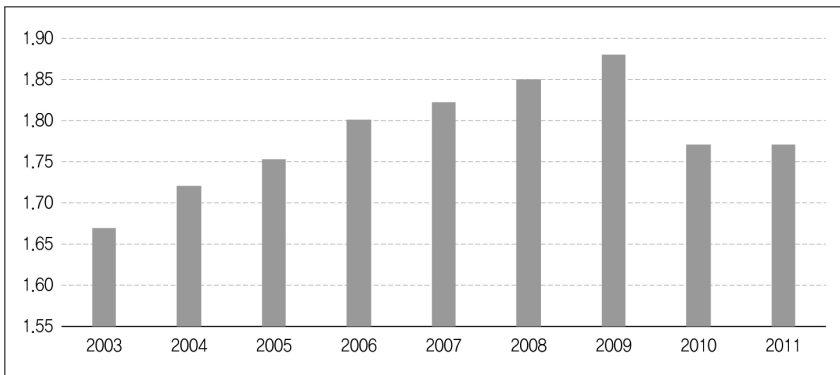
이때 제조업 각 산업별로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제한 추정치인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총요소생산성 추정에 사용하였다. 227개 세부산

업에 대한 총요소생산성($TFP_{i,t}$)을 구하고, 이를 각 산업의 생산($Output_{i,t}$)이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frac{Output_{i,t}}{\sum_{i=1}^{227} Output_{i,t}}$)으로 가중 평균하여 특정 연도의 제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하였다.

$$Total\ TFP_t = \sum_{i=1}^{227} \frac{Output_{i,t}}{\sum_{i=1}^{227} Output_{i,t}} TFP_{i,t} \quad [\text{식 2.3}]$$

[그림 2-10]은 연도별 제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데, 2003~09년 총요소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으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기 전인 2003~09년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3% 성장했으며 2003~11년의 성장률은 연평균 0.7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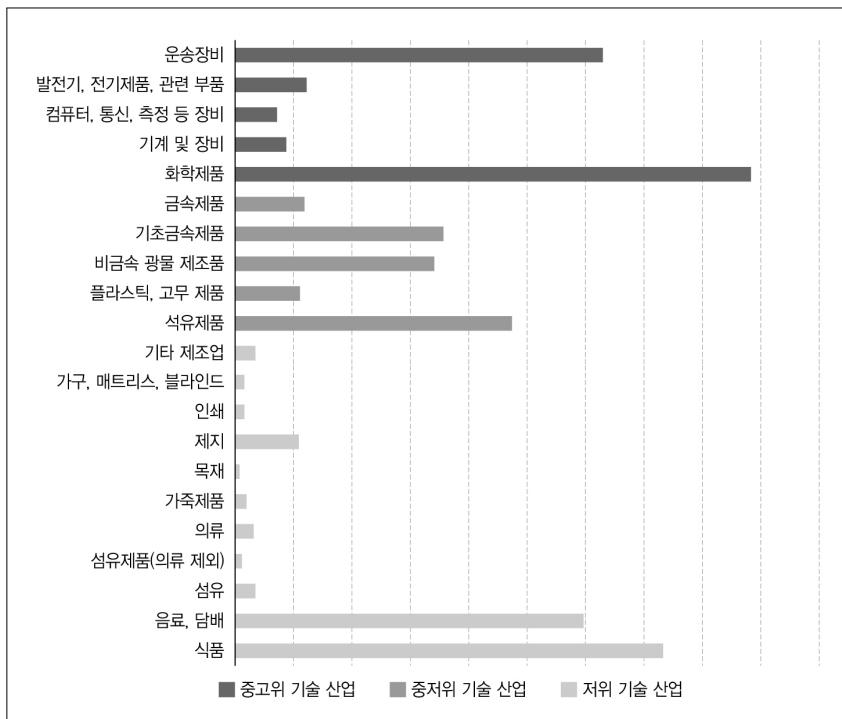
그림 2-10. 연도별 제조업 전체 총요소생산성



자료: 저자 작성.

여기서는 제조업을 21개로 구분해 각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생산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구하였다. 21개 중분류 제조업의 2003~11년 총요소생산성 평균은 [그림 2-12]와 같다. 이때 제조업의 기술수준을 저위 기술, 중저위 기술, 중고위 기술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³⁷⁾. 총요소생산성은 음료·담배와 식품을 제외하면 저위 기술에서는 낮게 나타났고 중위 기

그림 2-11. 총요소생산성(2003~11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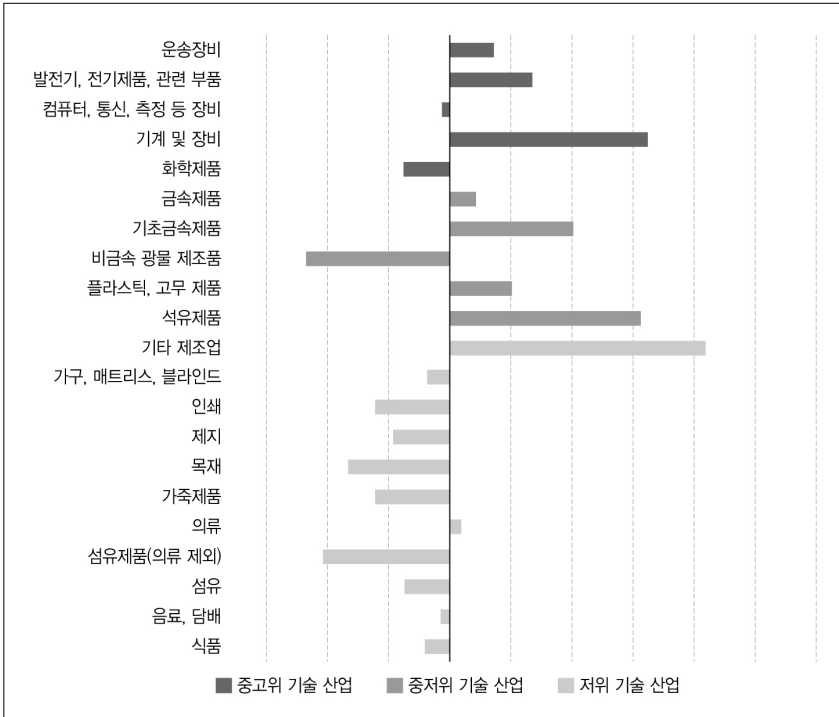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7) 21개 제조업의 기술수준은 Pereira and Soloaga(2012)의 분류를 따랐다. 이 논문은 OECD의 제조업 기술수준 분류를 멕시코 제조업에 적용하여 멕시코의 중분류 산업의 기술수준을 저위 기술, 중저위 기술, 중고위 기술 3개로 분류하고 있다; Pereira and Soloaga(2012), p. 47.

그림 2-12. 중요소생산성 연평균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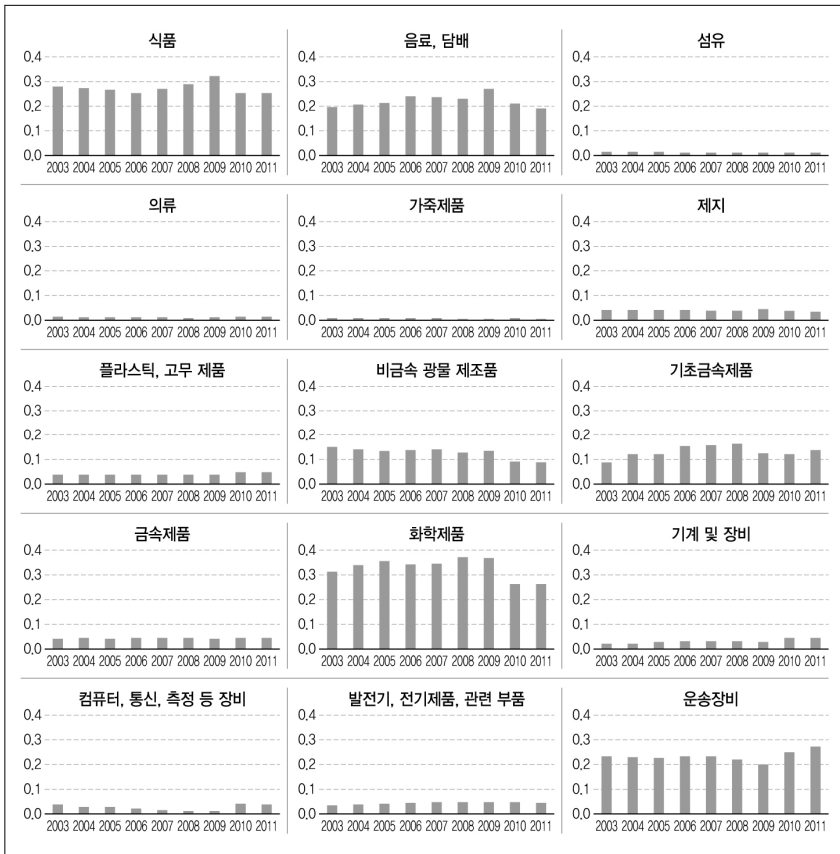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술 산업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기술 산업에서는 화학제품의 중요소생산성이 가장 높고, 운송장비, 석유제품, 기초 금속, 비금속 광물 제조품의 생산성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소생산성의 연도별 성장률을 살펴봤을 때 저위 기술 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중요소생산성이 감소하였지만 중위 기술 산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 기술 산업 중에서는 기계 및 장비 산업의 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고, 석유제품, 기초금속, 전기 및 전자제품, 운송장비 등의 생산성이 그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림 2-13. 각 산업의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변화



자료: 저자 작성.

결론적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1994년 NAFTA 체결을 전후하여 멕시코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 것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³⁸⁾

38) López-córdova *et al.*(2003), p. 80, pp. 83-85; Cabral and Mollick(2011), p. 108.

그러나 세부산업별로는 생산성에서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생산성의 연도별 증가에서도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을 기술수준으로 구분했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 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대부분 감소한 데 반해 중위 기술 산업에서는 생산성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성은 과거 약 10년 동안 증가하였지만 주로 중위 기술 산업에서 비대칭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제조업의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

멕시코 제조업은 1994년 NAFTA 출범을 전후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역자유화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멕시코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조업 부문에서 활황을 이룬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1985년에 외국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 수출산업에서 제조업 기술의 현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1985년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전 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가 개방된 것은 NAFTA 출범 1년 전인 1993년이였다. 이 해에 멕시코 정부는 그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였던 분야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며 투자의 장벽을 낮추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을 발표하였다.³⁹⁾ 1994년에는 NAFTA 출범으로 멕시코의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게 된

다. 이로 인해 2000년대에는 제조업 중에서 수송기기, 식품, 음료 및 담배, 화학, 전기전자, 기초금속, 기계 장비 등의 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들 산업은 앞서 중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산업이기도 하다. 시장개방으로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멕시코 국내에서 가공하여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완제품을 공급하며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 필자가 멕시코 현지에서 만난 멕시코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주도 산업 중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중위 기술 산업에서 생산성의 증가가 높은 데 반해 저위 기술 산업에서는 생산성의 증가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착안해 2003~11년 기간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 원인을 국제교역에서 찾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⁴⁰⁾

교역이 생산성에 기여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체들은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만 판매하기도 하는데, 기업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국내공급에 치중한 기업에 비해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외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기업은 수입하는 중간재에 선진화된 기술이 내재되어 있다면 국내산 중간재를 사용하는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재 수출 또는 중간재 수입 여부가 중요소생산성 증가

39) Campos *et al.*(2013), p. 41.

40) 당초 외국인직접투자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세부산업별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했다.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종재 수출과 중간재 수입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앞 절의 분석에서 멕시코 제조업을 21개로 구분했을 때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227개로 세분화했을 때 각 세부산업의 기술수준과 생산성 증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나 세부산업의 기술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각 산업의 최종 생산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술수준의 대리 변수로 사용한다.

총요소생산성과 이를 결정하는 변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2.4]와 같다. 이때 설명변수는 시간과 산업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Gamma_{i,t}$), 시간에 따라서는 변하지만 모든 산업에서 공통된 값을 갖는 변수(Λ_t),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산업별로 고유하지만 관찰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u_i)로 구분하였다.

$$\ln \widehat{TFP}_{i,t} = \alpha^T \Gamma_{i,t} + \delta^T \Lambda_t + u_i + e_{i,t} \quad [\text{식 2.4}]$$

시간과 산업에 따라 달라지는 설명변수($\Gamma_{i,t}$)는 최종재를 해외로 수출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D_Export_{i,t}$), 각 산업에서 사용하는 중간재 중 해외에서 수입하는 중간재가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D_Import_{i,t}$), 각 산업 부문의 총생산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log \frac{Value\ Added_{i,t}}{Output_{i,t}}$) 등이 있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모든 산업에서 공통된 값을 갖는 변수(Λ_t)는 미국경제의 성장률, 석유가격, 환율 등이 해당된다. u_i 는 각 산업별로 고정되어 있지만 데이터로는 관측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는데 이는 [식 2.4]를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면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총요소생산성이 과거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식 2.5]와 같이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ln \widehat{TFP}_{i,t} = \delta \ln \widehat{TFP}_{i,t-1} + \alpha^T \Gamma_{i,t} + \delta^T \Lambda_t + u_i + e_{i,t} \quad [\text{식 2.5}]$$

이때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종속변수의 과거값인 $\ln \widehat{TFP}_{i,t-1}$ 가 관측되지 않는 산업 특성인 u_i 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명변수($\ln \widehat{TFP}_{i,t-1}$)와 오차항(u_i)이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위 모형을 1차 차분모형으로 [식 2.6]과 같이 나타내면 고정된 산업 특성인 u_i 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차분된 오차항에 $e_{i,t-1}$ 이 포함되어 있고, 설명변수에 $\ln \widehat{TFP}_{i,t-1}$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상관관계로 인해 차분된 설명변수도 내생성을 갖게 된다.

$$\begin{aligned} \ln \widehat{TFP}_{i,t} - \ln \widehat{TFP}_{i,t-1} &= \delta (\ln \widehat{TFP}_{i,t-1} - \ln \widehat{TFP}_{i,t-2}) + \\ &\quad \alpha^T (\Gamma_{i,t} - \Gamma_{i,t-1}) + e_{i,t} - e_{i,t-1} \end{aligned} \quad [\text{식 2.6}]$$

차분모형의 설명변수가 갖는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사용하여 위 식을 추정한다. $\ln \widehat{TFP}_{i,t-1} - \ln \widehat{TFP}_{i,t-2}$ 의 도구변수로 Arellano and Bond(1991)의 방법은 설명변수의

과거값($\ln \widehat{TFP}_{i,t-2-j}$, $j=0,1,\dots$)을 사용하고, Arellano and Bover (1995)와 Blundell and Bond(1998)의 시스템 GMM은 차분된 설명변수의 과거값($\ln \widehat{TFP}_{i,t-2-j} - \ln \widehat{TFP}_{i,t-3-j}$, $J=0,1,2,\dots$)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위 두 가지 추정치 유효하기 위해서는 오차항이 설명변수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AR 검정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도구변수를 사용한 GMM 추정이 적절한지는 Sargan 또는 Hansen 검정으로 확인한다.

멕시코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식 2.4]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 [식 2.5]는 시스템 GMM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식 2.4]와 [식 2.5]에 포함된 변수의 성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시간과 산업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는 총요소생산성의 과거값($\log TFP_{i,t-1}$), 컴퓨터 사용량($\log Computer_{i,t}$), 각 산업에서 부가가치의 비중($\log \frac{Value Added_{i,t}}{Output_{i,t}}$), 최종재의 수출 여부($D_Export_{i,t}$), 중간재 수입 여부($D_Import_{i,t}$)이다. 그리고 최종재 수출 및 중간재 수입 더미변수는 부가가치 비중 변수와 교차항을 만들어 교역에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 수준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정도가 다른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Gamma_{i,t}^T = & \left[\log TFP_{i,t-1}, \log Computer_{i,t}, \log \frac{Value Added_{i,t}}{Output_{i,t}}, \right. \\ & D_Export_{i,t}, D_Export_{i,t} * \log \frac{Value Added_{i,t}}{Output_{i,t}}, D_Import_{i,t}, \\ & \left. D_Import_{i,t} * \log \frac{Value Added_{i,t}}{Output_{i,t}}, \right] \end{aligned}$$

$$D_Export_{i,t} * D_Import_{i,t} * \log \frac{Value\ Added_{i,t}}{Output_{i,t}}] \quad [\text{식 2.7}]$$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만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인 변수는 연도 더미변수로 나타낸다. 석유가격, 미국경제 성장률, 환율 등은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각 해에 모든 산업에서 공통된 값을 갖는다. 연도 더미변수는 각 해의 이 값을 대변하게 된다.

$$A_t = [YearDummy] \quad [\text{식 2.8}]$$

고정효과모형과 동적패널모형을 사용해 추정한 결과는 [표 2-18]과 같다.

두 모형 모두에서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을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수출산업에서는 오히려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산업에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조립제품을 수출하는 마킬라도라 산업부터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자동차나 항공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존재한다. 자동차나 항공 등의 수출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높더라도 마킬라도라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현저히 낮다면 수출산업의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비수출산업에 비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추정값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수출기업이라도 총요소생산성이 산업의 부가가치 수준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출 더미변수와 부가가치 변수를 교차한 항목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이 변수의 계수가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18. 수출과 수입 중간재 사용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log TFP_t$		
설명변수	고정효과모형	동적패널모형 System GMM
$\log TFP_{i,t-1}$		0.63*** (0.031)
$\log Computer_{i,t}$	0.006 (0.014)	0.028*** (0.009)
$\log \frac{Value\ Added_{i,t}}{Output_{i,t}}$	0.18* (0.100)	0.20*** (0.073)
$D_Export_{i,t}$	-0.61** (0.277)	-0.30* (0.174)
$D_Export_{i,t} * \log \frac{Value\ Added_{i,t}}{Output_{i,t}}$	0.13 (0.086)	0.041 (0.053)
$D_Import_{i,t}$	0.27 (0.245)	0.104 (0.207)
$D_Import_{i,t} * \log \frac{Value\ Added_{i,t}}{Output_{i,t}}$	-0.15** (0.080)	-0.076 (0.061)
$D_Export_{i,t} * D_Import_{i,t} * \log \frac{Value\ Added_{i,t}}{Output_{i,t}}$	0.10*** (0.026)	0.076*** (0.018)
Year Dummy	YES	YES
AR(1) z 통계량 (p값)		-3.53*** (0.0004)
AR(2) z 통계량 (p값)		0.21 (0.83)
Sargan chi2 통계량 (p값)		194.39 ⁽⁴¹⁾ (0.00)
관측 수	2,043	1,816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2)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이는 수출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중간재 수입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로 추정되었지만 역시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간재 수입, 최종재 수출, 부가가치를 교차한 설명변수의 추정치는 (+) 값과 함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가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는데, 이 산업이 최종재를 수출하고 중간재를 수입한다면 생산성이 추가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한 후 이를 수출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는데, 이들 산업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멕시코가 시장을 개방하고 제조업체들이 중간재 수입과 최종재 수출에 참여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때 교역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역에 참여하는 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 생산성 증가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멕시코 제조업은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먼저 대외적 환경이 멕시코의 제조업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빠른 소득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운임 비용 증가는 그간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누려왔던 독보적

41) 이 모형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내생적 설명변수는 1개인 데 반해 도구변수의 수가 이보다 많기 때문에 과대식별(over-identifying)이 발생하여 GMM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과대식별되었다는 가정이 적절한지를 검정하기 위해 Sargan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추정에서는 과대식별되었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지만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분산성 때문에도 귀무가설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Sargan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인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 회복과 제조업의 르네상스는 미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어링 전략에서 리쇼어링 전략이나 니어쇼어링 전략으로 빠르게 변모하는 상황도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완만한 임금 증가와 안정적인 환율에 힘입은 제조업 생산경쟁력 확보, 비즈니스 환경 개선,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투자 유입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등이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멕시코의 매력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산업과 부가가치 높은 수출 산업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분석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당분간 대미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멕시코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멕시코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와 현재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미-EU FTA 협상, 그리고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멕시코는 대미(對美)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EU 시장, 남미 시장을 겨냥한 진출기지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멕시코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멕시코가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제조업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최근 매킨지는 한 보고서⁴²⁾에서 1970년대까지 6~7%대 성장으로 경제 기적을 달성했던

멕시코 경제가 1990년 이후 저성장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를 생산성 하락에서 찾고 있다. 특히 문제는 현대적인 대기업과 전통적인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two-speed economy) 심화라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생산성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⁴³⁾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분야, 수출산업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외국인 투자가 적은 산업이나 비수출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NAFTA 등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과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입되면서 많은 멕시코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했는데, 신발, 의류, 장남감 등이 대표적인 산업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부품과 소재 등을 공급하던 중소기업들도 시장개방과 중국제품 수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줄줄이 도산, 국내 공급망마저 와해되었다. 이후 멕시코에서 제조업은 외국인 투자 산업과 수출산업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어 왔다. 따라서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출산업과 비수출산업 간의 생산성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멕시코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나 수출의 부가가치는 낮은 편이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수송기기의 경우 총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42) Bolio *et al.*(2014).

43) 1999~2009년 기간 대기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5.8%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6% 하락했다.

표 2-19. 멕시코 공산품의 해외부가가치 및 국내부가가치 현황(2009년)

상품	해외부가가치			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	
	금액	구조	수출대비 비중	금액	구조
식음료 · 담배	1,502	2.2	15.6	8,086	7.0
섬유 · 의류	1,682	2.5	22.9	5,655	4.9
제지 · 인쇄	455	0.7	19.1	1,923	1.7
화학 · 비금속	4,108	6.1	18.2	18,397	16.0
기초금속 · 금속	4,668	7.0	24.9	14,078	12.2
기계장비	2,278	3.4	31.1	5,025	4.4
전기전자	34,361	51.3	56.7	26,092	22.6
수송기기	15,347	22.9	33.5	30,422	26.4
기타	2,524	3.8	31.3	5,525	4.8
제조업 해외(국내)부가가치	66,925	95.2	36.7	115,201	71.5
해외(국내)부가가치 총계	70,326	100.0		161,1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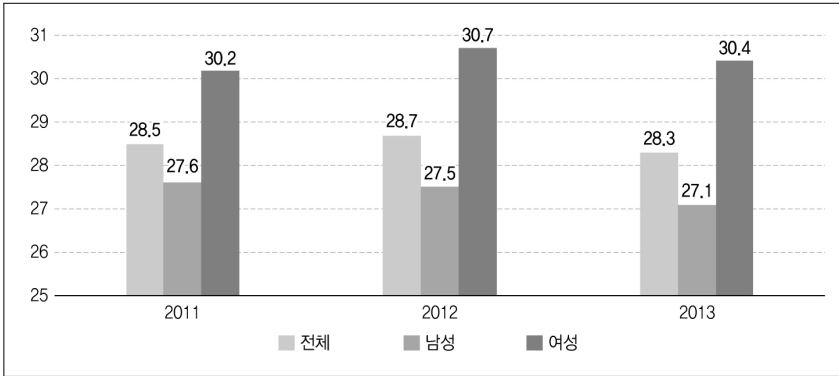
자료: BBVA(2014b), pp. 26-27.

26%에 불과하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도 그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멕시코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낮은 이유는 국내 부품산업이나 소재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여 중간재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멕시코가 글로벌 제조업 거점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 및 소재산업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지 활동 외국기업들에 따르면 멕시코는 2차 부품 공급기반(Tier2)이 취약하며, 소재산업의 발전도 미약하다. NAFTA 출범 이후 중간재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부품산업과 소재산업에서 국내 기업을 육성하여 중간재 수입 비중을 낮추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제조업의 고용을 늘려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공식 부문 노동자로 흡수해야 한다. 비공식 부문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산업 부문을 의미하는데, 2013년 멕시코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⁴⁴⁾는

그림 2-14. 멕시코 비공식 부문 고용 비중(전체 고용 대비 비공식 부문 고용)

(단위: %)



자료: INEGI 홈페이지(www.3.inegi.org.mx, accessed Aug 6, 2014) 자료를 토대로 작성.

약 1,35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3%에 해당한다. 멕시코에서 비공식 부문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제조업이 공식 부문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⁴⁵⁾ 비공식 부문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능력이 큰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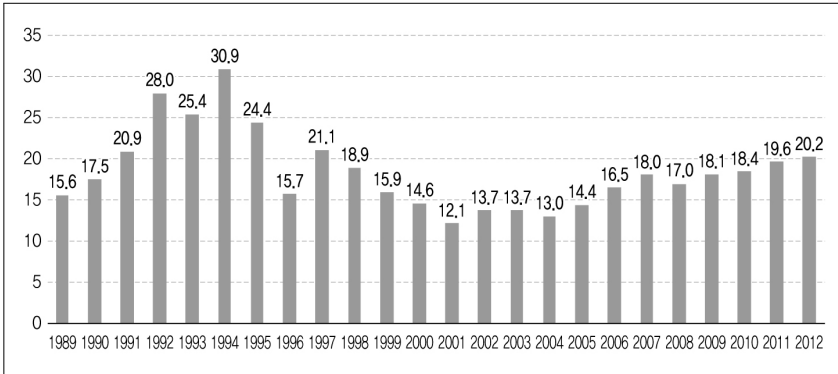
넷째, 은행을 통한 신용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 상업은행과 개발은행이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80년대 외채위기와 1994년 폐소화 위기를 계기로 은행이 민간대출을 줄이면서 은행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1994년 은행의 민간 부문 대출은 전체 GDP의 30.9%를 차지하기도 했으

44) 광의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이므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가사 노동자, 농업 부문 종사자 등도 비공식 부문 노동자에 포함된다. 광의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2,8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67.8%에 해당하지만 가사 노동자와 농업 부문 종사자 등을 제외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협의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1,35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3%이다.

45) Campos *et al.*(2013), p. 27.

그림 2-15. 멕시코 은행의 민간 부문 신용대출(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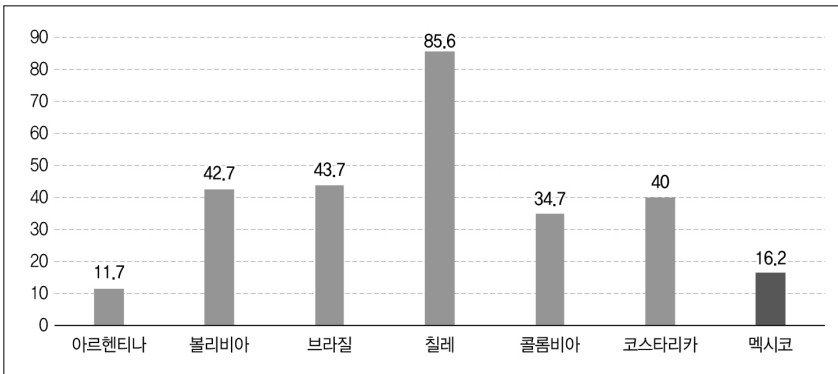


자료: CEIC Database(accessed Sep. 20, 2014).

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1년에는 최저 12.1%까지 하락했다. 이후 점차 상승하기는 했지만 2000년대 평균 민간 대출은 GDP의 16.2%에 불과하다. 중남미 주요 7개국에서 2000년대 은행의 민간 부문 평균 대출은 멕시코에서보다 크게 높은 39.2%(GDP 대비)에 달했다.

그림 2-16. 중남미 주요국 은행의 2000년대 민간 부문 신용대출 비교

(단위: %,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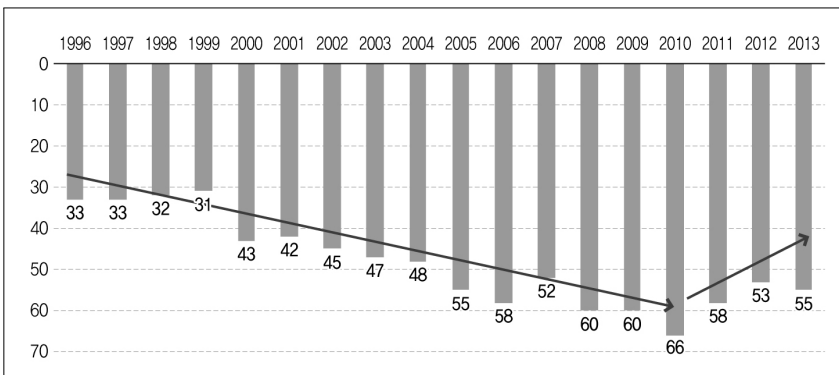


자료: CEIC Database(accessed Sep. 20, 2014).

이같이 멕시코에서 은행이 자금공급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투자자금 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은 해외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해외 금융 시장 접근조차 어렵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 축소는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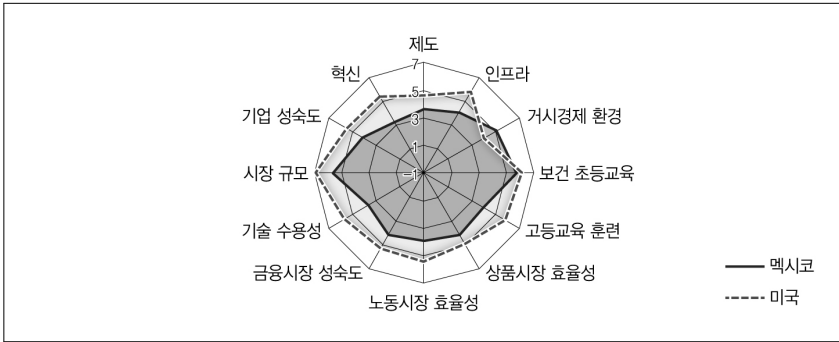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국가경쟁력은 148개 비교대상국 중 55위다. 1996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부패, 치안 불안, 관료주의와 정부의 비효율성, 비효율적 규제, 엄격한 노동규정, 부족한 인프라, 혁신능력 부재, 숙련노동력 부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2010년 이후 국가경쟁력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다시 정체 상태이다.

그림 2-17. 멕시코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자료: World Economic Forum 홈페이지(www.weforum.org/issues/global-competitiveness, accessed August 18, 2014)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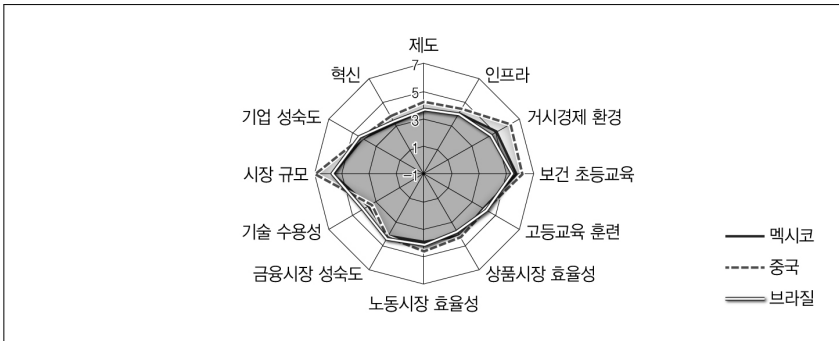
그림 2-18. 멕시코와 미국의 요소별 국가경쟁력 비교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3), p. 276, p. 382.

12개 요소별 경쟁력(2013년 기준)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113위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 제도가 96위, 고등 교육 및 훈련이 85위, 상품시장의 효율성이 83위, 기술수용성이 74위, 보건·초등교육이 73위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요소는 경제규모 11위, 거시경제환경 49위, 기업성숙도 55위, 금융시장 성숙도 59위, 혁신 61위, 인프라 64위였다.

그림 2-19. 멕시코, 중국, 브라질의 요소별 국가경쟁력 비교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3), p. 156, p. 134, p. 276.

주요 경쟁국인 브릭스 국가와 비교할 때 멕시코는 중국(29위), 남아공(53위)에는 뒤지나 브라질(56위), 인도(60위), 러시아(64위)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비교할 때 멕시코는 거시경제환경과 보건·초등교육에서만 앞서고 나머지 요소에서는 모두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국과 비교할 경우 모든 요소에서 뒤지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멕시코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치안 불안 해소, 노동시장 개선, 교육의 질 개선, 혁신 촉진, 과학기술 장려,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①전 산업에서의 균형적인 생산성 향상 ②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제조업 고용 확대를 통한 비공식 부문 축소 ④은행의 신용공급 확대 ⑤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등 멕시코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는 제3장에서 니에토 정부가 포괄적인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한 동인으로 작용했다.

제3장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혁추진의 배경
2. 산업구조개혁
3. 제도개혁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니에토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교육, 세제, 노동 등을 산업과 제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개혁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최근 동향을 분석·평가한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멕시코 신정부가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멕시코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신정부의 개혁정책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개혁 추진의 배경

제도혁명당(PRI)의 니에토 후보가 당선된 2012년 7월 대선은 선거공약에 포함된 각종 공공정책 개혁안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도 주목을 받았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PRI의 정권 재창출에도 불구하고 마약(조직)범죄와의 전쟁과 정치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정치,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교육, 세제, 노동 등의 공공정책 개혁 추진에 관심이 더 집중되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 달성 여부와 개혁 추진력에 주목했다. 먼저 개혁 의제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할 경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치열한 정쟁과 사회적 논쟁을 예상할 수 있고, 그 결과, 과거 사례처럼 개혁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주 지지사(2005~11년) 시절 608개 공약을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면서 치안,⁴⁶⁾ 대중교통,⁴⁷⁾ 의료⁴⁸⁾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성과를

바라보는 국민적 기대가 새 정부의 개혁 추진 의지에 투영되었다. 비록 주지사로서 이룩한 공과는 분야별 평가기준이나 평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⁴⁹⁾ 니에토 대통령의 개혁 추진 능력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12월 2일 발표된 ‘멕시코 협약(Pacto por México)’⁵⁰⁾은 개혁 추진의 전제조건인 사회적 합의 도출의 첫걸음이었다. 비록 ‘멕시코 협약’은 주요 정당 대표와 대통령이 참여한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지만 개혁 추진에 필요한 헌법 개정과 각종 이행법을 제·개정의 필요성, 사회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멕시코 정치권의 위상, 그리고 PRI 장기집권기의 정치문화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했다.⁵¹⁾ 특히 ‘멕시코

46) 마약범죄 및 조직범죄 활동에 따른 살인을 감축(50%).

47) 고속도로 건설 및 철도정책(Mexibus).

48) 의료서비스 강화(106개 병원 및 의료센터 건립), 보건정책을 통한 각종 질환 사망자 감축(호흡기질환 사망자 55%, 이질 68%, 자궁암 25%), WHO 요구사항(환자 1,000명당 의사 1인) 충족.

49) 주지사 역임 당시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평가가 니에토 대통령의 행정능력을 검증하려는 반대당의 대표적인 전략이었는데, 민주행동당(PAN) 대선 후보이던 바스케스 모타(Josefina Vázquez Mota)는 이를 ‘더러운 전쟁(guerra sucia)’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 ADNPolítico.com(2012), “Vázquez Mota acusa ‘guerra sucia’ en redes sociales,” www.adnpolitico.com/2012/2012/03/16/vazquez-mota-acusa-guerra-sucia-en-redes-sociales. (accessed June 9, 2014)

50) 국가 강화, 정치 및 경제자유화, 사회적 권리 적용 및 실행이라는 비전하에 체결된 ‘멕시코 협약’은 5대 협정(△기본권 및 자유 △경제성장 △고용 △경쟁력 △안전 및 정의 △투명성, 책임 및 부패척결 △민주적 거버넌스)을 바탕으로 95개 개혁 및 공공정책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Pactopormexico(2012b), “Pacto por Mexico,” <http://pactopormexico.org/PACTO-POR-MEXICO-25.pdf>. (accessed May 8, 2014)

51) 협약 협상과정에는 제도혁명당(PRI) 출신 오약사가 전 주지사(José Murat)의 중재로 PRI의 정부 인수위원회 대표, 국민행동당(PAN) 및 민주혁명당(PRD) 대표들이 참석했지만 협약 서명 및 발표식에는 대통령, 주요 3당 대표, 상원 및 하원 의장, 주요 정당 원내대표 외에도 녹색당(PVEM, 2014년 1월 28일 협약 서명) 대표, 현역 주지사 31명, 3개 주 주지사 당선자 및 멕시코시티 시장 당선자가 참석했다. 이와 같은 정치 혹은 사회협약은 PRI 집권기에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종종 체결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정치문화인 조합주의(corporatism)와 관련성이 높다.

코 협약'은 험난한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비용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과 경제위기 극복과 같은 당면과제보다는 멕시코의 미래 번영을 위한 각종 정책 및 개혁 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정치협약으로 평가된다.⁵²⁾ 따라서 개혁정책의 추진 배경은 '멕시코 협약'의 5대 협정별 주요 개혁 및 공공정책 실천과제에서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

첫째, 멕시코 정치권은 전체 국민을 포용하고, 개인간 및 지역간의 높은 불평등 수준을 완화시키며,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이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⁵³⁾와 국가빈곤퇴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교육제도를 개혁하며, 사회통합 수단으로서 문화를 강조하고, 국가정책으로서의 인권보호 및 원주민 권리 강화 등에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한다는 '기본권 및 자유를 위한 협정'에 합의했다.

둘째,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멕시코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시장의 선두주자로 평가된다. 비록 멕시코의 임금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타당성도 있지만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제한적이었던다는 점에서는 과대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⁵⁴⁾ OECD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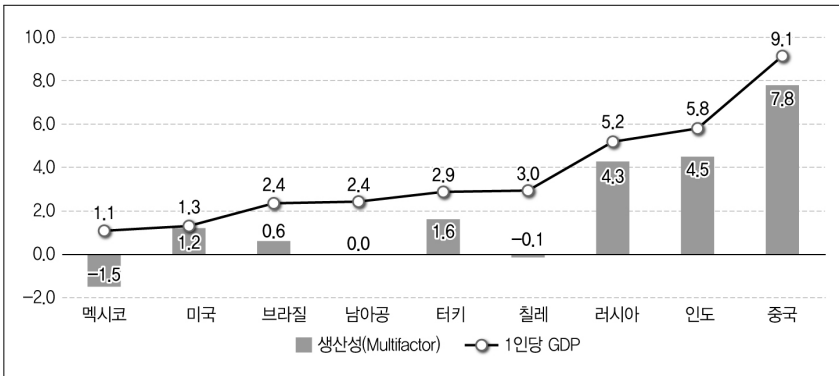
52) Pactopormexico(2012a), “¿Cómo se logró?(2012a),” <http://pactopormexico.org/como/>. (accessed May 8, 2014)

53) 보건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 노령연금 확대(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미가입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실업보험 및 가장(家長)의 생명보험 도입; Pactopormexico(2012b), *op. cit.*, pp. 3-4.

54) 제2장의 멕시코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추정에 따르면 2003~09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하락추세를 기록했다. 즉 총요소생산성은 2003~09년에 연평균 1.23% 성장했으나 2003~11년에는 0.74% 증가에 그쳤다. 이에 멕시코가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그림 3-1. 주요국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소득증가율 비교(2000~11년)

(단위: 연평균 %)



자료: OECD(2013b), OECD Economic Surveys: Mexico 2013, p. 13.

멕시코의 성장률 하락 추세와 OECD 국가들과의 성장률 격차 축소 추세를 반영해 멕시코가 BRICs를 대체할 차기 선두주자로서 평가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면서 산업 부문과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개혁 추진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⁵⁵⁾

이와 같은 OECD 권고의 수용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멕시코 정치권은 ‘멕시코 협약’ 논의에서 빈곤퇴치의 최적 수단인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임금소득 개선에 필수적인 경제성장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공공 및 민간투자 장려를 통한 투자율(GDP 대비 25%) 제고와 생산성 향상이 잠재성장률 달성(5% 이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했다. 이와 같은 공감과 인식 위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성장 · 고용 ·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경쟁정책,⁵⁶⁾ 에너지, 통신, 금융, 과학기술 혁

달성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 산업에 걸친 균형적인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55) OECD(2013a), Getting It Right: Strategic agenda for reforms in Mexico, pp. 15-17 ; OECD(2013b), OECD Economic Surveys: Mexico 2013, p. 47.

신,⁵⁷⁾ 지속가능한 개발,⁵⁸⁾ 광업(법률 개정), 농업,⁵⁹⁾ 남부-남동부 지역균형개발, 국채관리(재정 · 공공부채책임법 제정), 세제 등 11개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2012년 멕시코통계청(INEGI)이 실시한 ‘정부행정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Encuesta Nacional de Calidad e Impacto Gubernamental 2011)’ 결과에 따르면 치안 불안(응답자 69.2%, 1위)과 부정부패(52.5%, 3위)는 멕시코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경제성장과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나타났다.⁶⁰⁾ 이러한 조사결과는 칼데론(Felipe Calderón) 정부(2006~12년)가 마약조직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연간 GDP의 1~1.5%의 자금을 투입하고도 치안 안정에 실패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니에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마약조직과의 전면전보다는 조직적이면서 유연한 자세로 대응하여 사회 안정화를 달성하고, 임기 6년 동안 범죄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제안했다.⁶¹⁾ 이와 같은 공약은 ‘멕시코 협약’의 ‘안전 및 정의 협정’으로 구체화되었고,

56) 연방경쟁위원회(CFC) 강화, 경쟁 및 통신전문 특별재판소 설립.

57) 과학기술법(Ley de Ciencia y Tecnología) 시행 및 과학기술투자 확대(GDP 대비 1%), 과학기술개발 우선 프로그램(국가, 지방) 마련, 학자 · 연구소 · 특허의 수적 증대.

58)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수자원 관리 재검토, 폐기물 관리프로그램(수거, 분리, 재생, 활용 인프라) 개선.

59)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환경서비스 유지를 위한 농업보조금 강화.

60) INEGI(2012), “Nota Técnica: Encuesta Nacional de Calidad e Impacto Gubernamental (ENCIG) 2011” in “Presenta INEGI Encuesta sobre Calidad de Trámites y Servicios del Gobierno,” Boletín de Prensa Núm. 358/12, p. 12, (accessed June 10, 2014)

61) 니에토 후보는 구체적인 치안안정대책으로 연간 GDP 대비 5%의 자금 투입, 마약범죄 전담부서 설치, 주 경찰력의 중앙통제화, 미국과의 전문적 군사협력 및 기술 협력(미군 개입 배제) 등을 제안하였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범죄 예방 및 지역공동체 참여계획 도입,⁶²⁾ 경찰 개혁, 신규 형사사법제도 도입, 전국 단일형법 및 형사소송법 도입 등에 합의했다.

넷째,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멕시코는 2012년과 동일한 34점으로 전체 177개 국가 가운데 106위를 차지하고,⁶³⁾ 2011년 발표된 뇌물공여지수(BPI)에서는 7.0으로 28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⁶⁴⁾ 이러한 결과는 2003년 CPI(3.6, 64/133)와 2006년 BPI(6.45, 17/30)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악화됨은 물론 부패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국가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민주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을 제고시키는 주요 수단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 형성과 효율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효과적인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투명성 · 책임 · 부패척결 협정’을 통해 재정지출 정보 공개를 위한 정부 회계시스템 개혁, 연방공공정보공개청(IFAI)의 헌법상 독립기구로의 재편, 반부패국가위원회(가칭) 및 공공윤리국가위원회 설치 등 3대 개혁조치 실행에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의회 내의 권력분산으로 인해 세디요(Ernesto Zedillo, 1994~2000년) 대통령 때부터 행사하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국정 주도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니에토 정부도 여당인 PRI가 헌법 및 각종 법률의 제 · 개정 에 필요한 절대 다수당으로서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62) 전국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규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빈곤퇴치프로그램, 종일학교, 청년고용프로그램 등을 확대 및 시행하자는 취지이다.

63)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3),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3: Full Table and Rankings,” <http://www.transparency.org/cpi2013/results>. (accessed June 10, 2014)

64)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1), Bribe Payers Index 2011, p. 5.

이전 정부들과 유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에 니에토 대통령은 정부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직후부터 야당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차기 정부의 정책의제를 담은 ‘멕시코 협약’ 체결에 매진하였고, 다양한 공공정책 개혁을 위한 기반으로서 ‘정치개혁 협정’을 체결했다. 정치개혁은 직전 여당이던 국민행동당(PAN)이 내세운 에너지 개혁 등 공공정책 개혁 추진의 전제조건이었기에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한 주요 정치개혁 과제는 대통령 연립정부 구성권 부여, 대통령 취임일 변경(12월 1일→9월 15일), 저비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 연방구 개혁, 하원의원 재선 허용(의회 개혁) 등 다양하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주목되는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저하가 에너지, 방송통신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경제위기가 순환적으로 반복되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보다 낮은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멕시코가 회원국으로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1.6%)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중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칠레, 터키, 동유럽 국가)은 물론 주요 신흥경제국의 성장률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멕시코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을 각종 산업에서 나타나는 생산성 증가율의 정체 혹은 후퇴, 산업별 생산성 개선에 필수적인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찾았다. 특히 법률 제정과 제도 강화를 비롯한 경쟁정책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산업 및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과점 관행을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

으로 간주했다.

이외에 주요 정당의 정치적 동기도 ‘멕시코 협약’ 타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먼저 12년 만에 정권을 재창출한 PRI와 니에토 대통령은 PAN-PRD 야당연합이 구성될 경우 발생할 여야 대립으로 임기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과의 정책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여당에서 제1 야당으로 신분이 전환된 PAN은 PRI와의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제2 야당인 PRD는 협약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정치적 고립을 회피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PRI와 PAN은 이념과 정강이 상호 수렴되는 측면이 있어 대선 전후 정책적 동맹관계를 구축할 여지를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PAN의 모타(Josefina Vásquez Mota) 후보가 에너지, 교육, 노동 등의 구조개혁 추진을 지지한 것이다.⁶⁵⁾ 반면 석유자원 개방에 반대하는 PRD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PRI와 PAN이 주도하는 ‘멕시코 협약’ 체결을 저지할 명분이 없었다. 비록 PRD는 에너지산업 개방 방침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국민권리를 강화하는 개혁조치들을 협약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65) El Economista(2012. 5. 11), “Vásquez Mota impulsará reformas estructurales junto a CCE,” <http://eleconomista.com.mx/sociedad/2012/05/11/vazquez-mota-impulsara-reformas-estructurales-junto-ccc>. (accessed June 11, 2014)

2. 산업구조개혁

가. 에너지산업 개혁

1) 배경

에너지개혁의 목적은 석유 및 가스 개발과 생산을 증대하고, 발전량을 늘리며,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탄화수소 및 전력산업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을 완화하고,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하며, 민간투자를 적극 개방할 예정이다.

석유와 전력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하락이 에너지개혁 추진의 주된 배경이다. 멕시코 석유산업은 2013년 기준으로 GDP의 4.7%, 수출의 14%, 재정수입의 30%를 차지했다. 그러나 석유산업은 석유공사(Pemex)의 재정 기여금 부담 증가에 따른 탐사 및 개발 투자 감소, 기술적 낙후, Pemex 독점에 따른 시장의 폐해 등으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원유 생산량이 2003년 일일 평균 340만 배럴에서 2013년 250만 배럴로 27% 감소했다.⁶⁶⁾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기존 유전의 매장량 고갈과 더불어 탐사 및 개발 투자 부족에 따른 확인매장량 정체에 있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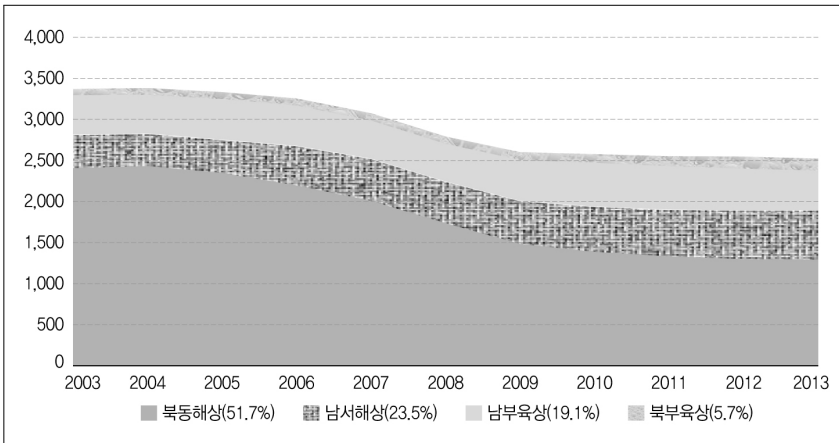
둘째, Pemex의 기술개발 투자 부족과 비효율적인 투자가 생산량 감소

66) Gobierno de la República Mexicana(2013), Reforma Energética, p. 4.

67) 1938년 국유화 이후 멕시코 석유산업은 1976년 칸타렐(Cantarell) 유전 발견으로 도약했다. 칸타렐 유전은 매장량 및 생산량 측면에서 세계 최대 유전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는데, 2003년의 경우 일일 생산량이 210만 배럴로 증가하면서 멕시코 전체 생산량을 약 340만 배럴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매장량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칸타렐 유전 생산량은 일일 40만 배럴로 급감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 유전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전체 원유 생산량(2013년 일일 250만 배럴)을 반등시키지는 못했다.

그림 3-2. 멕시코 석유생산량 추이

(단위: 천 배럴)



주: 1) 괄호 안은 2013년 말 기준 총생산량 대비 비중.

2) 북동해상광구(cantarell, Ku-Maloch-Zaap), 남서해상광구(Abkatur-Pol-Chuc, Litoral tabasco), 남부육상광구(Cinco Presidentes, Bellota-Julo, Macuspana-Muspac, Samarta-Luna), 북부육상광구(Burgos, Poza Rica-Altamira, Aceite Terciario del Golfo, Veracruz.).

자료: Pemex(2014), "Anuario Estadístico 2003-2013," www.pemex.com/informespemex/anuarioestadistico.html, (accessed Sep 15,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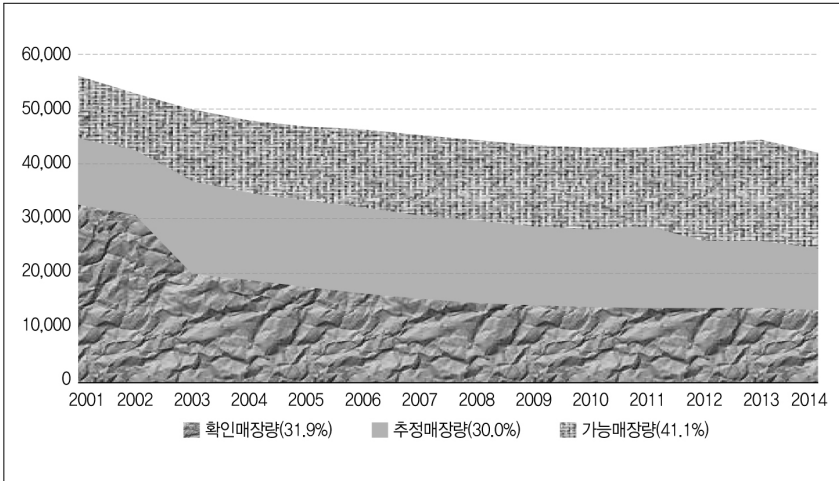
로 나타나고 있다. Pemex는 풍부한 추정매장량을 보유한 멕시코만의 심해유전과 미국 텍사스주(Eagle Ford 광구) 남부 국경지대에 매장된 셰일가스층을 개발할 기술이 부족하다. 또한 투자 증가(2004년 100억 달러→2012년 200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감소는 Pemex의 낮은 투자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Pemex 독점의 폐해이다. 석유산업은 헌법으로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국가독점산업이고,⁶⁸⁾ Pemex는 탐사, 생산, 정유, 1차 석유화학 등을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동시에 유전 및 가스전

68) 헌법 27조, 1958 석유통제법(Oil Ruling Act), 외국인투자법 제5조에 의해 석유 탐사와 개발은 국가에만 허용된다.

그림 3-3. 멕시코의 석유매장량 추이

(단위: 백만 boe)



주: 괄호 안은 2014년 1월 1일 기준 총매장량 대비 비중.

자료: Pemex, Reservas de Hidrocarburos, 각 연호.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외국 민간기업의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⁶⁹⁾ 즉 Exxon-Mobile과 Chevron 같이 고급 기술인력을 구비한 대기업들은 생산물분배계약으로 원유 처분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개발위험이 높은 광구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산업 저개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살리나스(Carlos Salinas, 1988~94년), 폭스(Vicente Fox, 2000~06년), 칼데론

69) Halliburton Co., Schlumberger Ltd., Weatherford International Ltd. 사례처럼 서비스계약 및 인센티브계약을 통해서만 진입이 허용된다 ; Bloomberg(2009. 10. 22), “Pemex may renegotiate current oil-service contracts,”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newsarchive&sid=aLt8B5N12N6E>. (accessed June 12, 2014) ; James Fredrick(2013. 7. 11), “Pemex's Chicontepec round disappoints, surprises,” BNAmericas, www.bnamericas.com/news/oilandgas/pemexs-chicontepec-round-disappoints-surprises. (accessed June 12, 2014)

(Felipe Calderón, 2006~12년) 정부는 모두 Pemex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실질적인 개방정책을 실행하지 못했다. 비록 칼데론 정부에 의해 2008년 11월 에너지개혁법(Energy Reform 2008)⁷⁰⁾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석유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했다. 개혁법안이 의회 승인 과정에서 야당(PRD, PRI)의 반대로 정부안⁷¹⁾에서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즉 Pemex 민영화와 외국인 지분투자 및 운영권 제공은 배제되고, 멕시코만의 심해유전 탐사와 개발(시추)에 한정된 인센티브서비스계약⁷²⁾을 통한 민간투자만 일부 허용하여 시추서비스 활동을 제외한 부문에의 외국 석유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 따라서 에너지개혁 추진과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여부와 민간 부문과의 계약방식은 멕시코 정치권과 석유산업계가 2008년 단행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부족했던 부분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했다.

한편 멕시코 전력산업도 다양한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했다. 첫째, 전력요금이 상승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2013년 1/4분기 기준으로 미국과 비교할 때 평균 전력요금은 약 25% 높았는데, 계절에 따라 정책

70) 에너지개혁으로 신설 및 수정된 7개 법안은 ① Pemex법(Pemex가 재무부 승인 없이 투자와 채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신설 및 수정) ②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법 ③ 지속가능 에너지이용법 ④ 석유위원회법 ⑤ 헌법 27조 석유부문 규정법 ⑥ 연방공공행정조직법 ⑦ 에너지규제위원회법이다.

71) 정부안은 심해유전 탐사와 정제 부문의 민간 개방,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의 민간 소유 인정, Pemex에 대한 개발 및 경영 재량권 인정 등이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 Pemex로 하여금 입찰 시 신속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지닌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Pemex의 예산수립 및 장기적인 원유탐사 계획수립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

72) 인센티브서비스계약은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원유 및 가스전 탐사·개발 등 운영권 한을 부여하지만 생산된 석유 및 가스의 판매와 인프라는 Pemex가 소유하고 민간 기업에는 개발 및 운영 비용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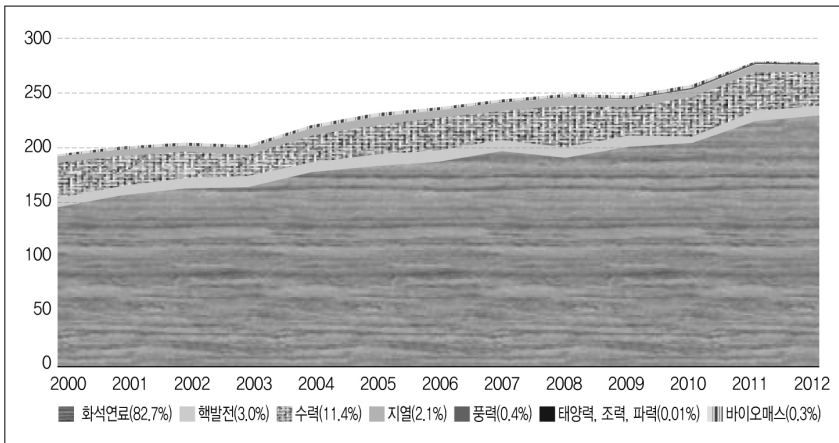
적으로 제공되는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73% 이상 높게 나타난다.⁷³⁾ 전력이 멕시코의 산업, 상업, 서비스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착된 상황에서 고가의 전력요금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 천연가스 개발 확대로 화석연료(석유류, 천연가스, 석탄)를 이용한 발전 비중(2012년 82.7%)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전력의 20% 이상이 청정에너지와 천연가스보다 비용이 높은 디젤유를 비롯한 석유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다. [그림 3-4]에 나타나듯이 수력(11%)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에 불과하다.

멕시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발전용 연료의 대체 속도가 느린 이유가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전력청(CFE)의 독점에서 비롯되는

그림 3-4. 연료별 발전량 추이

(단위: 10억 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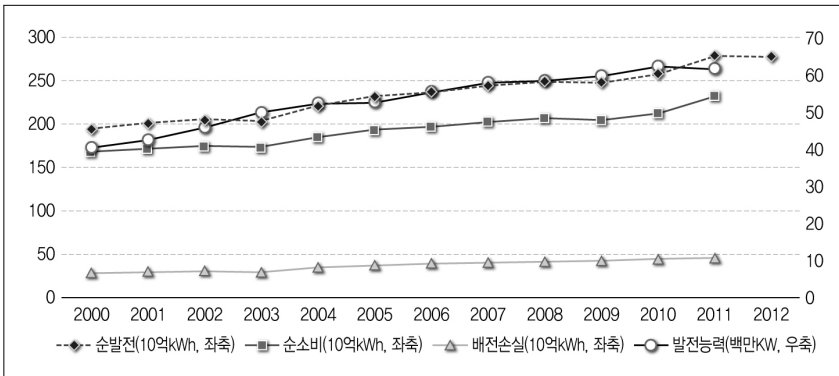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2012년 기준 연료별 발전 비중.

자료: EIA(2014),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Electricity," www.eia.gov, (accessed Sep 15, 2014)

73) Gobierno de la República Mexicana(2013), Reforma Energética, p. 19.

그림 3-5. 멕시코의 전력산업 주요 지표



자료: EIA(2014),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Electricity," www.eia.gov, (accessed Sep 15, 2014)

것으로 평가한다.⁷⁴⁾ 따라서 국가전력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전력 개발프로젝트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력산업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대부분의 개발프로젝트는 CFE의 기획에 의존하고 국가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즉, CFE 독점체제가 유지되는 한 저비용으로 발전이 가능한 잠재 에너지원의 조기 개발에 한계가 있어 전력서비스 공급에서 병목현상만 초래될 수 있다.

셋째, 스마트그리드의 사례처럼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송전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멕시코 전력산업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풍력 및 태양력과 같은 청정에너지원을 보유한 지역과 상호 연결하는 국가송전망의 확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에너지 손실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 높

74) Ibid., p. 20.

다는 점을 참고하면 국가 송전망은 물론 배전망에서도 상당한 비효율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전기요금 징수과정에서의 손실을 포함하여 CFE가 생산하는 에너지 가운데 손실되는 전력량이 2000~11년간 연평균 16%를 기록했다.⁷⁵⁾

2) 주요 내용

에너지개혁법안(헌법 수정안)은 [그림 3-6]의 ‘멕시코 협약’⁷⁶⁾에서 출발하여 헌법 제25조, 제27조, 제28조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수익분배계약을 통해 Pemex와 민간 부문이 석유·가스를 탐사 및 생산하게 하여 멕시코의 석유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했다. 둘째, 정유, 석유화학, 운송, 저장, 유통, 판매 활동 부문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하여 Pemex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셋째, 멕시코 국내 기업들이 최적의

75) EIA(2014),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Electricity,” <http://www.eia.gov/cfapps/ipdbproject>. (accessed Sep 15, 2014)

76) ‘멕시코 협약’에 명시된 에너지개혁 방향은 행정부와 PRI뿐만 아니라 PAN 및 PRD의 개혁안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2013년 6월 31일 제출된 PAN의 에너지개혁안은 △석유 및 고체·액체·기체 유형의 탄화수소 개발을 위한 계약 및 양허 허용 △Pemex와 연방전력청의 독점 해체 및 경쟁시장에서의 지배기업화 △석유기금 설립 △국가탄화수소 위원회 및 국가에너지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 강화를 포함했다. 반면 2013년 8월 19일 제출된 PRD의 에너지개혁안은 개헌보다는 이행법 개정을 선호하면서 △Pemex의 재무 체계 개혁 △Pemex 및 CFE의 예산 및 경영 자율성 제고 △에너지부(SENER) 및 국가탄화수소위원회 강화 △연료 및 전력 요금, 가격, 보조금 정비 △석유 안정화기금(Fondo de Estabilización de Ingresos Petroleros)을 금융기관으로 전환 △멕시코석유청(Instituto mexicano del Petróleo)의 기술 비전 구축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에너지전환 이행을 포함했다 ; Wikipedia, “Reforma energética (México),” [http://es.wikipedia.org/wiki/Reforma_energ%C3%A9tica_\(M%C3%A9xico\)](http://es.wikipedia.org/wiki/Reforma_energ%C3%A9tica_(M%C3%A9xico)). (accessed Sep 11, 2014)

그림 3-6. 멕시코 협약(Pacto por Mexico)'의 에너지개혁 방향

-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 지속
- Pemex 개혁: 생산적인 공기업, 세계적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경쟁력을 지닌 국유 기업, 지배구조 및 투명성 제고
-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및 생산 증대
- 탄화수소 자원의 정유, 석유화학, 수송 과정에의 경쟁 도입
- 국가탄화수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 강화
- Pemex를 국내 공급체인의 원동력 및 국내 비료생산 중심기업으로 변모
-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전략 구축

자료: 저자 작성.

가격 및 서비스 조건을 활용하도록 전력생산시장을 창출하고 국가전력시스템을 독립운영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넷째, Pemex 및 멕시코연방전력청(CFE)을 100%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협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직 개선 및 재정 자율성을 증대시켰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부(SENER) 및 관련 산하조직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의 공공조직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부패퇴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개혁을 위한 헌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1934~40년) 전 대통령이 시행한 1938년의 석유 국유화 당시의 헌법 정신인 석유자원의 국가 소유는 유지하되 멕시코 석유산업의 부활을 위한 효과적인 계약 모델⁷⁷⁾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77) 이익분배계약(profit-sharing agreement)은 기업이 현금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개발 및 생산 위험이 낮은 경우 활용된다.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sharing agreement)은 탐사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처럼 기업이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에서 활용된다. 기업으로 하여금 예상 수익을 보고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 더 매력적으로 인식된다. 라이선스는 기업이 석유를 통제하고 정부에 로열티와 세금을 지불하는 양허와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나 석유에 대한 국가소유권이 유지될 경우 양허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 Christian Gómez(2013. 12. 13), "Viewpoint: Mexico's Energy Reform," ASs/COA, www.as-coa.org/articles/viewpoint-mexicos-energy-reform. (accessed May 8, 2014)

제27조와 제28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 포괄적 개발, 에너지 안보, 투명성 제고, 환경보호 및 지속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헌법 수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석유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 및 민간에 대한 채굴권 부여 금지 규정을 유지하면서 Pemex를 국영기업으로 존치했다. 그러나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 부문과 생산물분배방식이 아닌 이익분배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자원에 대한 국가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방정부의 허가에 의해 민간 부문의 석유 정제, 운송, 저장, 분배 분야에의 참여를 허용했다. 이를 위해 △석유개발에 수반되는 국가와 민간의 계약 금지를 해제하고 △국가가 배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 분야에서 석유, 탄화수소, 기초석유화학을 제외하며 △천연가스 처리와 석유 정제, 운송, 저장, 분배 등 연방정부의 허가를 통해 국가조직 혹은 민간 분야에 사업을 허가 하는 헌법상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전력 분야의 경우 국가전력시스템 통제 및 송배전망 관리를 국가의 배타적 업무영역으로 존치하되 전력 생산, 송전, 배전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형태로 민간의 참여를 허용했다.

3) 후속조치 현황

니에토 대통령의 개혁정책은 노동, 교육, 통신, 금융 개혁안이 순차적으로 의회를 통과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마련된 세제개혁안이 야당의 저항으로 원안보다 후퇴한 수준에서 통

과되면서 개혁 추진력은 약화되었다. 2013년 8월 의회에 상정된 에너지 개혁법안은 5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의회(상원 12월 10일, 하원 12월 12일)와 지방의회(12월 15일 17개 주정부 의회 통과)를 통과하고 헌법 개정 요건을 갖추어 공포⁷⁸⁾되었다. 이에 니에토 대통령은 개혁 추진을 위한 정치적 지렛대를 회복하는 동시에 에너지개혁의 전제조건이던 정치개혁을 비롯한 후속 법률의 제·개정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에너지개혁의 후속 조치는 2014년 4월 30일 의회에 2차 법안(이행법)이 상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개혁의 기본틀과 계약형태를 규정한 에너지개혁법안(헌법 수정안)과는 달리 2차 법안은 개혁 추진 방안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률 개정안(12개)과 신규 제정 법안(9개) 등 21개 법안⁷⁹⁾으로 구성된 2차 법안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3-7]과 같다.⁸⁰⁾

78) 에너지개혁 헌법수정 시행령은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os artículos 25, 27 y 28(Reforma energética)이다.

79) 탄화수소관련법(*Ley de Hidrocarburos*), *Ley de Inversión Extranjera*, *Ley Minería*,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전력관련법(*Ley de Industria Eléctrica*), 지열관련법(*Ley de Energía Geotérmica*), *Ley de Aguas Nacionales*), 탄화수소관련 산업안전 및 환경보호법(*Ley de la Agencia Nacional de Seguridad Industrial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del Sector Hidrocarburos*), 국가생산기업법(*Ley de Petróleos Mexicanos*), *Ley de la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Ley Federal de las Entidades Parestatales*, *Ley de Adquisiciones, Arrendamientos y Servicios del Sector Público*, *Ley de Obras Públicas y Servicios Relacionados con las Mismas*), 규제 및 연방공공행정특별법(*Ley de los Órganos Reguladores Coordinados en Materia Energética*, *Ley Orgánica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Federal*), 세법(*Ley de Ingresos sobre Hidrocarburos*), *Ley Federal de Derechos*, *Ley de Coordinación Fiscal*), 석유안정화 및 개발기금법(*Ley del Fondo Mexicano del Petróleo para la Estabilización y el Desarrollo*), 국가예산관련법(*Ley Federal de Presupuesto y Responsabilidad Hacendaria*, *Ley General de Deuda Pública*)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텔릭체는 신규 제정 법률).

80) Christian Gómez, Jr.(2014. 4. 30), “Get the Facts: Secondary Laws for Energy Reform

그림 3-7. 에너지개혁 2차 법안(이행법)의 주요 내용

□ 공통

- 탄화수소(석유·가스) 자원의 국가 소유권 유지. 탐사, 채굴, 방사는 광물, 핵발전, 국가전력체제의 기획 및 통제, 전력 송전 및 배전 관련 공공서비스는 독점적이면서 전략적인 국가 활동으로 설정.
- 에너지자원(석유·가스, 전력) 개발, 생산, 가공, 물류와 발전에 있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자유 공개경쟁 및 입찰을 보장. 단, 기술권 판매는 제외.
- 민간 부문과의 모든 계약은 공공입찰을 통해 결정되고, 모든 입찰절차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 및 유포됨. 주요 법안들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감독, 환경보호, 청정에너지 촉진을 강화하는 데 주력
- 국산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ule) 시행: 신규 프로젝트 부품의 25%에 대해 국내 조달을 의무화. 이 규정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발효되는데, Pemex의 경우에는 국경간 프로젝트에서 최소 20%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석유·가스

- 석유기금 설립: GDP 대비 3%까지 축적될 경우 정부의 인출 가능
- 재무부에 의한 Pemex 및 CFE 예산, 금융조달 관리 관행이 중지되고, Pemex 노조의 경영 참여가 금지되어 자율성이 더욱 강화
- Pemex의 재정기여 부담이 축소(자산가액이 아닌 이익의 80%에서 65%로 축소)되고, Pemex는 채무한도를 감안하여 연간 예산을 결정

□ 전력

- 발전 및 전력 매매 활동에 자유경쟁 도입, 민간투자 허용
- CFE를 공공 전력송전 및 배전서비스를 담당하는 국가생산기업(State Productive Entity)으로 전환. CFE와 민간 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간 기업은 멕시코의 송전 및 배전 네트워크의 확장 및 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경험을 제공
- 전력산업법은 기존 설비를 기준으로 '생산자'와 'exempt 생산자'로, 전력 소비를 기준으로 'Basic User'와 'Qualified User'로 구분
- 공급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규제위원회(CRE)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CRE가 승인한 형식을 활용하여 최종 사용자와 공급협정을 체결해야 함.
- 국가에너지체제를 관장할 연방 독립기구로 국가에너지통제센터(CENACE) 설립. 모든 시장 참여자의 국가의 송전 및 배전 네트워크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
- CENACE가 운영하는 전력도매시장 설립
- 법률을 통해 전력산업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및 점유 보장
- 청정에너지증명 취득 의무 확립
- CRE의 기능: △허가 △송전, 배전, CENACE의 업무와 관련한 회계기준 구축 △송전 및 배전, 기초서비스 공급, CENACE 업무, 전력도매시장 이외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금 계산 및 조정 방법 발표
- 지열에너지법: 전력 및 기타 목적으로 멕시코에서 이루어지는 지열자원 탐사 및 개발을 규제. 민간 부문은 에너지부가 부여하는 양허를 통해 30년간 독점개발권 취득 가능.

자료: 이행법안들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Presented to Mexico's Senate,” www.as-coa.org/blogs/get-facts-secondary-laws-energy-reform-presented-mexicos-senate. (accessed on May 8, 2014)

한편 멕시코의 에너지개혁은 이행법 패키지가 공포된 2014년 8월 11일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따라서 에너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표 3-1]에 서술한 바와 같이 21개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제기한 10대 정책이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최근까지 멕시코는 개혁의 조기 정착에 노력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14년 8월 13일 멕시코 에너지부는 ‘Ronda Cero’⁸¹⁾를 시행한 데 이어 이어 ‘Ronda Uno’⁸²⁾의 일정을 발표했다. 헌법 제27조의 석유 관련 규정 시행령(Ley Reglamentaria del Artículo 27 en materia del petróleo)을 대체하여 제정된 탄화수소법(Ley de Hidrocarburos)은 국토의 지하 및 심해에 부존된 석유의 탐사 및 개발 모델로 할당(asignaciones)과 계약(contratos)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Ronda Cero’에 해당하는 할당은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Pemex와 기타 국가생산기업에

81) ‘Ronda Cero’는 행정부가 탄화수소 개발지역을 Pemex에 할당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우선 절차는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역(혹은 광구)을 선택하고 민간 기업을 비롯한 다른 기업에 개발을 맡길 지역을 결정하는 기회를 Pemex에 제공하는 것이다. ‘Ronda Cero’ 절차는 2014년 3월 14일 Pemex 이사회가 에너지부(SENER)에 탐사지역과 생산광구 할당을 요청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Pemex는 확인(proved) 및 추정(probable) 매장량의 83%와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의 31%를 요청했는데, 확인 및 추정 매장량의 경우 262억 배럴에 해당했다 ; La Jornada(2014. 5. 21), “Comienza la entrega de México Pemex-Ronda Cero,” <http://www.jornada.unam.mx/2014/05/21/politica/016a1pol>. (accessed Sep 11, 2014). 한편 에너지부는 8월 13일 Pemex의 요청을 전격 수용하여 확인 및 추정 석유매장량(2P)의 83%를 Pemex에 배정했다. 그러나 Pemex가 배정받은 탐사자원량은 요청분(31%)의 68%에 해당하는 21%에 불과하다. 즉, ‘Ronda Cero’ 이전까지 Pemex가 탐사 및 조사해온 탐사자원량(1,148억 배럴) 가운데 20%만 배정되어 향후 더 많은 광구가 민간 부문에 개방될 전망이다 ; Reuters(2014. 8. 13), “Mexico hopes to lure \$50.5B in historical oil tender,” http://www.rigzone.com/news/article.asp?hpf=1&a_id=134522. (accessed Sep 11, 2014)

82) ‘Ronda Uno’는 에너지개혁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준비가 완비된 직후 석유의 탐사 및 생산 기회를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 부여하는 투자로드쇼에 해당한다. 계약 형태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표 3-1. 에너지개혁 조기 이행에 필요한 10대 정책

이슈	주요 내용
1. Ronda Cero	- Pemex에 기존 생산광구 및 탐사 및 채굴 광구를 할당 - 에너지부, 2014. 8. 13, Ronda Cero 결과 발표
2. Ronda Uno	- 탄화수소 탐사 및 채굴권, 민간 부문에 공개입찰로 부여 - 2014. 8. 13, 향후 일정(2015년 5~9월 실시) 발표 - 민간기업과의 계약은 국가탄화수소위원회(CNH)가 부여
3. 국가에너지통제센터(CENACE), 국가천연가스통제센터(CENAGAS) 출범	- 2014. 8. 28, 6개월 이내(CENACE) 및 1년 이내(CENAGAS) 출범 발표 - 기관장 임명: CENACE(Eduardo Meraz Ateca), CENAGAS(David Madero Suárez)
4. 신임 관료 임명	- 에너지 관련 5개 기관의 17명 관료 임명 - 대통령, 공석인 CHN 및 CRE 위원 각 4인(후보) 명단을 상원에 제출(이행법 발효 6개월 이내) - 대통령, Pemex 및 CFE 경영위원 5인 후보명단 상원 제출(이행법 발효 90일 이내) - 대통령, 멕시코석유기금(FMP) 기술위원회 위원 4인 후보명단 상원 제출(이행법 발효 90일 이내)
5. 석유기금	- 2014년 9월 중 설립 예정(이행법 발효 90일 이내) - 중앙은행에 신탁
6. 전문가 양성	- 탄화수소 관련 인적자원 양성 전략프로그램 발표(2014년 9월 예정) - 학생 및 박사 후 과정에 장학금 및 기타 인센티브 제공
7. 시행령 조정	- 대통령, 연방 독립기관들에 2014년 10월까지 이행법과 연계된 시행령 준비를 명령 - 이행법별로 조정 기한은 다르게 설정(탄화수소법, 180일 이내)
8. 석유연구원 (IMP) 구조조정	- Pemex로의 기관 이전 - 이행법, 12개월 이내 실시(대통령, 9월 중 실시 발표)
9. 청정에너지	- 청정에너지증명 기본방침 구축(대통령, 2014년 10월 예정) -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비오염 에너지 개발 촉진
10. 신규 기관 설립	- 탄화수소 부문 국가산업안전 및 환경보호청(Agencia Nacional de Seguridad Industrial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del Sector Hidrocarburos) 신설 - 이행법은 180일 이내 설립(정부, 90일 이내 설립 발표)

자료: CNN(2014. 8. 12), "10 pasos para 'aterrizar' la ley energética (y cómo Peña Nieto busca apurarlos)," <http://mexico.cnn.com/nacional/2014/08/12/10-pasos-para-aterrizar-la-ley-energetica-y-como-pena-busca-apurarlos>, (accessed Sep 13, 2014)

국가탄화수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에너지부(SENER)를 통해 국가가 직접 광구를 배분하는 모델이고, 'Ronda Uno'에 따른 계약은 국가탄화수소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 및 탐사가 필요한 특정 광구를

표 3-2. 'Ronda Cero' 시행에 따른 Pemex의 탄화수소 매장량

매장량 유형	매장량(백만 배럴)	부여/요청(%)	면적(km ²)	가채연수
확인 및 추정	20,589	100	17,101	15.5
탐사자원량	22,126	67	72,897	5.0
전통	18,222	70.9	64,489	
비전통	3,904	51.6	8,408	

자료: Gobierno de la República Mexicana(2014a), "Reforma Energética: Avances," <http://reformas.gob.mx/reforma-energetica/avances>, (accessed Sep 14, 2014)

민간에 배분하는 모델이다.

둘째, 전력 및 천연가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연방전력청(CFE)과 Pemex를 대신할 신규 규제기관인 국가에너지통제센터(CENACE)와 국가천연가스통제센터(CENAGAS)의 설립 일정이 발표되었다.⁸³⁾

마지막으로 주요 기관, 석유기금, Pemex 및 CFE 이사회의 이사 지명이 개시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부를 통해 2014년 9월 3일 석유기금, Pemex, CFE의 신임 관료 후보를, 2014년 9월 4~9일에는 CHN과 CRE의 신임 관료 후보를 각각 상원에 제출했다.⁸⁴⁾ 각 기관별 신임 이사진 승인 건은 9월 11일 멕시코 상원 에너지위원회를 통과하여 9월 17일

83) 멕시코 연방정부는 2014년 8월 28일 새로운 에너지 관련 규제기관 설립 시행령 발표를 계기로 향후 6개월 및 1년 이내에 CENACE와 CENAGAS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양 기관장을 임명했다. ; América Economía(2014. 8. 31), "México: aprietan el paso de la reforma energética con la creación de Cenace y Cenagas," <http://www.americaeconomia.com/negocios-industrias/mexico-aprietan-el-paso-de-la-reforma-energetica-con-la-creacion-de-cenace-y-cen>. (accessed Sep 13, 2014)

84) 이 가운데 차별적인 점은 CHN 신임 관료는 2개 후보군으로, CRE는 3개 후보군으로 제출된다는 점이다. El Financiero(2014b. 9. 3), "Telléz y Reyes Heróles son propuestos para el Fondo Mexicano del Petróleo," <http://www.elfinanciero.com.mx/economia/tellez-y-reyes-heroles-son-propuestos-para-el-fondo-mexicano-del-petroleo.html>. (accessed Sep 13, 2014)

로 예정된 상원 전체회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이다.⁸⁵⁾

4) 평가 및 전망

에너지개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은 유지되고, 탐사, 채굴, 방사능 광물, 핵발전, 국가전력체제의 기획 및 통제, 전력 송전 및 배전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독점적이면서 전략적인 국가의 활동도 규정되었다. 그러나 에너지개혁의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국유화 이후 75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와 가스의 탐사 및 채굴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개방으로 유발될 생산 증대와 심해유전 및 셰일가스 개발 촉진으로 연간 GDP가 중장기적으로 1~2.5%포인트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산업 개방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⁸⁶⁾ 민간 부문의 투자 증가 전망은 멕시코만에서 개발 가능

85) El Financiero(2014a. 9. 11), “Comisión de Energía avala a consejeros independientes de Pemex, CFE y Fondo del Petróleo,” www.elfinanciero.com.mx/politica/comision-de-energia-avala-a-consejeros-independientes-de-pemex-cfe-y-fondo-del-petroleo.html (accessed Sep 13, 2014) ; (2014c. 9. 11), “Comisión del Senado elige a comisionados de CRE,” www.elfinanciero.com.mx/economia/comision-del-senado-elige-a-comisionados-de-cre.html (accessed Sep 13, 2014) ; (2014b. 9. 11), “Comisión de Energía del Senado elige a comisionados de CNH,” www.elfinanciero.com.mx/economia/comision-de-energia-del-senado-elige-a-comisionados-de-cnh.html. (accessed Sep 13, 2014)

86) 에너지개혁 이행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민간 기업들은 투자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는 이행법 가운데 8개가 민간 부문과 Pemex 간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률이고, 최근 불거진 Oceanografía의 금융사기사건으로 인해 이행법 시행 이전에 기업들의 투자자금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Oceanografía는 Pemex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Pemex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작하여 시티은행 멕시코 자회사인 Banamex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멕시코 최대 석유화학 기업이면서 Pemex와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한 Alfa가 민간에 개방될 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금 및 부채상환자금으로 2014년 3월 10억 달러(5.25% 10년 만기 5억 달러, 6.875% 30

한 매장량이 290억 배럴로 추정되지만, 현재 기준으로 개발 주체인 Pemex가 이를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해유전 개발이 진행된다면 멕시코 석유산업은 매장량 기준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데, 재투자가 필요한 기존의 연안 및 육상유전과 심해유전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2014년 8월에 시행된 ‘Ronda Cero’와 2015년에 실시될 ‘Ronda Uno’는 석유자원과 관련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주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먼저 ‘Ronda Cero’를 통해 Pemex가 할당받은 총자산(면적 9만km², 확인 및 추정매장량 206억 배럴)은 현재의 속도로 볼 때 15년 이상 채굴과 5년 이상의 탐사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Pemex가 중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Pemex는 2014년 11월부터 13개월 동안 국내외 개발업체들과 10회에 걸친 전략적 동맹(계약)을 통해 할당받은 자산 가운데 일부(4개 패키지로 구성)를 개발(탐사 및 채굴)할 계획⁸⁷⁾인데, 계약이 성

년 만기 5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March 21 2014c), “Mexico energy reform drives corporate bond issues,”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ES189786>. (accessed June 13, 2014)

- 87) Pemex에 따르면 첫 번째 패키지는 2015년 4월 이전에 실시될 11개 광구 계약과 2015년 2~8월 실시될 치콘테펙 및 부르고스 광구의 11개 계약(확인 추정매장량 16억 배럴)이다. 두 번째 패키지는 API 비중이 11 정도인 3개의 초중질류 광구(Ayatsil, Tekel, Utsil)로 Pemex에는 기술적 도전 프로젝트로 간주된다. 세 번째 패키지는 2개의 대규모 심해 가스전(확인 및 추정 매장량 기준 2억 1,200만 배럴)으로 향후 10년간 68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Pemex는 Perdido 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2곳의 심해광구(Trión, Exploratus)를 대상으로 2개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BNamericas(2014. 8. 14), “Ronda Cero fija bases para expansión de Pemex,” <http://www.bnamericas.com/news/petroleoygas/ronda-cero-fija-bases-para-expansion-de-pemex>. (accessed Sep 13, 2014)

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5~10년 동안 약 3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전망이다. 또한 2015년에 예정된 ‘Ronda Uno’도 향후 4년간 연평균 85억 달러의 투자를 국내외 민간 부문에서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⁸⁸⁾

한편 대외개방과 세제 변화⁸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산업과 재정에서 차지하는 Pemex의 중요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행법 발효 직후 Pemex는 ‘Ronda Cero’를 통해 독점 부문과 투자개방 부문을 결정하면서 자산

88) 2015년 5~9월 중에 공개입찰이 실시될 ‘Ronda Uno’에는 탐사 및 채굴을 목적으로 면적 2만 8,500km²에 산재한 169개의 육상 및 해상 광구(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50%인 확인 및 추정 매장량 37억 2,800만 배럴+탐사자원량 기준 146억 600만 배럴)가 포함될 예정이다. 개발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후속 입찰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될 심해지역 광구를 비롯하여 이들 광구는 대부분 조기 생산이 가능하면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2월부터 입찰 절차가 개시될 광구 가운데 109개는 탐사단계에, 60개는 생산 직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l Economista(2014. 8. 14), “Ronda Uno traerá US\$5,500 millones en inversiones,” <http://eleconomista.com.mx/industrias/2014/08/14/ronda-traera-us8500-millones-inversiones>. (accessed Sep 13, 2014)

89) 이행법으로 인해 석유 관련 로열티는 유연해지고, Pemex에 부과되는 각종 세제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로열티: 유전 형태, 생산량, 석유 및 가스 가격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는 연동제(sliding-scale)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셰일가스 생산의 경우 로열티가 할인되고, 생산량과 가격이 상승할 경우 로열티 세율은 증가할 수 있다. 정확한 로열티 금액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고, 멕시코석유기금에 납부되어 관리된다. △법인소득세: Pemex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에게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재무부가 관리한다. △Pemex의 재정 부담: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조세체계가 소득세+10개 부가세에서 소득세+3개 부가세로 단순화되어 할당 사업과 Pemex와의 계약 사업 모두에 적용된다. 이익분배세율은 석유현물가격의 71.5%에서 65%로 인하되고, 탄화수소 채굴세는 km²당 월 450달러로 특정되어 있지만 탄화수소 국제가격에 따라 연동되며, 토지임차세에 해당하는 탐사세는 특정된 일정 이내에 탐사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km²당 110달러로 인하였다. △비용 환급: 비용 환급 한도는 생산된 원유의 배럴당 6.5달러이지만 광구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즉 육상과 천해유전에는 수익의 12.5%, 지질학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심해유전과 치콘테펙 광구에는 60%, 가스화 콘덴세이트에는 80%의 한도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환급제도 변화로 인해 Pemex에 허용되는 환급 규모는 증가하고, 세금과 로열티로 매년 납부하는 금액은 이전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2015년부터 5년간 매년 Pemex의 세금부담액은 2012년 52억 달러에서 약 19억 달러로 줄어든 전망이다 ; Diana Villiers Negroponte (2014. 8. 14), “Mexico's Energy Reforms Become Law,” *Brookings*, <http://www.brookings.edu/research/articles/2014/08/14-mexico-energy-law-negroponte>. (accessed Sep 14, 2014)

건전성을 개선하였고, 개방한 자원개발 분야를 국가탄화수소위원회와 ‘Ronda Uno’라는 공개입찰로 공동 관리하기에 높은 위상마저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Pemex의 자율성도 노조 대표(5인)의 이사회 참여가 법적으로 배제되고 예산 및 자금조달 결정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금부담 감소는 Pemex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신규 장비 구입, 신규 유전 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석유메이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산업 개혁의 의의, 중요성, Pemex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멕시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영향일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산업 개혁으로 △전 국민의 사회 및 경제적 개발 촉진⁹⁰⁾ △에너지 부문 투명성 증대⁹¹⁾ △환경, 국민, 근로자 보호⁹²⁾ △국가 에너지산업 및 주권 보호⁹³⁾ △에너지산업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⁹⁴⁾ △경

90) 전기요금 인하, 천연가스 요금 인하, 천연가스 이용성 증대에 따른 비료, 식품 등 관련 제품 비용 절감, 석유 탐사 및 채굴·발전·송전·배전, 탄화수소 가공 및 보급 등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른 공식 부문 일자리 추가 창출(2018년 말까지 50만 개, 2025년까지 250만 개), 석유 국부 증가 등을 포함한다.

91) 에너지 요금, 탄화수소 및 전력 관련 각종 공공계약, 입찰과정, 석유안정개발기금 관리 등을 포함한다.

92) 환경자원부(SEMARNAT) 독립기관으로서 ‘탄화수소 관련 국가산업안전 및 환경보호청’ 신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활용 증진, 에너지 효율화 및 신규 광구 개발을 위한 고급 기술 활용,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개발 등을 포함한다.

93) 국가의 지하자원 소유권 유지, 국가생산기업으로서 공기업(Pemex, CFE)의 유지, 에너지시장 신규 참여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위한 Pemex 강화 및 현대화(Ronda Cero), CFE의 지열자원 우선 활용을 위한 Ronda Cero 시행,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국산화 비율 적용(2015년 25% → 2025년 35%), 외국기업과 유사한 가격, 품질, 인도기간 조건일 경우 내국인 기업에 특혜 부여, ‘에너지산업 국내 납품업자 및 하도급자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 신탁’ 설립 등을 포함한다.

94) 석유수익금 일부를 연구개발 및 멕시코석유연구원 강화에 활용, Pemex 및 CFE를 국가

제성장 및 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 및 개발 촉진 효과로는 일자리 창출(2018년 말까지 50만 개, 2025년까지 250만 개), 경제성장률 향상(2018년까지 GDP 1% 포인트, 2025년까지 2% 포인트 추가 성장), 석유·천연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수익 증가분의 사회정책 투입(GDP대비 4.7% 세출예산 유지), 신규 가스관 건설(2018년까지 1만 km 신규 가스관 건설, 1,700억 페소 투자)을 통한 가스가격 안정화, 전력요금 인하, 산업 촉진 달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⁹⁵⁾

에너지개혁에 대한 대외적 평가도 긍정적이다. 월슨센터(Woodrow Wilson Center)는 멕시코의 석유산업 개방이 지난 100년간에 걸친 경제정책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고,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했다.⁹⁶⁾ 그 이유로는 에너지산업 개혁이 니에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개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는 경제위기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멕시코 협약’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개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기대로 전환된 결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의 경우에는 텍사스주에 소재한 Eagle Ford 셰일가스전 개발사례와 비교하면서 멕

생산기업으로 전환, 석유생산 증대(현재 250만bpd → 2018년 300만bpd → 2025년 350만bpd), 천연가스 공급 확대(현재 일일 57억ft³ → 2018년 80억ft³ → 2025년 104억ft³), 가솔린 및 디젤유 가격 인상(2015~17년 물가 연동, 2018년부터 자유화, 연료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Pemex 상품 외 제품 소매판매 허용), 가격경쟁력과 품질을 겸비한 에너지 보유를 위한 투자 확대(국가인프라프로그램 2014~18, 에너지 분야 39억 페소 투자) 등을 포함한다.

95) Gobierno de la República Mexicana(2013), “Reforma Energética: Beneficios,” <http://reformas.gob.mx/reforma-energetica/beneficios>. (accessed Sep 14, 2014)

96) Diana Villiers Negroponte(2013. 12. 23), “Mexican Energy Reform: Opportunities for Historic Change,” Brookings, www.brookings.edu/research/opinions/2013/12/23-mexican-energy-reform-opportunities-historic-change-negroponte. (accessed May 8, 2014)

시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규제완화가 유전 투자,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주택건축, 레스토랑, 호텔 등 주변 산업에 미칠 직간접 투자 효과를 1조 달러로 예측했다.⁹⁷⁾

나. 방송통신산업 개혁

1) 배경

방송통신산업은 심각한 독과점의 폐해로 인해 멕시코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들로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방송통신 부문 개혁법안을 마련하면서 서비스 제공 범위의 지리적 한계, 낮은 서비스 품질, 높은 서비스요금, 국민의 표현의 자유 행사 및 정보 권리 제한 등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독과점의 폐해로 제시했다.

OECD(2012)⁹⁸⁾에 따르면 1990년대 민영화 이후 통신시장은 América Móvil이 휴대전화시장의 70%와 유선전화시장의 80%를 장악하는 사실상의 독점체제를, 지상파 방송시장은 Televisa(70%)와 TV Azteca(30%)가 양분한 과점체제를 유지했다. 또한 멕시코 경제는 독과점 상태인 통신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연간 GDP 대비 1.8%인 250억 달러(2005~09년 1,292억 달러) 이상의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통신서비스 사용자들

97) Mark Yost(2014. 2. 7), "Mexico to see \$10B per year in oil revenues from industry reforms," <http://www.bizjournals.com/houston/news/2014/02/07/mexico-to-see-10b-per-year-in-oil-revenues-from.html?page=all>. (accessed June 12, 2014)

98) OECD(2012b), p. 11.

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소득국가 국민이면서도 가장 비싼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고비용 이외에도 통신산업은 설비투자 부족과 저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OECD는 통신산업 경쟁도입 방안으로 유선통신시장의 FDI 전면 허용, 규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규제당국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분쟁 해결 및 집행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⁹⁹⁾

그러나 [그림 3-8]에 나타나듯이 OECD 권고 수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부문 1인당 투자는 OECD 회원국보다 낮고, 2012년 9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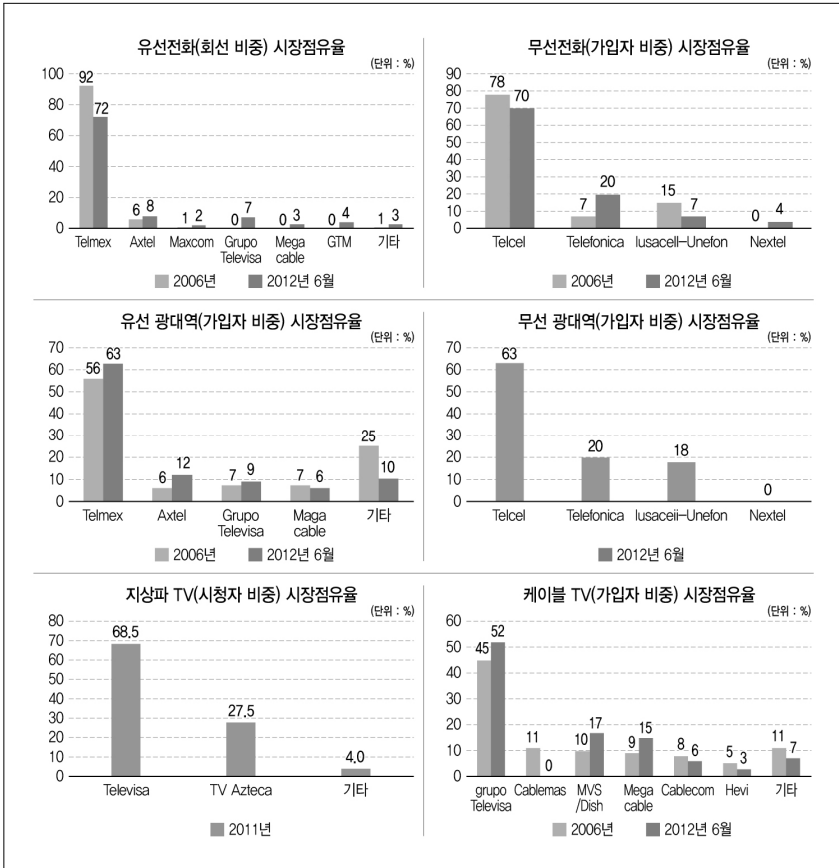
그림 3-8. 교통통신부(SCT)의 2012년 주요 통신정책

- 통신 부문 10대 조치(2012. 1. 31)
 - 통신장비(마스터, 타워, 안테나 등) 설치를 위한 연방정부 시설(6,000개 건물) 이용
 - 전국 주요 도로망에 광섬유망 설치
 - 연방전력청(CFE) 보유의 광섬유망 추가 매각
 - 주파수 재배치 계획(National Spectrum Plan): 1.7~3.5GHz 공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파수 사용 재조정, 주파수(71~76GHz, 81~86GHz) 무료 사용 발표
 - FDI 분야(유선통신 49% 제한)의 경쟁, 법적 확실성, 투자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 SCT와 연방통신위원회(COFETEL) 간의 규제 조화
 - 학교, 병원, 정부 건물 등 시설 7만 곳에 대한 광대역통신망 보급 확대, 2012년 말까지 텔레센터(telecentres)를 6,788곳에서 2만 4,000곳으로 확대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비영리 농촌 통신망 촉진
 - 인터넷교환소(IXP) 설치
 - 디지털정책(ADN: Agenda Digital Mexicana, 2011. 4. 11 발표) 강화
- 통신장비 설치 가능한 연방정부 시설(6,400개 건물) 발표(2012. 3. 28)
- Agenda Digital de México 채택(2012. 3. 28)
 - ADN하에서 2015년까지 사회적 포용 촉진, 거래비용 감축, 신규 경제활동 및 고용 기회 창출을 목표로 통신 및 ICT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연방정부 목표 및 전략 제시(www.agendadigital.mx)
- 연방규제개선위원회(Cofemer)에 양허 관련 행정 간소화 제안서 제출(2012. 9)
 - 통신면허 획득에 필요한 행정서류 감소 효과
- doble ventanilla 제거 조치
 - Cofetel과 SCT에서 이중으로 적용되는 규제절차를 폐지
 - Cofetel의 사업자 직접 제제 허용을 통한 반경쟁 행위 억제 및 서비스 개선

자료: OECD(2012a), Getting It Right: Una agenda estratégica para las reformas en México, OECD Publishing, pp. 189-19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99) Ibid., pp. 9-11.

그림 3-9. 방송통신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 OECD(2012), Getting It Right: Una agenda estratégica para las reformas en México, OECD Publishing, pp. 189-19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준으로 브로드밴드 사용자가 지불하는 요금과 유선 및 무선 통신서비스 요금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¹⁰⁰⁾ 또한 [그림 3-9]에서 보듯이 2012년 6월 기준으로 방송통신시장의 독과점도 개선되지 않았

100) OECD(2012a), Getting It Right: Una Agenda Estratégica para las Reformas en México, OECD Publishing, p. 184.

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에서 멕시코 정부는 OECD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 협약’에 포함된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촉진에 매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2) 주요 내용

헌법 개정을 위해 마련된 방송통신개혁법안¹⁰¹⁾의 목표는 방송(TV와 라디오)과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개선 및 통신비 인하를 통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광대역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방송통신 서비스 및 ICT에 대한 접근 권리를 구축한다. 둘째, 지상파 및 케이블 TV, 라디오, 유무선 전화, 데이터 및 일반통신서비스 부문들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경쟁촉진조치들을 채택한다. 셋째, 방송통신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사업자에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요금 인하와 품질 향상을 달성한다.

이와 같은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송통신개혁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멕시코 협약’에 포함된 실천과제(37~45번)를 대부분 반영했다.¹⁰²⁾ 첫째, 헌법에 규정(6조)된 기본권

101) 원어는 Iniciativa de Reformas a la Constitución en materia de Telecomunicaciones y Competencia Económica로 헌법 제6조, 7조, 27조, 28조, 73조, 78조, 94조, 105조를 수정하는 법률안이다.

102) 연방경쟁위원회(CFC) 강화(37번), 경쟁재판소 설치(38번), 광대역 통신망 접근권 및 규제기구 결정 효과성 제고(39번), 연방통신위원회(Cofetel) 자율권 강화(40번), 국가간통신망 개발(41번), 공공기관 광대역 통신망 접근 확대(42번), 라디오 및 TV 경쟁 촉진(43번), 전화 및 데이터 서비스 경쟁 촉진(44번), TV, 라디오, 전화, 데이터 서비스 경쟁 촉진 수단 채택(45번); Pactopormexico(2012b), “Pacto por Mexico,” pp.

표 3-3. 멕시코 방송통신개혁법안(헌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방송	통신
- 공영방송 채널 2개 이상 신설	- 유무선 통신 부문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유지
-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간 협력 (Must offer and Must carry)	- '전국에 무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외국인 투자 49%까지 허용	- 외국인 투자 100%까지 허용
공 통	
- 단일(통신 및 방송) 면허 체제(단일 법률 필요)	
- 통신특별법정 설치	
- 새로운 방송통신 자율규제기구인 Ifetel(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설립	
- 컨세션 협정 체결 시 대통령의 의견 제시 금지	
자료: 방송통신 부문 헌법 수정안(Iniciativa de Reformas a la Constitución en materia de Telecomunicaciones y Competencia Económica)을 기초로 저자 정리.	

인 이용자의 정보접근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 둘째, 통신 분야 법규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방송통신 사업자의 법적 의무이행을 강화하고, 독점기업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시행하며, 서비스 및 통신망에 대한 단일 법규 및 감독기관 사전 고시 규정을 명시했다. 셋째, 방송통신 규제와 관련한 헌법독립기관으로 연방방송통신청(Ifetel: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ón)과 시장경쟁위원회(CFCE: Comité Federal de Competencia Económica)를 신설하기로 했다. Ifetel은 방송통신 관련 법규 및 인·허가권을 관장하고, 방송통신 산업 진흥 및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등 기존의 연방통신위원회(Cofetel)로부터 기능을 이양받는다. 반면 CFCE는 경쟁촉진 기관으로서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제한하는 독과점을 예방하거나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0-12, <http://pactopormexico.org/PACTO-POR-MEXICO-25.pdf>. (accessed June 20, 2014)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및 위성통신산업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를 100% 개방하고, 방송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섯째, 의회의 통신, 정보통신기술, 방송, 광대역 통신망,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통신 등에 관련되는 법안 제정권한을 확인하고,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이용을 위한 인프라, 접근성, 연결성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 책임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광섬유에 기초한 광대역 국가기간통신망과 700MHz 대역의 대규모 무선통신 접근 공유망 설치 등 방송통신 인프라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3) 후속 조치 현황

‘멕시코 협약’에 기초해 작성된 방송통신 부문 헌법 수정안은 2013년 3월 12일 의회에 상정되었고, 의회 통과 이후 헌법 개정요건인 지방정부 의회 인준을 확보(5월 22일)했으며, 6월 11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행정부령¹⁰³⁾으로 공포되었다. 이행법(2차 법안)의 의회 상정은 헌법 수정안 발효 직후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지만 개혁 수위에 대한 정부, 정치권, 이해집단 간의 이견으로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규제기관으로 새로 설립(2013년 9월)된 Ifetel이 2014년 3월에 2개의 신규 TV 채널 공개입찰 실시를 공고¹⁰⁴⁾함으로써 최소한 입찰 기일 2~3개월 전에

103) 원어는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os artículos 6o., 7o., 27, 28, 73, 78, 94 y 105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n materia de telecomunicaciones이다.

104) Ifetel은 2014년 3월 6일 2개의 신규 TV 채널 공개입찰을 승인했지만 Televisa와 TV Azteca를 제외한 입찰참여자격을 지닌 기업을 2014년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TV방송 사업권 매각은 방송산업의 경쟁구도 촉진이라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매각 대금으로 정부의 재정수입을 단기에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행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Ifetel을 설립(2013년 9월 10일)한 데 이어 이행법안¹⁰⁵⁾을 의회에 상정(2014년 3월)하였고, Ifetel은 산업구조조정 기본단계로 Televisa¹⁰⁶⁾와 América Móvil¹⁰⁷⁾을 각각 TV방송 및 전화서비스의 시장

한편 Ifetel은 4월 15일 2개 TV 채널 입찰 최저가격을 8억 3,000만 페소(6,300만 달러)로 책정했다 ;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March 27, 2014a), “Telecoms liberalisation will boost growth in Mexico,”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DB189869&StoryDate=20140327> (accessed May 29, 2014); Fox news latino(April 16, 2014), “Mexico sets minimum bid price for new TV networks,” <http://latino.foxnews.com/latino/news/2014/04/16/mexico-sets-minimum-bid-price-for-new-tv-networks/>. (accessed Sep 11, 2014)

105) 신규로 제정되는 연방방송통신법 및 공공 방송시스템법과 외국인투자법, 저작권법, 연방공공행정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되었다.

106) Televisa는 시장지배자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첫째, 최대 경쟁사인 TV Azteca를 포함한 모든 TV방송 사업자와 송전탑과 같은 인프라를 Ifetel이 결정하는 비용에 비차별적으로 공유하고,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공유할 인프라의 세부 목록을 Ifetel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올림픽게임, 월드컵 축구, 멕시코의 주요 축구게임 등 대규모 시청자들을 유인하는 이벤트의 독점적 송출권 입찰이 금지된다. 셋째, 광고 방송 시간 판매 시 차별할 수 없고, 광고료를 2014년 4월 초까지 공개해야 한다 ; *Ibid.*.

107) América Móvil은 전화시장에서 2개 주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Telmex는 유선 전화시장의 80%를, Telcel은 무선통신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América Móvil을 시장지배자로 판정한 결의안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영향이 멕시코 최대 부호인 슬림(Carlos Slim)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Inbursa)과 대기업(Carso 그룹)에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즉 슬림은 Ifetel이 계획 중인 신규 TV채널 공개입찰 참여를 통해 TV방송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인데, Televisa와 TV Azteca는 슬림의 시장진입을 반대하지만 Ifetel은 저지할 명분이 없다. 실제로 TV 방송서비스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Telmex는 현재 슬림의 결제 및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TV 사업자인 Dish Mexico의 지배 지분 인수를 준비 중이고, Televisa와 TV Azteca는 Telmex와 Dish Mexico의 관계가 명백한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TV 방송서비스 제공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Telmex의 사업권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Ifetel은 슬림의 TV방송 서비스시장 진입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즉 Ifetel은 Telmex에 경쟁업체가 공정한 조건으로 유선전화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Telcel에는 경쟁업체가 지불해야 할 접속료와 로밍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도록 요청 중이다. 특히 무선통신요금의 인하 수혜자가 소비자가 아니라 슬림의 진입을 반대하는 Televisa와 스페인 통신사이며 중남미시장에서 América Móvil의 경쟁업체인

표 3-4. 멕시코 방송통신 부문 후속 조치(이행법)의 주요 내용

부문	주요 내용
Ifetel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부문 규제, 인가 및 제재 권한: 특히 시장점유율 50% 이상 기업을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독점완화를 위한 규제 시행 및 감독 - 시청각 콘텐츠 감독 - 단,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분류 및 제재는 내무부 권한
인터넷, 보안, 연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업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약, 제한, 차별 없이 모든 콘텐츠, 앱, 서비스 제공을 보장 • 콘텐츠의 독립성, 사용량, 속도, 서비스의 품질 보장 -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인터넷 연결: 가구 최소 70%, 중소기업 85% 확대 • 공공 건물 및 장소(현재 3만 7,000곳→25만여 곳) 무료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
TV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파 업체: 전체 국토 50% 이상 수신 가능한 신호 무료 제공 - 공중파 채널 3개 신설(2개 상업방송, 1개 공영방송) -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로 전환(2015년 12월 31일) - 공중파 방송에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통신(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 요금 절약(연 200억 페소): 로밍 및 장거리 요금 폐지(2015년) - 통신사업자 단말기 판매 독점권 폐지: 단말기 판매 시 설정을 통한 통신사 변경 제한을 해제 - Ifetel을 통한 통신사업자 허위광고 및 광고 불이행 제재 강화(총매출액 기준 벌금 부과 방침) - 충전식 요금 유효기간 연장(2~12개월) 및 충전금액 확인 비용 면제 -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América Móvil의 자회사(Telcel) 및 기타 통신사업자에 상호연결망 사용료 균등 부과 및 인하 유도: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목표

자료: 개혁법안(Iniciativa de Reformas a la Constitución en materia de Telecomunicaciones y Competencia Económica)을 기초로 저자 정리.

지배자로 규정한 결의안을 발표(2014년 3월 7일)했다. Ifetel의 결의안은 개혁절차로서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는 방송통신 기업을 시장지배(독점)기업으로 분류한 헌법 수정안에 따라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elevisa와 América Móvil은 지배사업자 판정 및 신규 규제조치에 대해 법적¹⁰⁸⁾ 대응으로 개혁에 저항한 반면 정부는 대(對)의회 설득작업

Telefónica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Televisa는 멕시코 3위의 무선통신업체인 Isuacell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고, Telefónica는 멕시코에서 2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Ibid.*.

108) Televisa는 경쟁·방송·통신에 특화된 특별행정법원에, Inbursa와 Carso 그룹(América

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으로 신규 연방통신법을 포함한 이행법안 통과에 주력했다. 그 결과, 정부는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부문 이행법협상의 전제조건인 정치개혁 이행법과 함께 7월의 특별회기에서 이행법안을 승인받았다.

4) 평가 및 전망

방송통신 개혁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방송통신산업의 법률 및 제도 개혁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통신산업의 완전 개방은 통신 부문에 대한 신규자본 유입 증가와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즉 기존 사업자의 시장가치를 증대시키고,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외자에 대한 접근성과 외국인투자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킬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시장통합을 허용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저비용 고품질의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방송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조치로 수익성이 높은 방송 부문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 기술개선이라는 편익이 유발되고, 통신 부문에서처럼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일정 수준의 시장통합이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시장경쟁과 더불어 콘텐츠 창작을 촉진하고, 외국 방송사들의 콘텐츠 유통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TV방송 채널 개설이

Móvil의 회사 Telmex와 Telcel의 소유자)은 주력사업이 통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양 통신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각각 Ifetel의 지배사업자 판정의 정당성에 대해 심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April 1 2014b), “Mexican telecoms players test new institutions,”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ES189966>. (accessed on June 13, 2014)

추진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셋째, Ifetel 지위 및 기능 강화는 독과점 기업을 통제하고, 특별법원은 절차상의 효율성 증대와 소송비용 감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헌법소원인 ‘amparo’를 통한 예비적 금지명령의 제한은 보다 신속한 규칙의 제정과 시행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이외에 지배사업자 통신망의 공동 활용(unbundling)은 군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신규 사업면허제도는 규제부담의 간소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경제적 영향과 투자 기회이다. 첫째, 2014년 말 기준으로 방송통신시장은 2013년 대비 6.3% 증가한 353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통신시장의 61%를 차지하는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시장의 성장세는 전년대비 35%에 달할 전망이다. 둘째, 정부는 전체 가정의 70%와 중소기업의 85%에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바,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멕시코 전체 가정의 30%만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판단은 유효할 것이다. 셋째, 2016년부터 디지털 TV 방송이 시행되면 TV 수상기,¹⁰⁹⁾셋톱박스와 같은 디지털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배사업자인 América Móvil에 대한 Ifetel의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시장 진입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어 국내외 기업들의 시장진출이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 방송통신 부문 지배사업자들은 독과점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 및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 개혁과 관련한 규제기관 설치 및 이행법 제정과 같은

109) 디지털 TV 방송 전환 프로그램은 멕시코 교통통신부(SCT)가 주관하고 있는바, 1,380만 대의 디지털 TV를 저소득층에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는 공정경쟁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시장경제원칙 확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과거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함으로써 방송통신산업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술한 방송통신 개혁의 경제적 효과는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보다는 설비확충과 같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3년 뒤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혁 추진으로 불거진 방송통신 부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은 개혁의 지속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니에토 대통령의 방송통신산업 개혁에 대한 의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임 직전까지도 불확실했다. 즉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만든 언론매체가 Televisa이고, 후보의 부인(Angelica Rivera)이 Televisa 드라마에 출연한 스타 배우였기 때문이다.¹¹⁰⁾ 또한 방송시장의 60~70%를 장악한 Televisa가 강력한 의회 로비를 바탕으로 정치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¹¹¹⁾ 이와 같은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헌법 수정안 통과를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력에서 다소 자유로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고, 2014년 들어 가속화된 방송통신개혁과 관련한 후속 조치 발표와 이행법 제정, 그리고 분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¹¹²⁾ 개혁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110)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May 30, 2012), “Mexico: Candidates are hostage to powerful interests,”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DB176015&v=pdf>. (accessed June 13, 2014)

111)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April 4, 2006), “MEXICO: Lobbying occupies power vacuum,”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DB125296&v=pdf>. (accessed June 13, 2014)

112) Ifetel은 결의안(시장지배자 판결) 발표 직전 Televisa와 방송프로그램 재전송과 관련된

다. 금융산업 개혁

1) 배경

금융개혁은 경제위기 극복 상황에서 시행된 과거의 구조조정과 달리 금융산업이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고 기업과 가계에 여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금융개혁은 공식 부문인 은행의 여신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을 강화하는 금융민주화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1994년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금융구조조정을 기반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온 멕시코의 금융산업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이유는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경영활동에 있다. 금융기관들의 보수성은 2013년 6월 기준으로 GDP 대비 28%에 불과한 민간 부문 여신 비중에서 알 수 있는데, OECD 회원국 평균인 157%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¹¹³⁾ 이러한 여신 관행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 즉 2014년 2월 11일 멕시코시티 지방법원 판사는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명목을 들어 Ifetel이 케이블 및 위성TV를 통해 공중과 채널로 제공된 콘텐츠의 무료 재전송(‘must carry/must offer’ 규칙)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도록 금지했다.(이 판사는 이전에 Televisa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음날 12일 Ifetel은 지방판사는 연방규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에서 대법원을 통한 헌법소원(constitutional case)을 대통령부에 요청했다. 대통령부는 13일 이 요청을 수용하였고, 17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규제기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Ifetel 지원은 방송통신산업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Ifetel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월 25일 ‘must carry/must offer’ 규칙을 발표했는데, 이는 다른 TV 방송사업자가 Televisa의 2개 주요 공중과 채널이 제공한 콘텐츠를 무료로 재전송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March 27, 2014a), “Telecoms liberalisation will boost growth in Mexico,”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DB189869&StoryDate=20140327>. (accessed May 29, 2014)

113) Gobierno de la Republica Mexicana(2014b), “Reforma Financiera: ¿Qué es?,” <http://reformas.gob.mx/reforma-financiera/que-es>. (accessed June 27, 2014)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멕시코 성인 인구의 60%는 비공식 금융을 이용하고 있고, 20%는 어떠한 금융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며, 소규모 창업자의 80% 이상은 창업자금을 개인저축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¹¹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도 금융산업이 실물 부문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은행이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제조업체들의 투자자금 조달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자금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접근성의 차별화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 금융권의 보수성은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금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의 접근 강화¹¹⁵⁾ △높은 여신비용 감축 △금융 교육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견실한 금융시스템 유지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 효율성 제고에 주목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개발은행을 활용한 여신 촉진 △민간 금융기관 여신 활성화 △견실한 금융시스템 유지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¹¹⁶⁾ 이와 더불어 뮤추얼펀드, 증권시장, 금융그룹 관련 법

114) El Heraldo de Chiapas(2014. 6. 27), “Necesario democratizar el acceso al sistema financiero: Peña Nieto,” <http://www.oem.com.mx/elheraldodechiapas/notas/n3443352.htm>. (accessed June 27, 2014)

115) 제2장에서 멕시코가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은행을 통한 신용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116) 전략적 방향별 주요 내용은 Gobierno de la Republica Mexicana(2014b), Reforma Financiera, pp. 3-4를 참조.

를을 개정하여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기관들의 업무 효율화에 노력하고, 조정기관 설립과 금융제제 강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업무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2) 주요 내용

멕시코 정부는 2013년 5월 7일 ‘멕시코 협약’에 의거하여 34개 금융 관련 법률의 수정, 추가 및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원(2013년 9월 10일)과 상원(11월 26일) 각각 통과한 후 2014년 1월 9일 서명·공포되었다. 금융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⁷⁾ 먼저 금융기관 여신 확대 방안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개선(중앙은행의 금융기관 여신 수수료 및 금리 규제) △채무부에 의한 은행의 국가전략생산 부문 지원·육성 책무 실행 여부 평가 △국가전략생산 부문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은행의 책무를 강화하는 절차 및 정책 수립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금융당국과의 정보교환 협약을 바탕으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 자문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국가위원회(Conducef)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공정성, 신속성, 투명성, 효율성 및 효과성 원칙을 보장하는 새로운 금융거래 분쟁해결절차로서 모든 중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독립된 중재자 풀이 유지되는 금융분쟁중재시스템(Sistema Arbitral en Materia Financiera)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역사회은행, 저축대부조합 등의 업무 활성화를 위

117) Gobierno de la Republica Mexicana(2014b), pp. 5-14 참조.

한 서민저축 대부기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신용조합(Credit Unions)과 관련한 개혁 조치로서 법령이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법인의 신용조합 가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조합이 가입자에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자산 리스를 포함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여신관리 원활화 방안으로 담보 제공과 부실여신 회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즉 상업 관련 소송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거 수용과 당사자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집행소송 제기 혹은 법원 결정문 없이도 채무 원금 지불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현금 처분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섯째, 파산절차를 간소화했다. 파산절차 신속화 규정을 삽입하고, 화해단계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화해단계가 종료되면 파산 개시를 명시했다. 또한 파산절차 동안 회사를 보존하고 회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대출’ 계약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섯째, 은행의 청산과 관련해서는 부실은행을 규제하는 은행법에 사법부의 감독을 받는 특별절차(특별재판소 설치)를 마련하고, 어떠한 단계에서도 청산절차가 중지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일곱째, 주식시장 관련 개혁조치로는 유가증권 공모에 참여하는 증권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자문가로 활동하는 개인을 명기한 법적 해석을 확대했다.

여덟째, 신규 금융그룹법 제정을 통해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유연성 확대를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간접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뮤추얼펀드법 개정으로 주주회의 및 이사회를 폐지하고,

투자관리회사로의 의무 이관 등으로 뮤추얼펀드 규정의 유연화를 모색했다. 또한 뮤추얼펀드의 허가, 설립, 운영절차 원활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3) 평가 및 전망

멕시코 금융감독기관과 금융산업협회는 금융개혁을 여신확대 및 금융 서비스 비용 축소를 위한 기회로 평가했다. 은행증권위원회(CNBV)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생산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멕시코 금융 산업의 건전성을 한층 제고시킬 진일보한 개혁정책으로 평가하고, 멕시코은행연합회(ABM)는 ‘멕시코 협약’의 일환인 금융개혁으로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소비자를 위한 여신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개혁으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여신정책이 변화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앙은행은 2013년 5월 정부가 발의한 개혁안이 경제성장률을 최소 0.5%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¹¹⁸⁾

그러나 금융개혁과 관련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기대는 후속 조치를 통한 개혁안의 조속한 실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멕시코 사법절차의 만성적인 비효율성을 감안할 경우 부실대출 담보 회수, 전담 재판소 설치, 개발은행이 부담할 손실 규모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장벽들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럼에

118) Reuters(2013. 5. 9), “UPDATE 3-Mexican government unveils bank reform bill to spur lending,” www.reuters.com/article/2013/05/09/mexico-reforms-idUSL2N0DP2EN20130509. (accessed Sep 5, 2014)

도 불구하고 금융개혁은 2013년에 시행된 세제개혁(설탕세 도입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산업계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과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개인들에게 여신을 확대하고 금융비용을 경감하려는 조치는 생산성 향상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은 물론 소득 재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S&P는 은행 실적 평가, 금리 및 은행 수수료 규제 등 금융산업에 대한 국가개입 강화로 유발될 시장왜곡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기도 했다.¹¹⁹⁾

3. 제도개혁

가. 교육개혁

1) 배경

멕시코의 재정지출에서 교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약 19%¹²⁰⁾인데, 경제규모가 비슷한 한국(2008년 기준 15%)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멕시코의 교육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데, 2012년 실시된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과학, 수학, 읽기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¹²¹⁾ 특히 전국의 15세 학

119) S&P(2014. 1. 13), "Mexico's Financial Reform Delivers Mixed Results," <http://www.standardandpoors.com/ratings/articles/en/us/?articleType=HTML&assetID=1245362875468>. (accessed May 8, 2014)

120) World Bank Database(2014),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accessed June 12, 2014)

표 3-5. OECD 국가들의 PISA 2012 평균점수 비교

	수학	읽기	과학
OECD 평균	494	496	501
중국(상하이)	613	570	580
싱가포르	573	542	551
한국	554	536	538
일본	536	538	547
핀란드	519	524	545
독일	514	508	524
프랑스	495	505	499
영국	494	499	514
포르투갈	487	488	489
스페인	484	488	496
러시아	482	475	486
미국	481	498	497
스웨덴	478	483	485
칠레	423	441	445
멕시코	413	424	415

주: 음영 표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수의 국가.

자료: OECD(2013c), PISA 2012 Results in Focus.

생 중 기본적인 연산 실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의 비중은 54%에 달했다 (표 3-5 참조).¹²²⁾

역사적으로 볼 때 멕시코의 취학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¹²³⁾ 지난 50년 동안 고등교육 이수율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멕시코 경제 활동인구의 16%가 고등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이 교육 부문에 충분히 투입되고 있음에도 교육수준이 낮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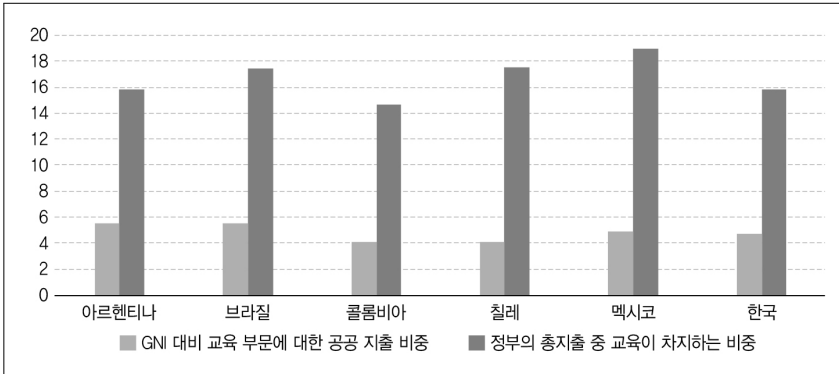
121) OECD(2013c), PISA 2012 Results in Focus.

122) 평균점수가 가장 우수한 중국은 3.8%, 한국은 9.1%를 각각 기록했다.

123) World Bank(2012), Labor Markets for Inclusive Growth, p. 3.

그림 3-10. 중남미 주요국과 한국의 교육 관련 공공 지출(2008년) 비교

(단위: %)



자료: World Bank(2014), EDStats Expenditure, (accessed Aug 5, 2014)

효율적인 교육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전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투자 비중은 높지만 학생 1인당 투자되는 규모는 작다. 이러한 점도 역시 효율적인 예산사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¹²⁴⁾ Arias *et al.*(2010)에 따르면 교육 부문 재정지출의 90% 이상이 교사 임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 다음으로 높다. 즉 교육예산의 대부분이 임금으로 소요되어 교육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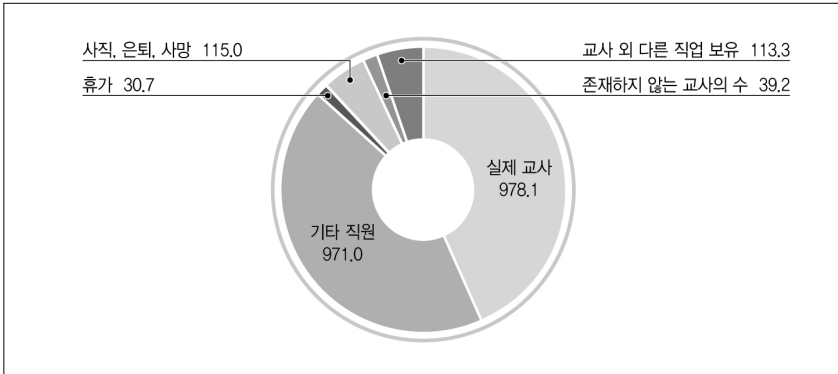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점은 높은 인건비 비중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사들의 임금 수준은 낮다는 점이다. 오악사카주 베니토후아레스자치대 교육연구소(ICEUABJO)와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¹²⁵⁾ 언론을 통해 멕시코 교

124) Javier Arias, Oliver Azuara, Pedro Bernal, James Heckman and Cajeme Villarreal (2010), p. 36.

125) Justo Diaz ICEUABJO 교육연구소 연구원 인터뷰(2014년 8월 29일, 멕시코 오악사카).

그림 3-11. 멕시코의 교원 고용 현황(2014년 기준)

(단위: 천 명)



자료: The Economist(2014), Phantom Teachers에서 재인용; INEGI; Ministry of Education.

사들의 월평균 임금이 약 2,000페소인 것으로 보도되지만 경력 6년차 교육청 공무원 및 경력 5~6년차 교사의 월평균 임금은 약 1,000페소(약 90만 원)에 불과했다.

교직의 세습과 매매가 가능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까지도 전국의 교원 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도 높은 인건비 비중과 관련성이 있다. 최근 시행 중인 교육개혁으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달고주에 등록된 교원 가운데 1,440명이 1912년 12월 12일 출생자였다. 또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교사등록만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사례와 임금수준이 대통령보다도 높은 사례(약 70명)도 나타났다.¹²⁶⁾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멕시코의 부패한 교원관리제도는 교육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근본 요인 중의 하나였고, 교원평가제도의 미비는 교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26) BBC News(2014), Why is it taking so long to reform Mexico's dysfunctional schools?

한편 전국교원노조(SNTE)의 강경성향으로 고착화된 문제들도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SNTE는 주요 이익단체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을 저지하곤 했고, 노조 대표는 교원의 임용과 발령에 대한 전권을 행사해왔다. 그 결과, 교육부의 교육제도 감시 및 통제 기능은 유명무실했다. 즉 교육부는 SNTE가 교원 수를 조작하고 귀신헌교(escuela embarazada)를 운영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도 통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맥락에서 지속되어 왔다. 1992년에는 교원의 연수 참여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교원역량 강화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¹²⁷⁾ 또한 정부와 교원노조 간의 협력방안으로 2008년 5월 ‘교육의 질을 위한 연맹(Alliance for Educational Quality)’을 출범시켜 2만 7,000여 개 학교의 구조 개선과 교원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 배제 등을 포함한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표 3-6. 교육수준별 주요 통계(2012~13년)

(단위: 개, 명)

구 분	학교	교사	학생
초등교육	227,194	1,186,764	25,782,388
직업훈련소	6,016	41,226	1,544,154
중등교육	15,427	285,974	4,333,589
고등교육	4,894	328,932	3,161,195
총계	253,531	1,842,896	34,821,326

자료: SEP(멕시코 교육부), www.sep.gob.mx, (accessed July 15, 2014)

127) The Economist(2008), Testing the teachers.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개혁은 낮은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될 전망이다. 멕시코의 노동생산성은 지난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민간경제연구소인 CIDAC에 따르면¹²⁸⁾ 1991~2009년 사이 노동생산성은 2.1% 증가에 그쳤다. 반면 한국(82.8%), 미국(34.9%), 일본(31.7%), 프랑스(26.4%), 스페인(22.6%)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증가했다.

2) 주요 내용

교육 부문 개혁은 니에토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첫 번째 개혁과제로 ‘멕시코 협약’을 통해 개혁방향과 9개 서약¹²⁹⁾이 제시된 바 있다. 니에토 대통령은 교육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교원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평가와 감시 권한을 중앙기관에 부여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개정된 헌법 제3조와 제73조의 이행법안으로 ‘교육일반법(Ley General de Educación)’, ‘교육평가기관법(Ley del Instituto Nacional para la Evaluación de la Educación)’, ‘전문교육서비스법(Ley General del Servicio Docente)’을 제정했다.

‘교육일반법’은 양질의 평등한 교육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육체계의 품질과 성과에 대한 평가 실행을 명시하고, 지방의 교육당국에 교원 훈련

128) CIDAC(2011), Hacerlo Mejor, Índice de Productividad México, p. 17.

129) ①교육정보관리시스템(Sistema de Información y Gestión Educativa)을 통한 학교, 교원, 학생 관련 통계 자료 관리 ②국가교육평가기관(INEE: Instituto Nacional de Evaluación Educativa)에 교육과정 및 교원평가 전권 부여 ③지방학교에 독립적이고 분권화된 자치권 부여 ④전일교육과정 설정(일 6~8시간 교육) ⑤무선인터넷 장착 노트북컴퓨터를 전국의 5~6학년에 배포 ⑥전문교사 경쟁 채용(Servicio Profesional Docente) ⑦초기교육 전문화를 통한 교원 역량 강화 ⑧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⑨저소득층(전국 소득 하위 40%) 중고등학생 대상 국가장학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Becas) 실행 ; Pactopormexico(2012b), *op.cit.*, pp. 4-6.

기능을 부여했다. ‘교육평가기관법’은 중앙기관인 INEE에서 교육기관의 품질을 평가하고 국가교육시스템을 평가·관리하도록 했다. ‘전문교육서비스법’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법안이다. 교육당국은 교사의 역량 강화 및 평가 방안으로 시험을 도입하여 임용과 발령에 활용하도록 했다. 교사들은 재직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시험을 보는데 2회는 의무이고 나머지는 승진과 임금인상 등을 위한 선택사항이다. 이외에 ‘전문교육서비스법’은 노조가 아닌 교육당국에 교직원 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멕시코 교육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교육개혁의 내용이 중앙집권적인 특징과 지자체에 권리를 이임하는 지방분권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¹³⁰⁾ 즉 교사에 대한 임용, 평가, 임금 등에 대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면서 개별 학교에 자치권을 부여한 것이다. 학교는 자체 예산집행권, 수업과정, 교사 및 직원 활용에 대한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받았지만 교원 통제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3) 후속 조치 현황 및 전망

교육개혁안은 2012년 12월 발표 직후 의회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2013년 3월)으로 통과하였고, 이행법안으로는 ‘교육일반법’과 ‘교육평가기관법’이 2013년 8월 21일에, 그리고 노조원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전문교육 서비스법’은 9월 3일에 의회를 각각 통과했다. 승인된 법안은 180일 이내(2014년 3월 12일)에 32개 주(州) 법률에 적용하도록 했으나 27개 주에서만 수용되었고, 예외적으로 5개 주에는 적용시한이 연장되었

130) Gabriel Zinny and James McBride(2014), Mexico's Education Reforms and Latin America's Struggle to Raise Education Quality, Brookings.

다.¹³¹⁾ 오악사카주를 위시한 5개 주는 지역의 독특한 상황과 문화적 이유를 근거로 연방법의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적용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¹³²⁾ ICEUABJO 교육연구소는 국내 최저의 소득수준, 다양한 특성의 사회계층, 교통과 전력 인프라 낙후 등 오악사카주가 지닌 특성상 교원의 근로환경을 바꾸는 개혁만으로는 교육의 질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¹³³⁾

한편 교육개혁의 장애물은 주별 이행이 지연되는 점과 더불어 교원평가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평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는 교원노조의 관여로 유명무실해진 기존의 교육평가시스템(ENLACE)을 2015년까지 활용하는 데 합의한 상태이다.

이외에 전국교육공무원협회(Coordinadora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를 위시한 사회적 저항과 국민적 지지 약화도 교육 개혁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특히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단기성과 부족으로 하락하고 있다.¹³⁴⁾ 오악사카주 교육청과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¹³⁵⁾ 이번 개혁 조치가 교육의 질적 제고보다는 교사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변화만 다루고 있어 주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니에토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동시적인 개혁 실행으로 우선순위가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 부여될 수 있어 교육 개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131) EIU(2014b), Mexico politics: Government's commitment to education reform questioned.

132) *Ibid.*

133) Justo Diaz ICEUABJO 교육연구소 연구원 인터뷰(2014년 8월 29일, 멕시코 오악사카).

134) *Ibid.*

135) Karel Dehesa 오악사카 주 교육청 연구원 인터뷰(2014년 8월 29일, 멕시코 오악사카).

나. 세제 개혁

1) 배경

멕시코의 재정수입 구조는 낮은 조세수입 비중과 높은 공기업 기여금 비중으로 인해 취약성을 보인다. 즉 Pemex가 재정수입의 30% 이상을 충당하고, 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은 GDP의 13.7%에 불과하다. 이에 멕시코 재정정책의 주요 과제는 국제상품가격과 석유생산량의 변동성에 따른 영향력을 축소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의 조세제도는 만연한 탈세, 협소한 조세 기반, 복잡한 납세절차 등으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¹³⁶⁾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멕시코의 중소기업들은 세무신고에 OECD 평균(연간 175시간)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334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⁷⁾

멕시코의 경우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46%를 상회하며, 미국은 40%, 한국은 30%에 달한다.¹³⁸⁾ 반면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지출 비중은 평균 27.1% 정도인데, 멕시코는 19.5%(2011년 기준, Pemex 및 CFE에 대한 지출 미포함)로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재정정책의 부의 재분배 역할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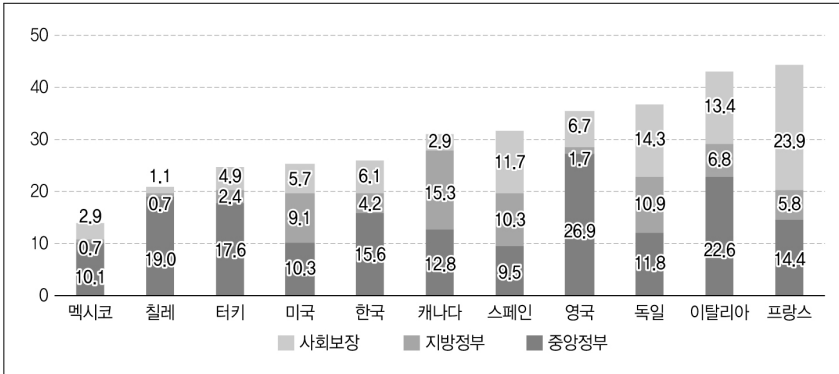
136) EIU ViewsWire(2014b), Mexico: Tax regulations.

137) World Bank and IFC(2013), Doing Business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p. 209.

138) *Ibid.*, p. 7.

그림 3-12. 주요국의 조세수입 구성(2011년)

(단위: %,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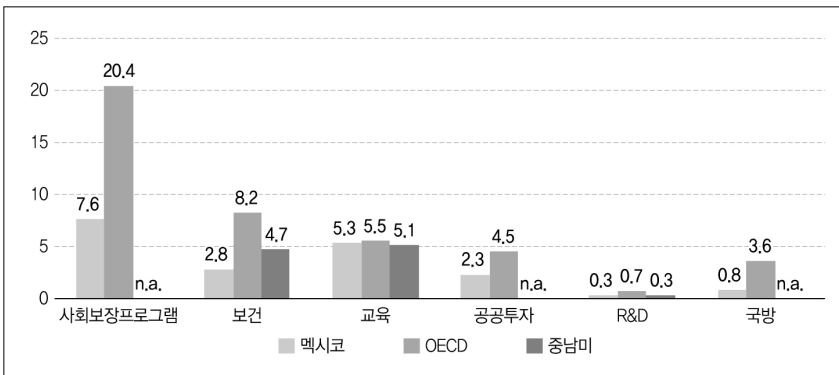


자료: SHCP(2014), Reforma Hacendaria, p. 3.

멕시코 정부는 부족한 공공지출이 사회 및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부문에 대한 투자부족을 낳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사회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은 OECD 평균(GDP 대비 20%)에 크게 뒤지는 7%에 불과하며, 건강 부문에 대한 지출도 OECD(8%)와 중남미(4.7%)보다 크게

그림 3-13. 멕시코, 중남미 및 OECD의 각 부문별 공공지출 비중 비교

(단위: %, GDP 대비)



자료: SHCP(2014), Reforma Hacendaria, p. 4.

낮다(2.8%).¹³⁹⁾ 그 결과 16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48%가 한 번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취약계층의 상당 부분이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

2) 주요 내용

2013년 말에 마련된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재정수입의 구조적 균형과 정부지출의 급격한 증대 방지와 같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조치로 요약된다. 협소한 세수기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혁안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세수 비중을 늘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데 맞추어졌다. 따라서 세정의 기본 취지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IEPS) 등을 망라해 증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GDP 대비 약 25%로 추정되는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

세제개혁의 최대 관심사는 부가가치세 세율인상이다. 국경지역 기업들에 부여하던 특혜를 없애면서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의 11%에서 16%로 인상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던 외국인 관광객 이용 호텔 및 관련 서비스에서도 일괄적으로 16%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또한 수출 활동에 이용되는 일시적 수입에 부여되던 무관세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310억 페소의 증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39) SHCP(2014), Reforma Hacendaria, p. 4.

나) 특별소비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석유와 농약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적용하고, 일부 주류에 대해서는 판매가에 53%를 추가로 과세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청량음료에 리터당 1페소, 정크푸드에는 8%의 특별세를 부과했다. 비록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지만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포용하려는 노력으로도 해석된다.

다) 법인세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법인소득세(ISR)를 강화하는 한편 2008년에 도입한 ‘현금예금세(IDE)’와 ‘단일세율법인세(IETU)’를 폐지하여 법인세 간소화에 노력했다. 법인세는 적용 당시에는 30%를 그대로 유지하나 2014년 29%, 2015년 28%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라) 마킬라도라 정책

세제개혁을 통해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킬라도라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경지역 기업들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혜택을 받아왔고, 기존 세제에 탈세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것이 정부의 개혁 배경이다.

정부는 마킬라도라 사업에 대한 정의를 우선적으로 재정비했는데, 기업들의 생산활동 수익은 IMMEX 법령¹⁴⁰⁾에 명시된 대로 오직 마킬라 활

140) 2006년 발표된 ‘제조업, 마킬라, 수출서비스산업 증진을 위한 법령(Decree for the Promotion of the Manufacturing, Maquila and Export Service Industry: IMMEX Decree)’은 멕시코 수출 부문의 경쟁력 강화, 기업 활동의 안정성, 투명성, 지속성 증

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마킬라도 라 혜택을 받던 외국 기업들은 업무에 사용되는 기계와 도구의 최소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 없던 규정으로 멕시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과 마킬라 사이의 상품판매에 일률적으로 16%의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 광물기업

광물기업들은 2014년부터 탐사 및 매장량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100%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는 7.5%의 로열티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 목적은 광물기업들의 생산활동은 장려하면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후속 조치 현황 및 전망

세제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세제개혁에 힘입어 2014년에 GDP 대비 1%, 2018년에 2.4%의 증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2014년 1~8월 이미 재정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상반기에만 75만 명이 납세대상자에 새로이 포함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세금인상으로 인해 2014년 초 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했다. 비록 정부의 추가적인 세금인상 부인 발표에 안정을 회복했지만 세제변화에 대한 국가경제의 민감성을 여실히 드러내었

진, 법령의 구체화 및 간소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멕시코 제조업 수출의 약 85%를 차지한다 ; EIU ViewsWire(2014b), Mexico: Tax Regulations.

다. 특히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중소기업들의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보완할 목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2014년 9월 8일 ‘동반성장전략(Crezcamos Juntos)’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볼 때 전략의 목표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바탕으로 비공식 부문을 축소시킴으로써 조세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즉 △10년간 할인된 금액으로 멕시코사회보장기구(IMSS)가 제공하는 보건 및 연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노동자주택기금기구(Infonavit)가 제공하는 모기지론 보장 △특혜 이자율 제공 △소득세 관련 혜택 제공(등록 후 1년 소득세 100% 할인, 이후 10년간 특혜세율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신용 제공 △노동사회복지부의 직업훈련 제공 등이 ‘동반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이다.

다. 노동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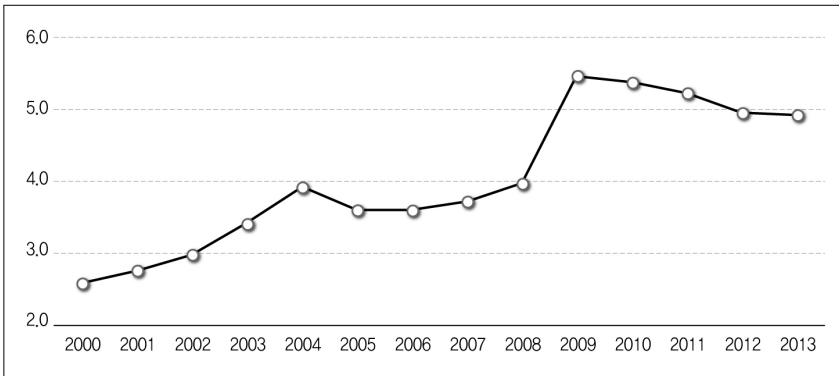
1) 배경

멕시코 노동시장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높은 경직성 및 비공식 노동, 완만한 실질임금 상승률 등으로 대표된다.¹⁴¹⁾ 이러한 특징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멕시코의 공식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3%대를 웃돌다가 2009년에 5.5%를 기록했다. 이후 공식실업률은 매년 소폭의 하락 추세를 유지하여 2014년 현재 4%대를 유지하고 있다.

141) World Bank(2011), Effects of the 2008-09 Economic Crisis on Labor Markets in Mexico, p. 2.

그림 3-14. 멕시코의 공식실업률 추이(2000~13년)

(단위: %)



자료: EIU, Data(<http://data.eiu.com>). (accessed Sep 11, 2014)

멕시코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멕시코에서 14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43%에 불과하다.¹⁴²⁾ 특히 14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56%에 달하지만 여성은 32%에 불과하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멕시코 여성 인구의 근로참여(남성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는 148개국 중 120위를 기록하였다.¹⁴³⁾

제도적인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멕시코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경직성의 기준은 고용과 해고, 임금 적용 기준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인력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데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2014년 WEF은 멕시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 현실적인 지표를

142) 2014년 7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63.2%에 달한다.

14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멕시코 공식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World Economic Forum(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p. 271.

표 3-7. 멕시코 고용시장 현황(2014년)

(단위: %, 명)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14세 이상 인구 비중	74	73	76
경제활동인구	43	56	32
취업 중	41	53	30
실업 중	2	3	2
비경제활동인구	31	17	44
전체 인구	119,224,847	57,734,965	61,489,882

자료: INEGI, Ocupación y Empleo, (accessed Aug 6, 2014)

제공하고 있다. WEF에 따르면 멕시코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총 148개국 중 12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 효율성’이라 함은 노동자-고용자 간 관계, 임금의 유연성,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해고비용, 생산성, 인재유출정도, 전문성, 여성의 노동참여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지표이다. 특히 고용 및 해고 유연성은 103위를 기록하였고, 주급 대비 산정한 해고비용은 104위이다.¹⁴⁴⁾

노동시장 경직성은 제한된 일자리 창출과 고용감소, 청년과 여성 실업을 증가라는 결과와 더불어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감소와 생산성 증가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은 멕시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의 비중 증대에 일조했다. 멕시코 노동인구의 약 60%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GDP 비중도 약 25%에 달한다.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대로 고용계약을 통해 사회보장 혜택에 접근하는 노동자의 비중으로 측정할 경우,¹⁴⁵⁾

144) *Ibid.*, pp. 270-271.

145) World Bank(2011), Effects of the 2008-09 Economic Crisis on Labor Markets in Mexico, p. 2.

비공식 부문은 총고용의 66%에 달한다. 또한 노동자의 30%만이 연금에 가입했는데, 이는 60%에 달하는 브라질, 칠레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

사실상 비공식 부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발생 원인에 대해 학자들은 공통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있는데 바로 규제와 세금,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¹⁴⁶⁾ 이러한 비공식 부문이 커질 경우 세수확보의 어려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인구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성 하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시장에 큰 장벽 없이 진입할 수 있어 전체의 생산성을 하락시킨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멕시코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은 공식 부문보다 2.3배 낮은 생산성을 기록했다.¹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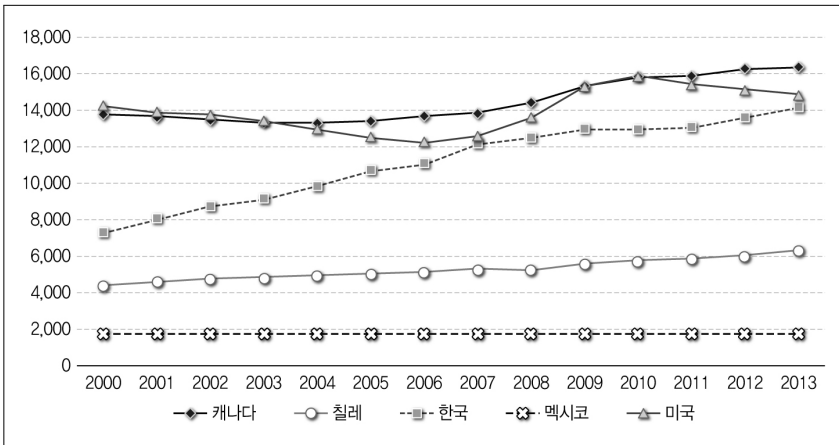
2000년대 멕시코에서 실질임금은 2007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실질임금의 경우 1990년대부터 반복된 경제위기로 인해 낮게 유지된바, 2010년 실질임금은 2008년의 90% 정도 수준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 첨단기술 제조업, 건설, 상업 부문 등 모든 산업에서 두루 관찰되는 현상이다.¹⁴⁸⁾ 낮은 실질임금은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멕시코의 경우 역사적 배경도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의 노동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캐플런(David Kaplan)은 “멕시코 폐소화 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낮은 실질임금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¹⁴⁹⁾ 실제로 2000년 대비 2013년 실질 최저

146) Javier Arias, Oliver Azuara, Pedro Bernal, James Heckman and Cajeme Villarreal (2010), Policies to Promote Growth and Economic Efficiency in Mexico, MPRA, p. 29.

147) EIU ViewsWire(2014a), Mexico economy: New Strategy Against Informality is Launched.

148) World Bank(2012), p. 3.

그림 3-15. 주요국의 실질 최저임금 (PPP 기준, 2000~13년) 추이



자료: OECD, Statistics, (accessed Aug 22, 2014)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95%, 칠레는 43%, 캐나다는 19%, 미국은 4% 증가한 데 반해 멕시코의 증가율은 1%에 그쳤다.

전술한 멕시코 노동인구의 구조 변화는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여성이 임신한 경우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지만 최근 한 부모 가정이 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들에게 노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고,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또한 2006~11년에 인구증가율 상승으로 근로인구는 650만 명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선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했다.

149) David Kaplan(IDB) 인터뷰(2014년 8월 27일, 멕시코시티).

2) 주요 내용

칼데론 전 대통령이 2010년 3월에 발표한 포괄적인 노동개혁안은 임기 말인 2012년 11월에 의회를 최종 통과하여 12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 개혁안의 핵심 사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비공식 부문 양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규 노동력 확보 등이었다.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용형태 다양화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조치였다. 멕시코에서 정규직 해고에는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 초래되는데, 이로 인해 고용과 해고의 경직성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개혁안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허용하여 해고비용 경감과 고용부담을 완화했다.

허용된 고용형태는 ‘시험기간(trial period) 계약’, ‘수습기간(initial training) 계약’, ‘단기(discontinuous, seasonal work) 계약’, ‘시간단위(hourly basis) 계약’ 등 네 가지이다. ‘시험기간 계약’은 사용자가 일정기간(30일~6개월, 직업에 따라 다름) 동안 개인을 고용하는 제도로, 계약연장은 불가능하고, 해고수당(보통 3개월치 월급에 해당)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된 계약형태인 ‘수습기간 계약’은 3~6개월 지속가능하며, 이 역시 갱신과 연장이 불가능하고 해고수당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단기 계약’에서는 임시직에 정규직과 같은 권리를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59.08~62.33페소, 4.50~4.80달러)을 기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간단위 계약’ 형태를 허용했다.

나) 노동조합 관련 조항

과거 조합원들의 직접·비밀 투표를 통해서만 선출되던 노동조합 대표의 선출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간접선거 방식도 허용했다. 그러나 15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조합의 의무조항인 외부감사가 개혁안에서는 삭제되었다.

다) 노동 분쟁

기존 법률에 따르면 멕시코 노동시장은 사용자와 노동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노동자들은 해고 이후 보상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비용을 치렀다. 개혁안은 이러한 양측 입장을 조정하는 의미가 있었다. 즉 개혁 이전에 노동 관련 법적 분쟁절차를 밟고 있는 노동자는 해결 직전까지 무제한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적 절차를 최대한 연장하는 악용사례를 막고 신속한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개혁안에서는 임금 보조기간을 12개월로 제한했다.

표 3-8. 2012년 멕시코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

연방 노동법의 주요 개정 부분		
경제	계약 및 해고의 형태	시험 기간
		불연속적인 노동
		양성훈련
		임금 하락 제한
		하도급
	인력 활용(기능직 신축성)	정의 책임회피 방지 규제
		다중작업
사회	노동시간 유연성	시급
	생산성	승진에 관한 새로운 규정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권리
		합동위원회와 생산성과 훈련 위원회들의 새로운 목표
	양질의 일자리	포괄적인 정의
	취약 그룹 보호	소수자
		국내 노동자
		농부
		광부
		재택근무
	양성 평등	실질적 평등
		성희롱 방지
		비임신 테스트 금지
		출산 휴가
		육아 휴가
정치	비차별	인종, 국적, 성, 연령, 장애 등
	노동조합	조직 내 민주주의
		투명성
		은행계좌 외부감사
		제명 관련 조항
	노동 정의	사회보장 관련 갈등의 법적 소송절차
	국가 통제	IT 기술
		제재 증가와 자유 박탈

자료: Graciela Bensúsán(2013), Reforma laboral, desarrollo incluyente e igualdad en México, CEPAL,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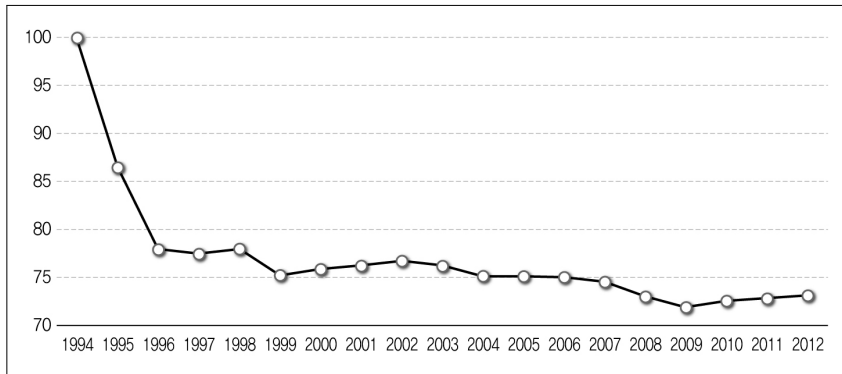
3) 후속 조치 현황 및 전망

2014년은 개정된 노동법이 발효된 지 2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개혁은 내용 면에서 기업들의 인력아웃소싱을 합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아닌 기업들에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멕시코에 여전히 실업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해고비용이 높다는 점은 이번 노동개혁이 갖는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즉 구조적인 개혁이 아닌 일부 미세 조정에 그쳤다는 평가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개혁으로 비공식 부문이 흡수되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BNP Paribas 은행은 추정하고 있지만¹⁵⁰⁾ 실제로 2013년에 창출된 일자리 50만 개 중 60% 이상이 비공식 부문에서 생겨났으며, 실질적인 임금개선도 없었다는 평가다.¹⁵¹⁾

그림 3-16. 멕시코의 최저임금 변화(1994~2012년)

(1994=100)



자료: Graciela Bensusán(2013), Reforma laboral, desarrollo incluyente e igualdad en México, CEPAL, p. 43.

150) The Economist(2012), Labour pains.

151) Lylia Palacios Hernández(2014), 멕시코의 노동개혁, 트랜스라틴.

한편 멕시코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최저임금의 조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멕시코는 역사적 맥락에서 폐소화 위기 이후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낮은 최저임금을 정책적으로 유지해왔다. 지난 20년간 멕시코에서는 실질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곳곳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수출 기반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낮은 최저임금은 그동안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왔으나 멕시코 내 정책담당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저임금이 멕시코의 경쟁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2015년 중간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시혜적 정책과 더불어 실행될 여지가 높아 멕시코 노동시장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멕시코에서 추진 중인 11대 분야에 걸친 구조개혁은 국가 전반에 대한 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국민의 기본권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및 자유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기본권 강화 및 확대로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안정화하며, 민주주의 체제 및 자유 확립으로 선거에 기초한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11대 분야 가운데 6개 분야(에너지, 방송통신, 경쟁, 세제, 금융, 노동)는 생산성 향상과, 3개 분야(교육, 헌법소원, 형사소송법)는 권리와, 그리고 2개 분야(정치/

표 3-9. 멕시코의 11대 공공정책 개혁 추진 현황

개혁법안	헌법개정 필요성	상원	하원	주 의회	이행법 제정
교육	○	통과	통과	통과	○
방송통신	○	통과	통과	통과	○
경쟁	○	통과	통과	통과	○
정치/선거	○	통과	통과	통과	○
에너지	○	통과	통과	통과	○
금융	x	통과	통과	-	○
세제	x	통과	통과	-	○
투명성	○	통과	통과	통과	○
연방구	x	통과	계류	-	x
형사소송법	○	통과	통과	통과	○
헌법소원법	x	통과	통과	-	○

자료: Dwight Dyer(2014, 1, 15), "Mexico's Reform: The Devil in the Details," *Forbes*, <http://www.forbes.com/sites/riskmap/2014/1/15/mexicos-reforms-the-devil-in-the-details/print/>, (accessed May 9, 2014) 및 저자 일부 수정(볼드체).

선거, 투명성)는 민주주의 체제 및 자유와 연결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11대 개혁 분야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1대 개혁정책의 역할은 멕시코가 더욱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국가로 변모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변모된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가 완전하게 행사되면서 민주주의와 투명성이 일상의 주된 가치가 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11대 개혁 가운데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분야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국가전력체계를 심층적으로 변화시켜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추가 달성, 석유·천연가스·파생물의 이용성 증대, 전력서비스의 저비용 고품질화 및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등의 결과가 기대된다.

표 3-10. 산업·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입법 경과

개혁 부문	주요 내용	경과
방송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을 통한 ICT 접근권 보장 • 신규 통신규제기관(Ifetel) 설립 • 연방경제경쟁위원회(CFCE) 신설 • 통신서비스 사업자 시장점유율(50%) 제한 • 통신(100%) 및 방송산업(49%) 외국인 투자 개방 • 2개 공중파 TV채널 신설 • 신규 브로드밴드 인프라 개방(경쟁) • 효과적인 분쟁해결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정(2013. 3. 11) - 하원(2013. 3. 21) - 상원(2013. 4. 19) - 의회 상설위원회 합헌 결정(2013. 5. 22) - 대통령 서명(2013. 6. 10) • 이행법 제정 기한(6개월) 미준수 • 이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상정(2014. 3. 24) - 상원(2014. 7. 5) - 하원(2014. 7. 9) - 대통령 서명(2014. 7. 14)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석유/가스) 국가독점을 민간투자에 개방 • 이익분배계약, 생산물분배계약, 라이선스 허용 • 석유국부펀드 설립(중앙은행 관리) • 발전 및 배전 부문 민간 개방 • 노조의 Pemex 이사회 참여 배제/에너지부 장관 이사장(당연직) • Pemex 재정/금융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정(2013. 8. 12) - 상원(2013. 12. 11) - 하원(2013. 12. 12) - 의회 상설위원회 합헌 결정(2013. 12. 18) - 대통령 서명(2013. 12. 20) • 이행법(15개 법안, 4개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상정(2014. 4. 30) - 상원(2013. 7. 19~21) - 하원(2014. 8. 2) - 상원 수정안(2014. 8. 6) - 대통령 서명(2014. 8. 11)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여신 확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여신 개선(중앙은행 수수료/금리 규제) - 재무부/은행증권감독원, 은행 여신실적 평가 • 개발은행 역할(여신)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Conducef) 권한 강화 • 금융분쟁중재시스템(SAMF) 구축 • 서민저축 대부기관 관련 법규 개정 • 신용조합 가입/업무 범위 확대 • 담보 제공/관리 효율성 제고 • 파산절차 간소화 • 은행 청산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 금융그룹법/뮤추얼펀드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법안(재무부, 13개 법령, 34개 연방법 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상정(2013. 5. 7) - 상원(2013. 9. 10) - 하원(2013. 11. 26) - 대통령 서명(2014. 1. 9)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스턴트식품/설탕으로 과세 • 소득 상위계층 세율 인상 • 부가가치세율 전국 통일 • 광업 소득세율 인상 및 지역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세제개혁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세입세출법과 동시 승인 (2013. 10. 31) - 2014. 1. 1 시행

개혁 부문	주요 내용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 소득 및 배당 과세(10%) • 전자과세제도 도입을 통한 소규모 사업 공식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 국가교육평가기관 설치 • 지방학교 독립성 및 자치권 부여 • 전일교육과정 설정 • IT 교육기자재 보급 • 전문교사 경쟁 채용 • 교원 역량 강화 •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 저소득 중고등학생 국가장학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정(2012. 12. 10) - 하원(2012. 12. 20) - 상원(2012. 12. 21) - 하원(2013. 2. 6) 및 상원(2013. 2. 7) 합헌 결정 - 대통령 서명(2013. 2. 25) • 이행법(3개 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상정(2013. 8. 13) - 하원(2013. 8. 22, 9. 1) - 상원(2013. 8. 23, 9. 3) - 공포(2013. 9. 10)

자료: 저자 작성.

먼저 석유산업 개혁에서는 국가의 자원독점권을 유지하면서 생산증대를 유발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도입되었다. 특히 Pemex와 국내외 기업들이 공동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와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 모델이 마련되고, 지배구조, 경영의 자율성, 재정기여 부담이 축소된 세제 등 Pemex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변화가 발생했다. 한편 발전 부문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기회와 전력도매시장 확대가 주요 개혁 내용인 국가전력시스템에서는 전기요금 인하,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이행, 소외지역으로의 서비스 확충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

방송통신산업 구조조정은 시장독점 해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강화와 방송통신산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표현 및 정보 접근의 자유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국가가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의 ICT 접근성 제고는 보편적인 디지털 포용정책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전면적인 경쟁 촉진과 활성화로 인해 더 많은 선택권과 개선된 요금제를 통해 유선TV, 유·무선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에서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개혁안(헌법수정안)과 더불어 추진된 경쟁 부문 개혁은 반경쟁적 관행들을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내수시장 질서(경쟁성, 공정성, 투명성 보장)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 보호, 저소득층의 기초 상품 및 서비스에의 접근성 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대기업의 시장지배 완화가 기대된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의 축소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 경쟁 활성화 조치를 비롯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에 필요한 금융기관 및 규제감독기관의 업무 개선 방안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불공정 계약과 같은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법규가 개정되고, 규제감독기관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여신활동과 불공정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민간 부문으로 자금이 저비용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 교육 개혁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사가 교육시스템의 중추가 되도록 전문교사제도를 만들고, 학력 개선방안으로 국가

교육평가시스템(SNEE) 도입을 추진했다. 균등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위해 전일제 교육과 포용 및 균형프로그램과 같은 전략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비효율적인 교원노조의 독점체제를 변화시키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세제개혁은 국가가 국민들의 기초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인 재정수입 증대에 필요한 다양한 세제개편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공정한 납세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체제를 도입하고, 사회보장 강화와 저소득층 지원에 재정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납세의 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공식 부문으로의 기업 편입을 촉진하며, 보건과 환경을 고려한 조세제도를 도입했다.

정권교체기에 야당인 PRI당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추진된 노동개혁은 고용창출과 근로자 중심의 노동환경 구축에 목적을 두었다. 노동시장 진입 모델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노동력의 아웃소싱 및 하청 관행을 합법화하면서도 사측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임신, 수유, 장애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고, 가사, 농업,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전술한 주요 부문을 포함한 11대 공공정책의 1단계 개혁은 니에토 집권 20개월 동안에 필요한 헌법 수정과 이행법의 제정 및 개정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기 단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개혁의 편익을 제공할 각종 공공정책들이 직접 실현되는 실천의 개혁이 될 전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멕시코 개혁정책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과거에 멕시코에서 여러 번 개혁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이번처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전격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없었다. 도약을 목표로 국가를 개조시키는 수준으로 진행되는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둘째, 멕시코 개혁정책에 대해 해외에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조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이번 사례는 구조조정정책이 일시적인 아닌 일상적인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셋째,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독립적인 산업 분야에 집중된 개혁보다 산업과 제도가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된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 경쟁정책과 방송통신산업의 유기적인 결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국가독점산업과 독과점 시장에 대한 경쟁 도입은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은 물론 나아가 경제성장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혁은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시장경쟁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 외적으로 다양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제, 교육, 노동에 관한 개혁은 그동안 멕시코의 생산성과 경쟁력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제도적 비효율성 개선에 그 목표가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들은 이제 발효된 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지났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각한 교원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투기적인 광물기업에 대한 과세, 세수확보를 위한 마킬라도라 세제특혜 폐지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들이 구조적

인 변화를 야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지만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제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제4장 한·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교역
2. 투자
3. 제도협력
4. 경제협력 평가



본 장에서는 한·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특히 멕시코 현지 투자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투자진출 동기, 투자 및 운영 자금 조달 현황, 원부자재 조달 현황, 현지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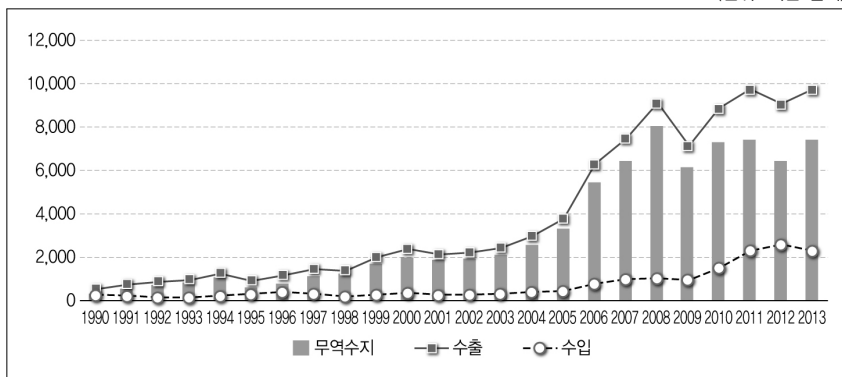
1. 교역

가. 교역 현황 및 추이

멕시코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시장이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는 한국의 11대 수출대상국이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수출국이다. 수출대상국으로서의 위상에 비해 수입국으로서의 위상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는 32대 수입대상국에 머물고 있다.

그림 4-1.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검색일: 2014. 8. 1) 자료를 토대로 작성.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2%로 정점을 기록한 직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 그 비중은 1.7%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증가세에 비해 대멕시코 수출증가세가 더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수입 대상국으로서의 위상은 2008년 이후 증가세다. 그 비중은 2012년 0.5%로 정점을 기록했다.

나. 교역의 주요 특징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흑자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멕시코 무역흑자 규모는 더욱 커져 2008년에는 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무역불균형은 한국과 멕시코의 독특한 무역구조에서 기인한다. 우리 기업이 NAFTA 시장에서 멕시코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멕시코를 대미 수출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삼각무역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기업은 멕시코에 투자하여 조립공장을 세우고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가공한 후 미국과 캐나다로 최종재를 수출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멕시코의 대한(對韓) 무역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멕시코의 대미 및 대캐나다 무역에서는 흑자가 발생한다.¹⁵²⁾

품목별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편중도가 높다. 2013년 기준으로 10대 품목의 수

152) 한·멕시코 21세기위원회(2005), p. 28.

표 4-1.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멕시코	전 세계
1990	560	0.9	264	0.4	295	-4,828
1991	775	1.1	224	0.3	550	-9,655
1992	905	1.2	172	0.2	733	-5,144
1993	997	1.2	158	0.2	840	-1,564
1994	1,289	1.3	229	0.2	1,061	-6,335
1995	941	0.8	307	0.2	634	-10,061
1996	1,191	0.9	408	0.3	783	-20,624
1997	1,471	1.1	344	0.2	1,127	-8,452
1998	1,405	1.1	191	0.2	1,214	39,031
1999	2,017	1.4	292	0.2	1,725	23,933
2000	2,391	1.4	378	0.2	2,013	11,786
2001	2,149	1.4	267	0.2	1,882	9,341
2002	2,231	1.4	295	0.2	1,935	10,344
2003	2,455	1.3	334	0.2	2,121	14,991
2004	2,994	1.2	411	0.2	2,583	29,382
2005	3,789	1.3	460	0.2	3,329	23,180
2006	6,285	1.9	798	0.3	5,487	16,082
2007	7,482	2.0	1,013	0.3	6,469	14,643
2008	9,090	2.2	1,049	0.2	8,041	-13,267
2009	7,133	2.0	972	0.3	6,161	40,449
2010	8,846	1.9	1,521	0.4	7,325	41,172
2011	9,729	1.8	2,316	0.4	7,413	30,801
2012	9,042	1.7	2,592	0.5	6,451	28,285
2013	9,727	1.7	2,301	0.4	7,427	44,047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검색일: 2014. 8. 1) 자료를 토대로 작성.

출비중은 총수출의 74%에 달한다. 둘째, 소비재보다는 자본재와 원자재에 대한 수출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는 북미시장의 생산기지로서 멕시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⁵³⁾ 2014년 5월 현대자동차의 판

표 4-2. 시기별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상품(MTI 3단위 기준)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1990			2000			2013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영상기기	207	36.9	전자관	355	14.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961	20.2
2	전자관	56	10.0	컴퓨터	279	11.7	영상기기	1,168	12.0
3	인조장섬유직물	55	9.9	인조장섬유직물	164	6.9	철강판	865	8.9
4	인조단섬유직물	32	5.7	영상기기	143	6.0	자동차부품	864	8.9
5	음향기기	28	5.1	합성수지	124	5.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37	6.6
6	기호식품	17	3.0	음향기기	90	3.8	자동차	519	5.3
7	신발	14	2.5	냉장고	74	3.1	무선통신기기	394	4.0
8	철강판	12	2.2	철강판	72	3.0	합성수지	362	3.7
9	의류	11	2.0	무선통신기기	70	2.9	원동기 및 펌프	233	2.4
10	취미 오락기구	11	1.9	자동차	68	2.8	금형	180	1.8
상위 10대		443	79.2	상위 10대	1,440	60.2	상위 10대	7,182	73.8
총계		560	100.0	총계	2,391	100.0	총계	9,72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검색일: 2014. 8. 1) 자료를 토대로 작성.

매법인 설립¹⁵⁴⁾과 기아자동차의 생산기지 건설로 향후 자동차 수출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¹⁵⁵⁾

153) 2013년 현대차의 멕시코 수출은 2012년(9,200대)의 절반인 4,300대에 그쳤다. 그 이유는 기존에 크라이슬러의 유통망을 이용해 자동차를 판매해왔으나 2012년 중순 계약해지로 판매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54) 현대자동차는 현지법인(Hyundai Motor Mexico) 설립을 통해 기존 국내 공장 수출에만 의존해 오던 멕시코 공급선을 글로벌 공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NAFTA가 갖고 있는 비관세 혜택을 활용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멕시코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55) 그간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자동차 수출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지지부진했다. 먼저 멕시코의 자동차시장 보호정책을 들 수 있다. 멕시코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멕시코 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신차 수입쿼터를 부여해왔다. 이 제도는 2004년 1월 멕시코가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대신에 멕시코 정부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는 관세율 50%를 부과해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쌓았다. 이와 같은 멕시코 정부의 자동차 시장 진출 장벽을 탈피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는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업무협조를 통해 이 회사의 수입쿼터를 이용해 아토스 등 일부 차량을 멕시코에 수출해왔다.

표 4-3. 시기별 한국의 대멕시코 수입상품(MTI 3단위 기준)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1990			2000			2013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원유	68	25.7	강반제품 및 기타 철강제품	64	17.0	기타 금속광물	460	20.0
2	석유화학 합성원료	43	16.3	반도체	33	8.6	아연광	216	9.4
3	석유제품	31	11.8	컴퓨터	32	8.5	자동차 부품	174	7.6
4	기초유분	26	9.7	석유제품	28	7.5	자동차	118	5.1
5	연제품	20	7.5	자동차 부품	24	6.5	무선통신기기	94	4.1
6	동광	13	5.0	유선통신기기	24	6.5	금은 및 백금	80	3.5
7	기타 농산물	13	4.7	수산물	21	5.6	전자응용기기	78	3.4
8	아연제품	6	2.4	소금	18	4.6	계측제어분석기	69	3.0
9	강반제품 및 기타 철강제품	5	2.0	석유화학 합성원료	16	4.2	유선통신기기	68	3.0
10	소금	4	1.6	기호식품	9	2.3	원동기 및 펌프	66	2.9
상위 10대		229	86.7	상위 10대	270	71.4	상위 10대	1,425	61.9
총계		264	100.0	총계	378	100.0	총계	2,30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검색일: 2014. 8. 1) 자료를 토대로 작성.

품목별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2년까지 주요 수입품이었던 원유의 수입이 중단되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멕시코로부터의 원유 수입 중단을 양국간 무역역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둘째,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멕시코와의 교역은 크지는 않지만 산업간 무역보다는 산업 내 무역의 특징을 띠고 있다. 금속광물 등 원자재 이외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유무선 통신기기 등 공산품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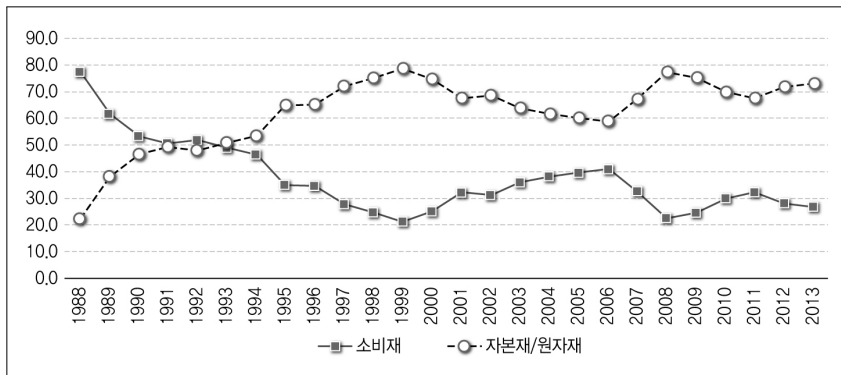
용도별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 변화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다. 1993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은 소비재가 50%를 상회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1993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시코 수출은 멕시코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이 주요 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4년 NAFTA가 발효되면서 멕시코 시장은 미국 및 캐나다 등 북미시장 생산기지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된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북미시장을 겨냥해 현지에 생산공장을 짓게 된다. 이에 따라 대멕시코 수출품목도 종전의 완성재 위주의 소비재에서 자본재 및 원자재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러한 수출품목 구성의 변화는 수출 통계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1993년부터 소비재의 비중이 50% 이하로 하락한 데 반해 자본재와 원자재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멕시코 수출에서 차지하는 소비재의 비중은 27%에 불과한 데 반해 자본재와 원자재의 비중은 73%에 달한다.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04년 2.7%에 불과했던 시장점유율은 2009년 4.7%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3년에는 3.5%에 머물고 있다.

그림 4-2. 용도별 대멕시코 수출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검색일: 2014. 8. 1) 자료를 토대로 작성.

표 4-4. 멕시코의 대한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한국	전 세계
2004	219	0.1	5,228	2.7	-5,009	-8,811
2005	242	0.1	6,496	2.9	-6,254	-7,587
2006	458	0.2	10,621	4.1	-10,164	-6,133
2007	681	0.3	12,614	4.5	-11,933	-10,074
2008	538	0.2	13,527	4.4	-12,990	-17,261
2009	499	0.2	10,946	4.7	-10,447	-4,681
2010	929	0.3	12,731	4.2	-11,802	-3,009
2011	1,522	0.4	13,664	3.9	-12,142	-1,410
2012	1,727	0.5	13,341	3.6	-11,614	18
2013	1,525	0.4	13,493	3.5	-11,968	-1,184

자료: INEGI 홈페이지(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7, 2014) 자료를 토대로 작성.

멕시코 총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그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수출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13년 현재 0.4%에 머물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멕시코의 대한(對韓) 무역적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멕시코 정부의 공식 통계 기준으로 볼 때 무역적자 규모는 더욱 큰 상황인데, 2013년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119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멕시코의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2001년 이후 멕시코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한 총 무역적자는 1,677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규모는 1,073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은 중국, EU,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무역적자 대상국이다.

표 4-5. 멕시코의 국별 제조업 부문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미국	중국	EU-15	일본	한국	대만	소계	기타	총 무역 수지
2001	23,986	-3,406	-10,940	-7,423	-3,168	-2,830	-3,780	-7,536	-11,316
2002	31,462	-5,304	-11,269	-8,408	-3,659	-4,033	-1,211	-9,709	-10,920
2003	34,210	-8,494	-12,319	-6,939	-3,986	-2,408	63	-11,681	-11,617
2004	44,702	-12,907	-14,447	-9,777	-5,044	-3,305	-778	-15,359	-16,136
2005	51,175	-15,790	-16,247	-12,004	-6,164	-3,807	-2,837	-16,162	-18,999
2006	62,212	-21,814	-16,768	-13,938	-9,964	-4,447	-4,719	-15,934	-20,653
2007	66,822	-26,910	-17,040	-14,266	-11,475	-5,491	-8,359	-12,065	-20,424
2008	67,741	-31,519	-17,725	-14,104	-12,126	-6,085	-13,819	-8,197	-22,016
2009	63,261	-29,445	-13,351	-10,002	-9,966	-4,254	-3,758	-4,734	-8,492
2010	82,446	-41,202	-16,020	-13,233	-11,406	-5,095	-4,510	-3,367	-7,877
2011	90,800	-46,906	-18,209	-14,427	-11,773	-5,126	-5,640	-2,250	-7,890
2012	99,719	-50,735	-19,631	-15,579	-11,625	-5,647	-3,498	-2,557	-6,055
2013 1~7	60,450	-30,378	-13,264	-9,246	-7,004	-3,543	-2,985	-2,366	-5,351
2001 ~13.7	778,986	-324,810	-197,230	-149,346	-107,360	-56,071	-55,830	-111,917	-167,748

자료: INEGI 홈페이지(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7, 2014) 자료를 토대로 작성.

2. 투자

가. 투자 위상 및 추이

수출에 비해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높지 않다. 2014년 6월 말 현재(누계 기준)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9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다.

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다. 투자금액은 28억 6,018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액의 1.1%를 차지한다.

멕시코의 총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45%¹⁵⁶⁾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¹⁵⁷⁾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는 1988년 삼성전자의 티후아나(Tijuana) 생산공장 건설이 효시다. 1994년 NAFTA 발효로 미국시장 진출 생산기지로 멕시코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 여파로 주춤했던 대멕시코 투자는 2012년 이후 멕시코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에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개발 투자로 대멕시코 투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⁵⁸⁾ 그 결과 멕시코는 2013년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2004년 1~6월에는 8대 투자대상국으로까지 위상이 커졌었다.

최근 우리 대기업들의 멕시코 투자가 속속 이어지면서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투자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스코는 2011년 6월 3억 달러를 투자해 멕시코 동부 알타미라 시 인근에 자동차용 고급소재인 CGL(연속아연도금 강판) 공장을 준공했다. 2013년 1월부터는 1,800만 달러를 투자해 연간 10만 톤 규모의 자동차용 강판을 가공하는 제3코일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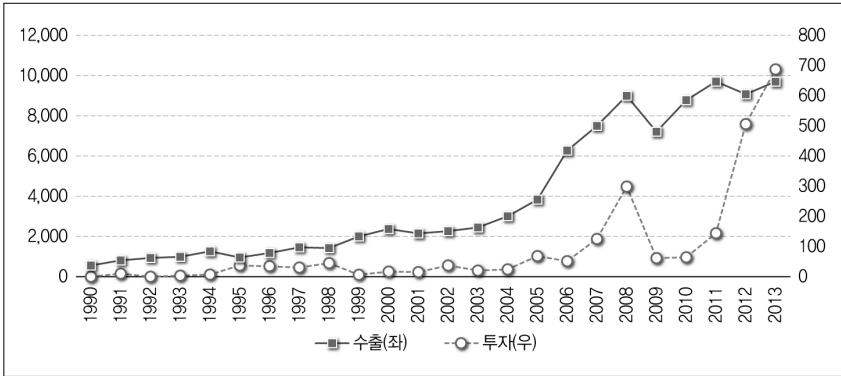
156) 1999~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멕시코 직접투자는 16억 5,900만 달러에 달한다.

157) 같은 기간 일본의 투자는 78억 9,230만 달러로 한국의 4배 이상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투자는 3억 890만 달러였다.

158) 한국광물공사는 2012년 10월 9억 3,179만 달러를 투자해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지분 70%를 획득했다.

그림 4-3.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투자 및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kr/index.jsp, 검색일: 2014. 8. 2) 및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검색일: 2014. 8. 1.) 자료를 토대로 작성.

2012년 8월에는 현대트랜스리드가 2013년 말까지 1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해 티후아나에 알루미늄 플랜트 공장을 짓기로 하고 기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은 미국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에 납품할 계획이다. 2014년 8월 27일에는 기아자동차가 10억 달러를 투자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연산 30만 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생산공장은 몬테레이 인근의 페스케리아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생산공장 건설을 결정한 이유는 저렴한 노동비용과 미국시장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이다.

나. 투자의 주요 특징

전통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는 저임노동과 특혜무역제도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는 자원개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국광물자원

표 4-6. 투자목적별 대멕시코 투자 현황(2010~14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투자 목적	신규 법인 수		투자	
	법인 수	비중	금액	비중
현지시장 진출	38	65.5	320,143	16.8
제3국 진출	1	1.7	175	0.0
저임 활용	3	5.2	10,450	0.5
자원 개발	5	8.6	1,418,075	74.4
수출 촉진	11	19.0	138,387	7.3
기타	0	0.0	50	0.0
보호무역 타개	0	0.0	19,983	1.0
총계	58	100.0	1907,264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kr/index.jsp, 검색일: 2014. 8. 2)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

공사의 볼레오 동광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는 현지 내수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기업 중 66%가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였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투자는 26%¹⁵⁹⁾에 불과했다.

기업규모별로 볼 때 대멕시코 투자는 대기업 투자 위주의 특징을 보인다. 투자금액 기준(2014년 6월 말 누계)으로 대멕시코 총투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8%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78%)을 크게 앞서는 것이다.¹⁶⁰⁾ 그러나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볼 때 상황은 다소 다르다. 멕시코에 진출한 총 224개 기업 중

159) 수출 촉진 19%, 저임 활용 5.2%, 제3국 진출 1.7%를 합한 비중.

160) 우리나라 전체 투자(2014년 6월 말 누계 기준)에서 금액기준으로 대기업 비중은 78%, 중소기업 비중은 16%이다.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대기업의 비중은 13%, 중소기업의 비중은 47%이다. 같은 기간 브라질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대기업의 비중은 95%, 중소기업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비중은 43%, 대기업 비중은 37%이다.

표 4-7. 기업규모별 대멕시코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

	진출법인 수		투자금액	
	법인 수	비중	금액	비중
대기업	70	31,3	2,540,352	88,8
중소기업	129	57,6	312,151	10,9
기타	5	11,2	2,626	0,3
총계	224	100,0	2,860,184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kr/index.jsp, 검색일: 2014. 8. 2)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

중소기업의 수는 129개로 전체의 58%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47%)을 앞서는 것이다.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멕시코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업종별 대멕시코 투자는 금액 기준으로 광업(47.6%), 제조업(32.4%), 도소매업(13.5%) 등 3대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볼 때는 제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그 뒤를 도소매업(28개), 건설업(23개)이 잇는다.

한국의 대멕시코 업종별 투자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먼저 양국의 대멕시코 투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그 비중은 84%에 달한다. 둘째,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 비중(24.3%)이 크게 높다. 셋째,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동광 개발 투자로 광업의 비중(7.8%)이 일본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멕시코 투자가 우리나라보다는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일본기업은 건설, 농림수산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수도 등의 분야에서 진출이 비교적 활발하다.

표 4-8. 업종별 대멕시코 투자 현황(2014년 6월 말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

업종	신고 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 금액	투자	
				금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15	8	2,123	561	0.0
광업	19	3	1,584,636	1,362,316	47.6
제조업	492	137	1,509,958	925,527	32.4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4	2	113,753	58,806	2.1
건설업	37	23	42,782	32,175	1.1
도매 및 소매업	72	28	452,119	385,881	13.5
운수업	7	5	3,562	2,318	0.1
숙박 및 음식점업	3	2	3,250	3,250	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4	50,013	49,953	1.7
금융 및 보험업	5	1	35,673	35,673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1	484	484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4	275	245	0.0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4	2,897	2,897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	1	263	90	0.0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1	9	9	0.0
총계	681	224	3,801,796	2,860,184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kr/index.jsp, 검색일: 2014. 8. 2)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

투자형태별로 대멕시코 투자는 신규투자가 주류를 이룬다. 1999~2014년 기준으로 전체 투자에서 신규투자의 비중은 58%에 달했다. 다음으로 기업간 거래(유자)가 40%를 차지했다. 그에 반해 재투자는 거의 전무했다. 일본 기업의 경우 신규투자가 53%로 가장 높고 재투자 27%, 기업간 거래 20% 순이다. 일본 기업과 비교해 우리 기업은 재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역별로 우리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는 바하 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 멕시코시티, 타마울리파스, 누에바 레온, 멕시코 주 등 5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경우는 우리 기업과 다소 다른 투자 분포를 보인다.

표 4-9. 한국과 일본의 업종별 대멕시코 투자 비교

(단위: %)

한국		일본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제조업	66.2	제조업	83.9
도소매업	24.3	도소매업	9.9
광업	7.8	건설업	1.4
부동산 임대	0.6	농림수산업	1.2
숙박 및 음식점업	0.4	금융 및 보험업	1.1
건설업	0.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0.5
운수업	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1	광업	0.2

주: 1999~2014년 기간 멕시코통계청(INEGI) 집계 기준.

자료: INEGI 홈페이지(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7, 2014) 자료를 토대로 작성.

5대 투자지역은 아과스칼리엔테스(Aguascalientes), 과나후아토(Guanajuato), 멕시코시티, 할리스코(Jalisco), 누에바 레온으로 멕시코시티와 누에바 레온만 겹칠 뿐 나머지 3개 지역은 다르다.

표 4-10. 투자형태별 대멕시코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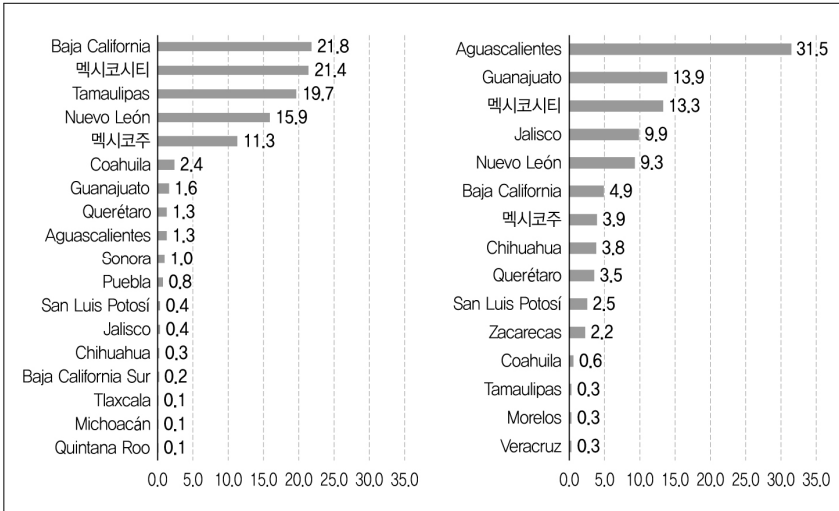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99~14
총계	46	30	51	32	57	67	97	72	91	476	76	-3	100	129	386	-48	1,659
신규투자	22	6	35	17	28	62	69	42	117	272	73	0	116	68	24	13	964
재투자	2	0	0	0	3	0	0	1	1	2	2	0	14	6	3	3	37
기업간거래	23	24	16	15	26	5	27	29	-27	202	2	-2	-30	55	358	-65	658

자료: INEGI 홈페이지(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7, 2014)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4-4. 한국과 일본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지역 비교

(단위: %)



자료: INEGI 홈페이지(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7, 2014) 자료를 토대로 작성.

다. 대멕시코 투자 실태 조사¹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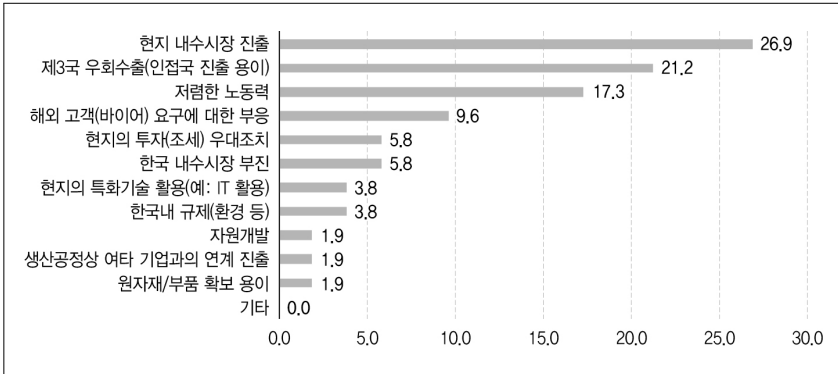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대멕시코 투자 실태를 분석한다.

먼저 우리 기업들의 대멕시코 투자 동기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지 내수시장

161) 설문조사는 2014년 8~10월에 걸쳐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멕시코에는 224개 법인이 있다. 그러나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수 가능한 기업체 리스트는 150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는 150개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인원은 33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6명, 건설 6명, 무역 및 도소매 4명, 공공기관 3명, 물류 2명, 노무인력 1명, 연구기관 1명 순이다.

그림 4-5.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 동기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진출로 조사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는 가장 큰 동기였던 미국 등 인접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 건설은 두 번째로 많았다. 낮은 인건비도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 밖에 바이어 요구에 대한 부응, 현지의 투자 우대조치, 한국의 내수시장 부진 등도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을 선택한 중요한 동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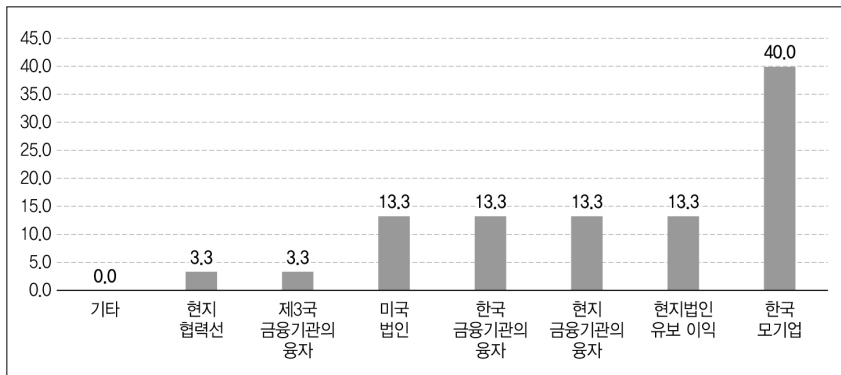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멕시코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 및 운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조사했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모기업을 통해 조달한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현지법인의 유보이익(13.3%), 현지 금융기관의 융자(13.3%), 한국 금융기관의 융자(13.3%), 미국 법인으로부터 조달(13.3%)이 동등한 순위를 차지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우리 기업들이 전체 투자 및 운영 자금 중 약 53.3%를 자체 자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미국 법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율을 합할 경우 그 비중은 66.9%에 달한다. 그에 반해 현지 금융기관의 융자나 한국 금융기관의 융자 등 외부 금융기관

을 통한 조달 비중은 미미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목했던 항목은 미국 법인을 통한 자금조달 여부였다. 멕시코의 경우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 인접해 있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법인에서 멕시코 법인을 관리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많은 멕시코 법인들이 미국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곤 한다. 이 경우 미국 법인의 멕시코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미국의 대멕시코 투자로 계상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활동에 필요한 투자 및 운영 자금 중 13.3%를 미국 법인에서 조달한다. 따라서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멕시코 실질 투자는 미국에 있는 한국 법인의 대멕시코 투자 비중(13.3%)만큼을 더해야 정확할 것이다.

세 번째로 멕시코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부자재 조달 비중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현지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약 76%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한다는 기업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나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조달 비중은

그림 4-6. 투자 및 운영 자금 조달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그림 4-7. 원부자재 조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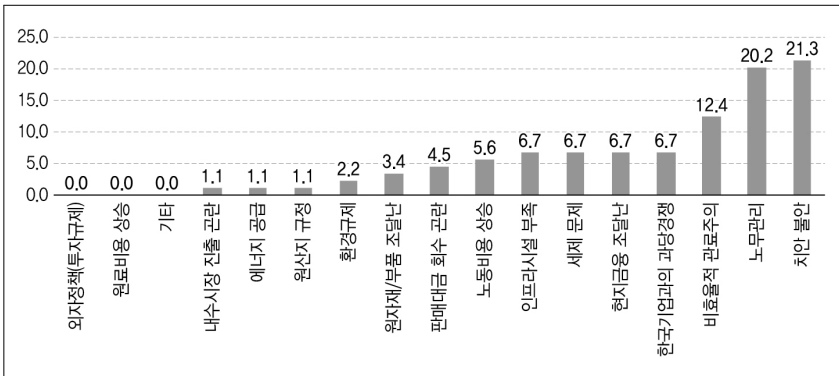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27.5%로 조사되었다. 이는 멕시코의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중간재를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번 설문에서 주목할 결과는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한다는 응답이 27.8%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기업들로부터 필요한 원부자재를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현지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 조달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원부자재는 멕시코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로부터 조달한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물었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 경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치안 불안으로 조사되었다. 과거에는 멕시코의 국경지역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었고, 내륙의 케레타로와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자동차와 전자 같은 산업공단의 건설로 외부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내륙지역에서도 치안

그림 4-8. 우리 기업이 현지 경영 시 체감하는 애로사항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이 불안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평가되었던 케레타로의 경우 최근 거주인구가 2배가량 늘면서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

치안 불안 이외에 현지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노무관리 문제, 현지의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등도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그 밖에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동종 업종간의 중복진출에 따른 경쟁심화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

2014년 3월 말 현재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는 630만 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순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멕시코 기업으로는 어린

표 4-11. 멕시코의 대한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3	누계
금액	4,066	0	269	185	292	0	1,526	6,338
건수	8	0	4	2	3	0	3	20

주: 2008년은 1997~2008년 누계 수치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검색일: 2014. 8. 20).

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로 2007년 MBC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에 진출했다. 보다 최근에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석유화학업체인 Mexichem이 울산에 공장 건설을 타진한 바 있다.¹⁶²⁾

3. 제도협력

한국과 멕시코는 1962년 수교 이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협정을 체결하고, 정부 차원의 각종 정례화된 협력위원회를 통한 대화채널을 가동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양국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민간 부문이 주축이 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한 개발경험공유 사업에 힘쓰고 있다.

가. 정부간 협정

2014년 10월 현재 한국과 멕시코 간에는 1966년 체결된 문화협정을

162)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임태균(2013), pp. 246~247.

포함하여 18개의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정치, 경제, 산업, 과학기술, 사회, 문화, 사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이들 협정 위에서 다양한 대화채널로서 각종 공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양국 정부간 협력관계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분야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다. 양국은 2002년 7월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FTA 체결 타당성 연구를 2004년 10월 ~2005년 8월에 실시하고, 2005년 9월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멕시코 산업계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FTA보다 낮은 수준의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6년 2~6월 실시된 3차에 걸친 SECA 협상은 상품 양허안 교환에도 불구하고 협상범위와 상호 관심품목의 반영 정도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비록 SECA 협상은 중단되었지만 포괄적인 FTA 협상이 상호 국익에

표 4-12. 한·멕시코 정부 간 협정 체결 현황

협정	체결일	협정	체결일
문화협정	1966. 4. 29	관광협력의정서	1996. 11. 29
무역협정	1966. 12. 12	범죄인인도조약	1996. 11. 29
사증면제 각서	1979. 3. 5.	외교관·관용 사증 면제협정	1997. 6. 27
항공협정	1988. 7. 21	투자보장협정	2000. 11. 14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1989. 11. 9	항공협정 개정/보완협정	2001. 6. 4
경제사회개발협력의정서	1991. 9. 25	과기협력 양해각서	2001. 6
과학협력약정	1991. 9. 25	세관협력 협정	2005. 9
이중과세방지협약	1994. 10. 6	형사사법 공조 조약	2007. 1
전기통신협력 양해각서	1995. 2. 24	원자력협력 협정	2012. 6. 18

자료: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2014a), “한-멕시코 정부간 협정체결 현황,” <http://mex.mofa.go.kr/korean/am/mex/policy/relation/index.jsp>, (검색일: 2014. 9. 17)

표 4-13. 한·멕시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간 주요 협력채널 현황

협력채널	체결일
양국 올림픽위원회, 체육교류 약정	1990. 5. 21
한국과학재단-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협력 양해각서	1991. 9. 25
중소기업관리공단-국가개발은행(Nafin), 중소기업협력 양해각서	1992. 2. 26
외교안보연구원-외교아카데미, 협력 약정	2000. 11. 9
문화관광부-청소년청, 청소년협력 약정	2000. 11. 9
과학기술부-외무부(국제협력원),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2001. 6. 4
자산관리공사(KAMCO)-예금보호공사(IPAB), 부실자산 정리 양해각서	2001. 7. 27
산업자원부-경제부, 광물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05. 9. 9
광업진흥공사·지질자원연구원·지질조사소, 광물자원 개발협력 양해각서	"
산업자원부-경제부,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행정자치부-공공행정부, 정부 혁신 분야 교류협력 약정	"
정보통신부-교통통신부, 디지털방송(DMB) 기술협력에 관한 행정협정	"
수출입은행-멕시코석유공사 수출금융공약(1억 5,400만 달러) 양해각서	2005. 9. 10
중소기업청-경제부, 중소기업협력 양해각서	2005. 11. 9
표준과학연구원-국가표준센터(CENAM), 상호협력 양해각서	2007. 3. 8
국회사무처-하원 사무처, 양해각서	2007. 3. 23
KOTRA-무역투자진흥청, 양해각서	2009. 12.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협력 양해각서	2010. 2. 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연구협력 양해각서	2010. 2. 18
지식경제부-에너지부, 에너지절약기업(ESCO) 사업 양해각서	2010. 7. 1
에너지관리공단-전기절약공사(FIDE), 녹색기술협력 양해각서	"
해양연구원-국영석유회사 연구소, 해양과학기술 교류협력 양해각서	2011. 2. 15
지식경제부-멕시코 경제부, 정부간 광물 분야 협력 양해각서	2011. 4. 27
광물자원공사-지질조사소(SGM) 희유금속 공동조사 양해각서	"
환경부-환경자원부, 환경협력 양해각서	2011. 12. 7
기획재정부-재무부, 경제개발경험지식공유사업(KSP) 협력 양해각서	2012. 2. 27
중소기업청-국가창업원, 중소기업협력 양해각서	2013. 9. 23
복지부-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FEPRIS) 양해각서	2014. 3
수출입은행-멕시코석유공사, 수출금융지원(3년, 20억 달러) 양해각서	2013. 10
복지부-보건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2014. 5. 20
식품의약품안전처-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FEPTIS) 양해각서	2014. 5. 27
양국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양해각서(2012. 3. 23) 갱신	2014. 7. 1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과 멕시코의 협정 체결 현황: 한국과 멕시코 기관 간 협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2923&cid=43970&categoryId=43972>, (검색일: 2014. 9. 17) 및 인터넷 자료(뉴스)를 활용해 저자 작성.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양국은 2007년 12월부터 FTA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FTA 협상은 3차 협상을 앞두고 멕시코 산업계의 거센 반발과 정치일정(총선), 경기침체 및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악재를 만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후 양국은 2012년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재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부처간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으나 아직까지 협상을 재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간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은 부처간 혹은 공공기관간에도 다양한 협력채널을 마련하고, 스포츠, 외교, 무역, 자원, IT, 중소기업, 청소년 등 전문 분야별로 협력 의제를 발굴해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양국은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협력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1987년 마산-사포판 시(市) 자매결연의정서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13개 협력채널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채널은 최근 멕시코 국가개발계획(PND)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이 강조되고, 개발프로젝트 추진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과 주도권 강화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표 4-14. 한·멕시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채널 현황

자매결연 의정서/협정	체결일	자매결연 의정서/협정	체결일
마산-사포판 의정서	1987. 6. 9	구미-멕시코칼리 협정	1998. 11. 19
서울-멕시코 시 의정서	1992. 10. 5	수원-톨루카 협정	1999. 11. 8
부산-티후아나 의정서	1995. 1. 17	충청북도-콜리마 주 협정	1999. 11. 15
경기도-멕시코 주 양해각서	1996. 5. 13	여수-케레타로 협정	2002. 9. 3
경상남도-할리스코 주 협정	1997. 3. 10	서울 서초구-멕시코시티 콰우테모크 우호 협정	2005. 5. 8
대전-과달라하라 주 협정	1997. 4. 8	인천-메리다 협정	2007. 10. 15
안양-나우칼판 협정	1997. 9. 17		

자료: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2014b), “한-멕시코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현황,” <http://mex.mofa.go.kr/korean/am/mex/policy/relation/index.jsp>. (검색일: 2014. 9. 17)

나. 민관협력채널

정부 차원에서 다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위원회로는 고위정책협의회,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무역산업협력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문화공동위원회가 있다. 먼저 정상회의를 제외할 경우 양국간의 최고 위급 협의체인 고위정책협의회는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다. 정상회의를 포함한 장관급 회의를 준비하고, 외교, 통상,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 걸친 양자 이슈와 국제정치 및 통상, 환경, 개발 등 다자 이슈에 대한 고위급의 사전 의견 교환과 협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979년 9월(뉴욕) 제1차 회의 이후 2014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개최¹⁶³⁾되었다. 2014년 9월 17일 개최된 제5차 회의의 주요 내용¹⁶⁴⁾을 살펴보면 고위정책협의회 특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제5차 고위정책협의회는 양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2009년 제4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공식적인 양국간 고위급 접촉이 실질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장 최근 개최된 제7차 회의 참석자¹⁶⁵⁾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163) 제1차 회의는 1979년 9월 뉴욕, 제2차 회의는 2000년 11월 서울, 제3차 회의는 2006년 5월 서울, 제4차 회의는 2009년 6월 멕시코시티, 제5차 회의는 2014년 9월 멕시코시티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제4차 회의에도 양국 고위급 인사의 교환 방문 실현, 한-멕시코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20에서의 공동 노력 등 양자 이슈와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회의(2009년 9월, 뉴욕) 및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12월) 등 다자 이슈가 논의되었다.

164)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13년 출범한 중견국협의회(MIKTA) 운영과정에서의 양국 역할을 평가하고 2014년 유엔총회와 병행해 개최될 제3차 MIKTA 외교장관회의 의제를 협의했다. MIKTA는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터키·호주·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결성한 협의체로 2013년 9월 출범했다. 초대 간사국인 멕시코를 이어 한국이 2014년 9월부터 간사국을 맡고 있다.

165) 한국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연구재단, KOICA, KOTRA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정상회의와 고위정책협의회 등에서 합의된 다양한 협력 이슈들을 실천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정부 각 부처 실무 차원의 회의이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1991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7회에 걸쳐 개최¹⁶⁶⁾되었다. 한·멕시코 수교 50주년을 맞아 제6차 회의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는 2008년 이후 중단된 양국 FTA 협상 재개, 양국 시장접근 이슈, 개발 원조 협력 방안, 과학·기술 분야 협력,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셋째, 민간합동 협력채널인 ‘한·멕시코 무역산업협력위원회’는 1997년에 설치되었지만 한국의 무역과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멕시코 경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1차 회의 이후 중단되었다. 2002년 APEC 에너지 장관회의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멕시코 경제부의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한-멕시코 무역산업협력위원회 회의를 매년 1회 정례화하고, 통상현안 및 산업, 기술, 자원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실현되지 않다가 2005년 한-멕시코 정상회의 때 자원협력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한·멕시코 자원협력위원회’는 2006년 6월(멕시코시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에너지·자원 공동개발 및 교역확대, 기술 및 인적 교류 추진 등을 논의하였고, 이후 2013년까지 두 차례(2011년 4월, 2013년 10월) 더 회의를 개최했다.¹⁶⁷⁾ 자원협력위원회¹⁶⁸⁾는 자원개발 및

등 관련 부처·기관 담당관 10여 명이, 멕시코는 외교부, 국제개발협력단, 경제부, 과학부, 에너지부, 무역투자진흥공사(ProMexico) 등에서 담당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166) 제1차 회의는 1991년 4월 멕시코시티, 제2차 회의는 1992년 10월 서울, 제3차 회의는 1994년 2월 멕시코시티, 제4차 회의는 1996년 3월 서울, 제5차 회의는 2000년 5월 멕시코시티, 제6차 회의는 2002년 7월 서울, 제7차 회의는 2012년 11월 멕시코시티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멕시코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양국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 자원개발과 투자를 본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채널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한국과 멕시코는 2014년 3월 30일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연내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경제협력위원회는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멕시코 재무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례 협의체로 운영될 계획인데, 경제, 산업, 금융, 건설·교통, 에너지, 교육, 정보·통신, 해양, 농림수산, 환경 등 다분야에서의 의제 발굴을 목표로 설정했다.¹⁶⁹⁾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무역산업협력위원회 등 기존 협력채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이유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휘 및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양국이 보유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동반성장 성과를 달

167) 자원협력위원회 회의는 제2차 회의에서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으나 멕시코의 소극적인 자세로 성사되지 못했다. 멕시코 측의 방한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3차 회의는 연기되다가 2013년 10월 한국 측의 멕시코 방문 때 소관부처 차관 및 국장을 면담하는 형식을 통해 개최했다.

168) 우리 정부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를 비롯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와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169) 기획재정부(2014. 3. 31),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설치…KSP 적극 공유,” http://www.mosf.go.kr/policy/policy06.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ory=131&hdnFlag=1&cat=&hdnDiv=&select=subject&keyword=%EB%A9%95%EC%8B%9C%EC%BD%94&hdnSubject=%EB%A9%95%EC%8B%9C%EC%BD%94&date_start=2014-03-10&date_end=2014-09-19&&actionType=view&runno=4090271&hdnTopicDate=2014-03-31&hdnPage=1. (검색일: 2014. 9. 19)

성하는 수단으로 최고위급 협의체인 경제협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실질적인 이유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멕시코와 같은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과 멕시코는 2005년 9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협력방안으로 ‘한·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를 설치했다.¹⁷⁰⁾ 2006년 2월 제1차 회의에서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대멕시코 무역 및 투자 진출 촉진과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멕시코에 수출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중소기업지원센터(KDBC)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2007년 9월 개최된 제2차 위원회에서는 KBDC 개설¹⁷¹⁾과 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협력관 상호 파견 등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멕시코 측 사정으로 중단되다가 2013년 국가창업원 설립을 계기로 재구성하기로 하고, 2014년 11월에 새로 구성된 ‘한·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될 예

170) 2005년 11월 중소기업청과 멕시코 경제부 간에 체결된 ‘중소기업협력 MOU’에 기초하여 설치·운영되다가 두 차례 회의 이후 중단되었다. 2013년 멕시코에서 국가창업원이 탄생하면서 9월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멕시코 중소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한·멕시코 글로벌 창업 협력과 더불어 한·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 재구성 의제를 논의했다.

171) 2008년 3월 개설된 멕시코시티 수출인큐베이터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제조업 및 수출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수출지원뿐만 아니라 투자 및 기술교류 지원, 현지 합작파트너 알선 등 현지 진출 지원 창구로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는 KOTRA 무역관, 수출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현지 마케팅전문가 및 회계·법률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개별 사무실을 저비용으로 임차하며, 공동회의실 이용과 현지체류를 위한 조기정착 행정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2014), “수출인큐베이터,” <http://www.sbc.or.kr/sbc/business/market/exhibition/center.jsp>. (검색일: 2014. 9. 19)

표 4-15. 한·멕시코 민간 부문 간 주요 협력채널 현황

협력채널(양해각서)	체결일
플랜트산업협회-멕시코건설협회, 플랜트·건설협력	2005. 9. 9
한국철강협회-멕시코철강협회, 철강 부문 협력	2005. 9. 20
벤처기업협회-전자통신IT산업협회, 상호협력	2008. 2. 28
전기산업진흥회-전기산업유통협회(CONACOMEE), 기술정보교류협력	2008. 10
섬유산업연합회-의류산업협회(CNIV), 섬유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2010. 10. 6
금융투자협회-멕시코 증권협회, 증권산업 및 시장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2014. 6. 23
영화진흥위원회-멕시코 영화진흥청, 영화교류협력	2014. 8. 27

자료: 저자 작성.

정이다.

여섯째, 양국은 문화, 예술, 교육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통한 상호협력 관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멕시코 문화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공동위원회는 1996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다섯 차례 개최되었는데, 최근 한류에 바탕을 둔 종합예술,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문화상품의 멕시코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도 한층 제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민간 부문에서 공식화된 협력채널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멕시코기업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있다. 그 밖에 ‘한·멕시코 21세기위원회’¹⁷²⁾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며, 협회, 개별 기업, 대학들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협력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172) 2001년 6월 비센테 폭스(Vicente Fox) 멕시코 전 대통령의 방한 시에 양국 정상간의 합의로 출범한 민간포럼인 ‘한-멕시코 21세기위원회’는 양국의 주요 기업인과 학자들이 참여하여 2004년까지 활동했다. FTA 체결 문제를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정보통신(IT) 협력 등 양국간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 관심사와 청소년, 교육, 문화교류 촉진 방안을 포함한 양국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4. 경제협력 평가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는 2000년대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제조업 부흥과 성공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은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러시를 이루면서 양국간 관계는 한층 긴밀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한·멕시코 간 경제관계가 질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을 토대로 무역, 투자 및 제도협력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가. 무역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은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번째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외견상 보이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는 1.7%에 그치고 있다.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수출구조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점이다. 2013년

기준으로 10대 수출 품목의 비중이 74%에 달한다. 특히 평판디스플레이(20.2%, 2013년 총수출 대비) 및 영상기기(12%) 등 2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32%에 달한다. 수출시장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수출구조다. 수출구조상의 또 다른 문제점은 소비재 등 완성재의 수출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출비중은 73%에 달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미국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중심의 수출품목 확대가 필요하다.

양국간 무역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크다는 점이다. 한국의 무역통계로 2013년 대멕시코 무역흑자는 74억 달러에 달하지만 멕시코 무역통계로는 119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따라서 멕시코와의 지속적인 무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심각한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투자

2014년 6월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높지 않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9대 투자대상국으로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에 고무되어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2013년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으며 2014년 1~6월에는 8대 투자대상국으로 커졌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10억 달러 투자 발표

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는 다음의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우리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는 여전히 미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 건설에 집중되고 있다. 중남미시장 진출 기지로서 멕시코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만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반해 일본 업체들은 브라질 등 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멕시코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멕시코를 포함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경제통합체의 발전도 남미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멕시코 시장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이다.

둘째, 우리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지만 멕시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R&D 투자는 고사하고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원부자재 조달도 미미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기업들은 필요한 원부자재의 7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 현지에서 조달하는 나머지 30%도 거의 현지 진출 한국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 이는 우리 기업의 양적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치안 불안이다. 치안 문제가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치안 불안에 따른 기업인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현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 투자가 멕시코 투자의 과반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멕시코의 경우 금액기준으로는 대기업의 투자가 절대적인 비중(88%)을 차지하나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전체 투자의 58%(129개)를 넘는다. 중남미 지역 중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국가다.

다섯째,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시장 진출 시 투자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필요한 투자 및 운영 자금을 충당한다. 현지 금융기관이나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양국간의 투자관계가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는 아직까지 매우 미미하다.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멕시코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부족도 크지만 우리 측에서도 멕시코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 잠재력이 있는 멕시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한국 투자 유치를 위한 조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는 현재 양국간 가장 큰 통상현안인 무역역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도 의미가 크다. 멕시코 기업의 한국 투자가 증가할 경우 멕시코 상품의 대한국 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 제도협력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간 한국과 멕시코 간에 구축된 제도적 협력기반은 각종 협력협정에서부터 실무협의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부문간 협력채널도 다분야에 걸쳐 마련되어 분야별 협력 의제 발굴 및 논의, 정책 실행에 기초가 되고 있다. 교역 및 투자 증진, 플랜트 및 인프라건설 사업 수주, IT협력센터, 중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 KSP 사업¹⁷³⁾ 등이 다양한 협력채널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성과들이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인 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한·멕시코 경제협력 위원회가 신설되어 양국간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한 점은 합의된 제도협력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항공협

173)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2004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지식공유 허브인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협력대상국과 공유하면서 지식격차를 줄이고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으로는 한국개발원(KDI)의 국가정책자문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경제발전경험 모델화사업,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2012년 2월 27일 체결된 ‘KSP 협력 MOU’를 기반으로 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성공적인 협력모델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현지 정책협의를 통해 멕시코 측이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자문 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멕시코 KSP 사업으로는 2012년에 이달고 주의 ‘기계부품산업의 진흥과 기술인력개발 및 산학연계 증진’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자문을 진행했고, 2013년에는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CETAI 발전방안 수립(케레타로)’, ‘금속부품산업 중소기업의 혁신제고를 통한 공공지원역량 강화(치와와)’, ‘TESCO의 산학연계 교육시스템 개선 및 확대(멕시코)’, ‘알티플라노 신산업단지 계획 및 제도의 개선(이달고)’ 등 4개 주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멕시코 노동시스템 개선 지원’ 공동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홈페이지 (2014), <http://www.ksp.go.kr>. (검색일: 2014. 9. 21) ; 한국수출입은행(2014), “(KSP 공동컨설팅) ‘멕시코 노동시스템 개선 지원’ 사업 입찰공고,”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 (검색일: 2014. 9. 21)

정의 경우 양국간 직항로 개설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화물항공서비스만 활용될 뿐 여객수송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¹⁷⁴⁾ 앞으로 여객운송용 직항로 개설은 양국이 우선협력 분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다음으로는 대화협력채널로 개설된 각종 공동위원회가 양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례화되지 않고 있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이다. 따라서 양측은 어렵게 구축된 대화채널을 정상화하고 그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협력위원회 활성화 계획과 기획재정부의 경제협력위원회 출범은 이러한 노력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9월 10일 ‘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바탕으로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¹⁷⁵⁾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인 ‘자원부국,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및 내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멕시코가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어 멕시코와의 자원협력위원회 활성화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제협력을 위한 자본과 인적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요

174) 2010년 4월 개최된 양국 항공회담에서 인천~시애틀~멕시코시티를 연결하는 직항로를 개설하여 주 3회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75)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법정 계획이다.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양적 성장에 치중한 질적 성장 소홀, 공기업 투자확대 대비 민간 부문의 상대적 부진 등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는 동시에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과 지속가능성 제고, 높은 시장성을 지닌 분야 중심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해외자원개발 기술역량 제고 △장기적 에너지 안보역량 강화 △공기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자원부국,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등이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투데이에너지(2014. 9. 10), “자원개발 추진방향 결정.”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95811>. (검색일: 2014. 9. 19)

협력 주체간의 경쟁력은 협력 재원의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한·멕시코 간 경제협력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2014년 신설된 양국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2.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한·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과 멕시코 간의 경제협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4장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의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한다. 여기서 내·외부적인 경제협력 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SWOT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 여건과 협력 수요(니즈)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 현 멕시코 정부의 개혁정책의 실효성과 개혁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전망, 멕시코 진출 기업 및 멕시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멕시코 경제환경(기회요인과 위협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멕시코의 협력 수요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한·멕시코 간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정부 및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멕시코 경제협력 역량을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

석을 토대로 SWOT Matrix 기법을 통해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력 전략을 도출했다.¹⁷⁶⁾

가. 외부환경 분석: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거나 멕시코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할 때 직면하는 환경 중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멕시코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환경을 외부환경이라고 정의한다. 외부환경은 다시 우리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Opportunity)과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향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Threat)으로 구분된다.

설문조사에서는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응답자가 1~5 사이의 정수 값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기회요인의 경우 해당 항목이 응답자가 판단할 때 전혀 기회요인이 되지 않는다면 ‘1’을, 가장 큰 기회요인이라고 판단되면 ‘5’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 각 질문에 대한 응답 항목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고,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항목은 핵심적 기회요인 또는 핵심적 위협요인으로 구분하여 향후 협력전략 도출 시 사용하였다.

1)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

제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최근 멕시코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과 근접하여 물류비용이 낮다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176) 강유덕 외(2012), pp. 148~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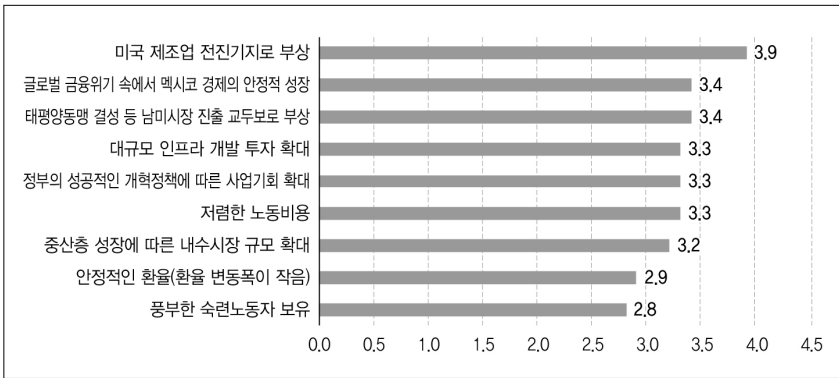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의 커다란 임금 격차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완만한 임금 증가세로 중국과의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든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전략으로 북미시장에 인접한 지리적 강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대미 제조업 전진기지로의 부상’을 멕시코 시장의 가장 큰 기회요인으로 평가한다.

멕시코는 튼실한 경제펀더멘털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신흥시장 중에서 환율 변동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경제적 안정성을 멕시코 경제의 또 다른 기회요인으로 평가한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도 멕시코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2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 공업국인 브라질과 비교해 노동비용이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 2대 경제통합체인 태평양동맹의 중심국이다.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해 일본 기업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기업들이 이미 멕시코를 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니에토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정책(PNI, 국가인프라개발계획)에 힘입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 성공적인 개혁정책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기회 확대도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로 조사되었다. 3장의 분석 결과, 특히 에너지시장의 개방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사업기회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¹⁷⁷⁾ 석유시장 개방으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채굴·생산, 해상 플랫폼과 시추선·수송선 건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정유 및 석유

그림 5-1.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¹⁷⁸⁾



주: 1은 '전혀 기회요인이 아니다', 5는 '가장 큰 기회요인이다'.

화학 플랜트 분야에서 사업기회가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시장 개방으로는 수력 및 가스복합화력발전 플랜트, 송배전망 사업 참여가 유망할 전망이다.

노동비용이 낮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멕시코 경제의 강점으로 거론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멕시코는 중국 등 다른 경쟁국에 비해 완만한 임금 증가세에 힘입어 노동비용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PWC는 2030년까지 멕시코의 임금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같은 임금 경쟁력을 반영해 보스턴컨설팅그룹(2014)은 미국과 더불어 멕시코를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조업 국가로 평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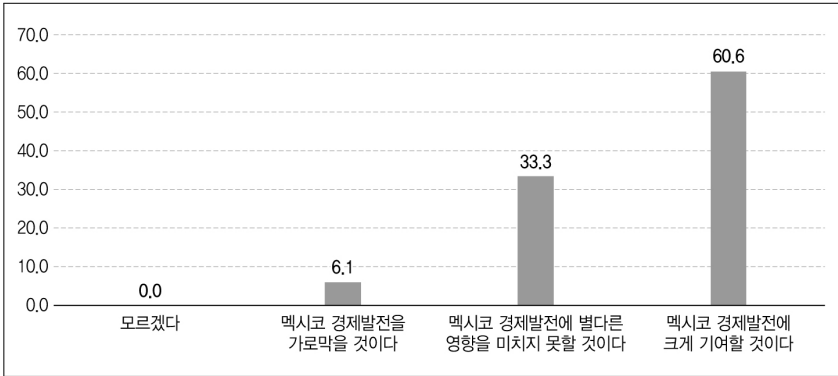
이 밖에도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구조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내에서의 경영환경

17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5장 2절 참조.

178) 전체 응답항목의 평균점수는 3.3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목은 상위 6개 항목이다.

그림 5-2. 개혁이 경제에 미칠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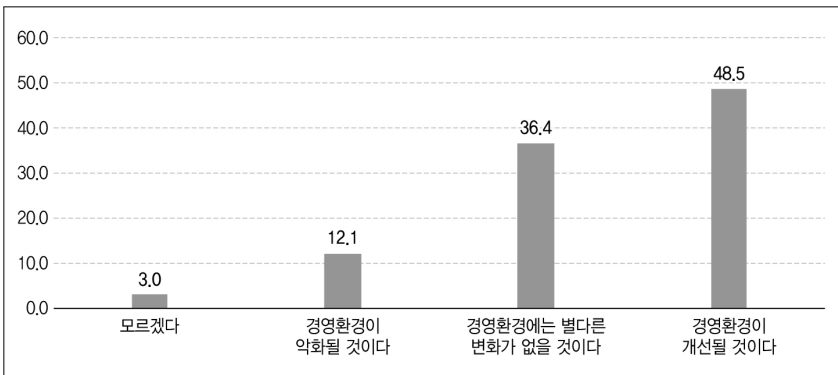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특히 개혁정책의 결과,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숙련노동력의 증가로 전문인력의 활용이 용이하며, 투자진출도 확대되고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5-3. 개혁이 기업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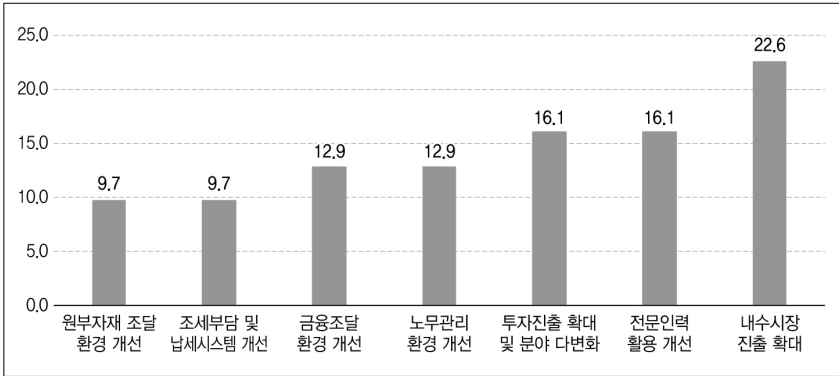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그림 5-4. 멕시코 정부의 개혁이 기업의 경영에 미칠 긍정적 영향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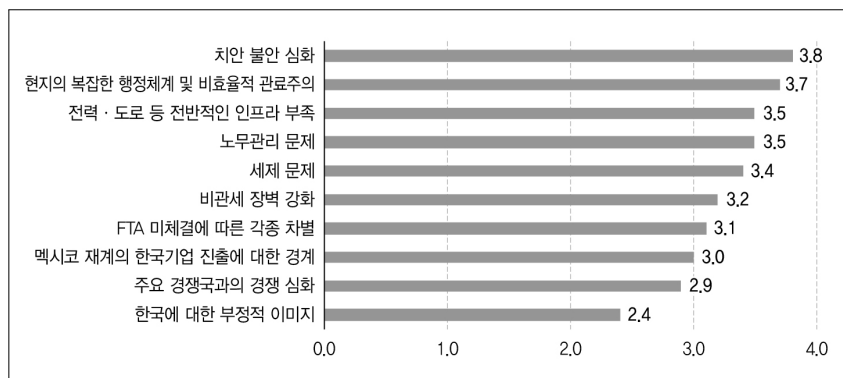
실제로 이번 구조개혁으로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표적으로 EIU는 이번 개혁성공에 힘입어 1~2%포인트의 추가적인 성장 효과가 발생해 향후 멕시코 경제가 4~5%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멕시코 정부도 개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멕시코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에너지 개혁(1%포인트), 통신 개혁(0.5%포인트), 재정·세제 개혁(0.3%포인트), 노동 개혁(0.1%포인트) 등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1.9%포인트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¹⁷⁹⁾ 특히 이번 멕시코의 구조개혁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의 경영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79) Alejandro Garcia(2014), Mexico, Seminario de los Expertos Coreanos en los Asuntos Economicos-Comerciales para America Latina y el Caibe. KCLAC, Octubre 8, 2014. p. 10.

2) 멕시코 시장의 위협요인

최근 멕시코 시장의 환경 변화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협요소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물음에 많은 기업들이 치안 불안을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멕시코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치안안정과 마약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폭력조직 간의 대치로 인해 치안 불안이 오히려 심각해지는 결과만을 낳았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의 복잡한 행정체계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전력과 도로 등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 노무관리, 세제 문제도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무시하지 못할 위협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5-5. 멕시코 시장의 위협요인¹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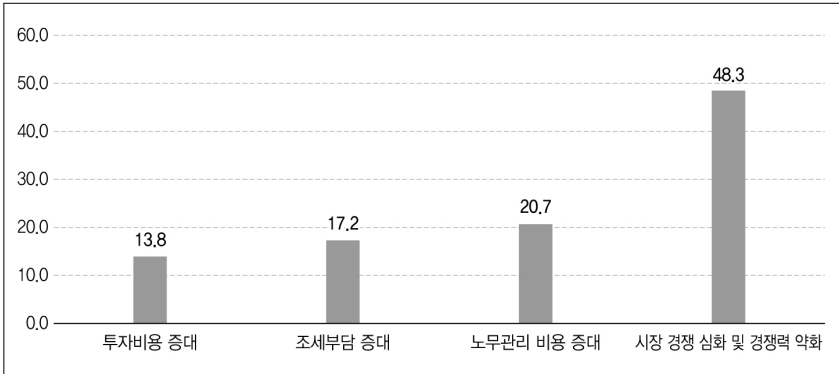
주: 1은 '전혀 위협요인이 아니다', 5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180) 위협요인으로 제시한 모든 항목의 평균 평가 점수는 3.3점인데,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은 위협요인은 앞서 언급한 상위 5개 항목이다.

그림 5-6. 멕시코 정부의 개혁이 우리 기업의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그에 반해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되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 재계의 한국기업 진출에 대한 경계도 아직까지는 커다란 위협요인이 아닌 것으로 우리 기업들은 평가했다.

이번 설문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아직까지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를 위협요소로 여기고 있지 않지만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개혁정책의 결과로 멕시코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일련의 구조개혁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개혁으로 인해 노무관리 비용이 증대되고 세제개혁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나. 내부환경 분석: 한국(정부 및 기업)의 강점과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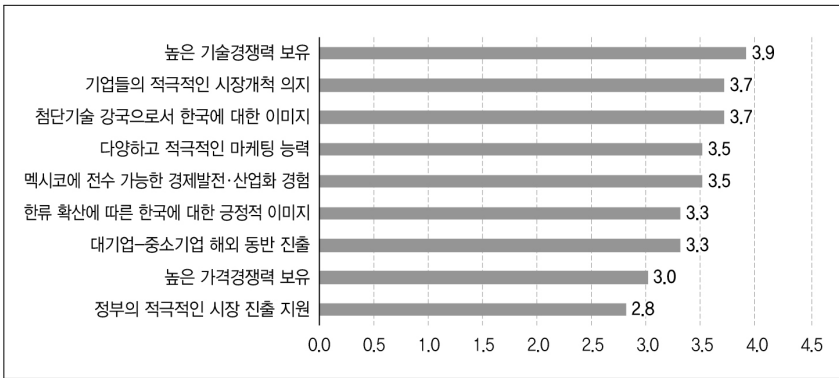
멕시코 시장을 진출하는 우리 기업, 그리고 멕시코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를 행동의 주체라고 했을 때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가진 역량과 자원은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가진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요인을 내부환경이라 정의한다.

여기서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강점을 파악하였다. 우선 우리 기업의 강점은 높은 기술경쟁력,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신시장 개척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의 강점은 기업의 강점과 유사하게 첨단기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와 한국이 가진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경험을 멕시코에 전수해줄 수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니에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교육 및 과학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해 우리 정부는 2012년부터 멕시코와 지식공유사업(KSP)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술인력 개발, 중소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 문화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낮고 교류가 부진한 점을 가장 큰 약점으로 보았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다. 양국간의 교류 부족은 한국은 물론 멕시코에서 양국의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K-Pop 등 한류로 일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

그림 5-7. 멕시코 진출 시 우리 기업 또는 정부의 강점¹⁸²⁾



주: 1은 '전혀 강점이 아니다', 5는 '가장 큰 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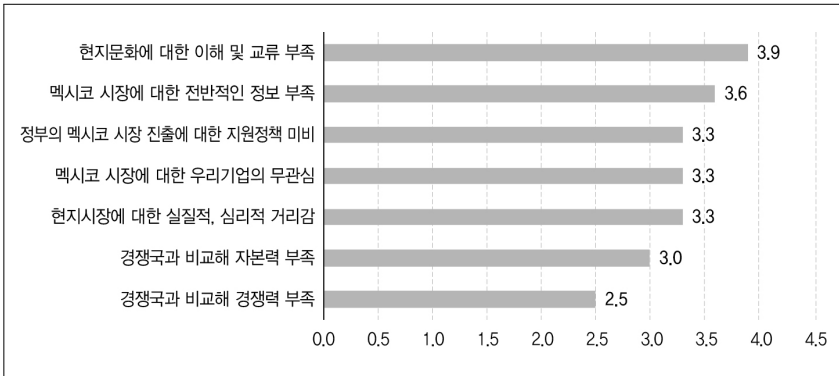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나 여전히 한국은 낯선 나라다. 필자가 멕시코에서 만난 아시아 전문가인 레이 로페스(Sergio Ley-Lopez) 멕시코 국제문제이사회(COMEXI) 부이사장은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로 양국이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협력, 학생간 교류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¹⁸¹⁾ 멕시코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심각한 약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정보의 부족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욱 심각하게 직면하는 어려움이었다. 기업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우리 정부는 기업의 진출 지원 및 시장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의 지원 정책을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멕시코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무관심도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여전히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 시

181) 2014년 8월 26일 멕시코시티에서 인터뷰.

182) 강점요인으로 제시한 항목들은 평균적으로 3.4의 점수를 받았는데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항목은 위에서 언급한 상위 5개 항목이다.

그림 5-8. 멕시코 진출 시 우리 기업 또는 정부의 약점¹⁸³⁾



주: 1은 '전혀 약점이 아니다', 5는 '가장 심각한 약점이다'.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장의 잠재력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 밖에 원거리, 직항노선 부재 등에 따른 멕시코 시장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도 무시하지 못할 약점으로 파악되었다.

다. 한국·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평가하는 설문에서 각 질문에 대해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은 항목을 핵심기회요인(O), 핵심위협요인(T), 핵심강점(S), 핵심약점(W)이라 정한다. 멕시코 시장의 핵심기회요인과 핵심위협요인은 협력 대상국으로 멕시코가 가지는 협력 여건과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는 요인이며, 한국 기업과 정부의 핵심 강점과 핵심 약점은 우리의 협력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들 핵심요인간의 결합, 즉 양국간 협력

183) 설문에서 약점 요인으로 제시한 항목은 평균 3.3의 점수를 받았는데,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항목은 언급한 상위 5개 항목이다.

수요와 역량을 조합하여 한·멕시코 간 경제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이나 한국 정부의 정부간 협력 시 직면할 수 있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우리의 강점 및 약점과 조합하는 SWOT Matrix를 만들어 각 조합에 따른 협력전략을 도출한다.

1) S-O 전략: 융합형 협력전략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S-O 전략은 한국의 강점을 이용하여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국가간 경제협력에서 S-O 전략은 협력의 목표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보통 기본전략 혹은 장기비전으로 설정되곤 한다.¹⁸⁴⁾ 특히 이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융합형 협력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의 높은 기술우위와 제조업 전진기지로서 멕시코가 갖고 있는 장점 및 FTA 네트워크의 이점을 융합해 북미시장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둘째, 역으로 멕시코 기업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 및 FTA 네트워크와 멕시코 다국적기업(multilatinas)의 자본력과 기술을 융합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셋째, 양국은 멕시코가 중미·카리브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

184) 강유덕 외(2012), p. 157.

를 융합해 인근 국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각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협력 파트너로서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항공우주산업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브라질과 더불어 항공기산업이 가장 발전한 국가다.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 메이저 항공기업체들의 진출이 속속 이루어지면서 항공기 부품 및 조립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결과, 항공기부품 산업은 물론 관련 인력육성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 S-T 전략: 상생형 협력전략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한국의 강점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위협요인을 줄여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상생형 협력전략’이라 할 수 있다.¹⁸⁵⁾ 즉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통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된 데 반해 부품소재나 연관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ies)에서 토종 기업의 발전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발전전략 수립, 발전경험 전수(KSP), 기술이전 등을 통해 멕시코의 연관지원산업이나 부품소재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면 멕시코 제조업의 고민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185) 강유덕 외(2012), p. 159.

를 거둘 수 있다.

현재 멕시코 경제발전을 위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창발적인 협력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먼저 양국간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수요를 발굴하는 채널로 양국의 주요 대학교 및 연구소 CEO로 구성된 ‘교육 및 혁신 서밋(Korea-Mexico Education and Innovation Summit)’ 개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 차세대 지도자인 대학생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일종의 장학사업으로 ‘한·멕시코 21세기 프린티어 프로그램’을 설립해 운영할 필요도 있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멕시코 정부의 숙련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 및 기업, 멕시코 정부와 공동으로 직업훈련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멕시코와의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멕시코 상품전 개최, 수입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멕시코산 제품의 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무역불균형이 완화된다면 멕시코 재계나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감이나 불신도 크게 줄어 FTA 협상 재개나 원만한 TPP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3) W-O 전략: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 전략

멕시코의 기회요인과 한국의 약점의 결합(W-O)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전략이다. 이는 멕시코 시장이 제공하는 커다란 기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내부적 약점 때문에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협력전략이다.¹⁸⁶⁾

이 전략의 초점은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맞출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본력, 전문인력,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어 멕시코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 그에 반해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3무(정보, 자본, 인력)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지원은 물론 국내외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인큐베이터의 역할 확대,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혁신센터 신설,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멕시코 중소기업포럼 운영 등 제도적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

4) W-T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멕시코의 위협요인과 한국의 약점의 조합(W-T)은 한국의 약점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멕시코 시장의 위협요인을 회피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이 전략은 다른 전략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민간 주도보다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¹⁸⁷⁾

186) 강유덕 외(2012), p. 158.

187) 강유덕 외(2012), p. 161.

W-T 전략에서는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정부간 각종 위원회 구축을 들 수 있다. 현재 멕시코와는 경제공동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간 협의체가 존재한다. 문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체계적인 의제 발굴 부재로 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규 협의체를 신설하기보다는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의제 발굴 등을 통해 기존 협의체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4년 새롭게 출범한 한·멕시코 재무장관급 회의체인 경제협력위원회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컨트롤타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 경영활동 과정에서 수시로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멕시코 정부와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설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멕시코와 일본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일-멕시코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멕시코 한국상공회의소(Kocham)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도 필요하다.

셋째,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최상의 제도적 인프라는 FTA 체결이다. 그러나 현재 FTA 협상은 2008년부터 멕시코 측의 협상 중단 선언으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무역역조가 심한 상황에서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행히도 최근 우리 정부가 TPP 가입을 선언하면서 멕시코와의 FTA 체결 가능성이 열렸다. 우리 정부는 본격적인 TPP 협상 시 멕시코 측의 반대 입장을 무마하기 위해서

표 5-1. 한·멕시코 경제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매트릭스(Matrix)

		한국 기업 또는 한국 정부	
		강점(S)	약점(W)
		1. 높은 기술 경쟁력 2.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3.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4. 마케팅 능력 5.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	1.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2. 시장 정보 부족 3. 정부의 지원 부족 4.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5. 실질·심리적 거리감
멕시코 시장	기회 (O)	1.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화 2.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3.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4. 저렴한 노동비용 5. 자동차, 전기, 항공 등 분야의 클러스터 발전 6. 제조업 생산성 향상 7. 개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8. 전문인력 활용 개선 9.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S-O 협력전략 (융합형 협력전략) 1. 미주시장 진출 생산기지로 활용 2. 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을 위해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3. 삼각협력: 멕시코와 공동으로 인근 중미·카리브 지역 개발협력 사업 지원 4. 상호 발전된 산업 분야에서 협력: 항공기 산업
	위협 (T)	S-T 협력전략 (상생형 협력전략) 1. 부품소재산업이나 연관 지원산업 발전 지원 2. 산업기술 협력 3. KSP 사업 확대 4. 무역역조 개선 5.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6. 숙련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원 설립 7. 양국 대학생 및 연구자 교류 확대	W-O 협력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1.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2. 수출인큐베이터의 역할 확대 3. 기술혁신센터 신설 4. 한·멕시코 중소기업 포럼 운영 W-T 협력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1. 정부간 위원회 활성화 2. 애로사항 해결 협의체 설립 운영: 비즈니스환경개선위원회 3. 한·멕시코상공회의소 역할 및 기능 강화 4. FTA 혹은 TPP 신속 체결 5. 직항노선 개설

자료: 저자 작성.

라도 멕시코 측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우호적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거리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직항노선 개설도 시급하다.

2.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융합협력 방안

1) 미주지역 생산거점으로 활용

전통적으로 멕시코는 북미시장, 특히 미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높았다. 최근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도 실상은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제조업 르네상스에 기댄 측면이 크다.

그러나 최근 들어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남미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 확대,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탄탄한 제조업 기반 구축, 낮은 노동비용 등에 힘입어 멕시코가 남미를 포괄하는 미주지역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노동비용 측면에서 멕시코는 다른 주요 중남미 국가와 비교할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저렴하고, 칠레와 콜롬비아의 절반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멕시코의 절반인 페루와 같은 수준이다. 또한 멕시코는 일부 우리 기업들의 우려와는 달리 태평양과 대서양에 현대

적인 컨테이너항을 모두 갖추고 있어 남미 국가로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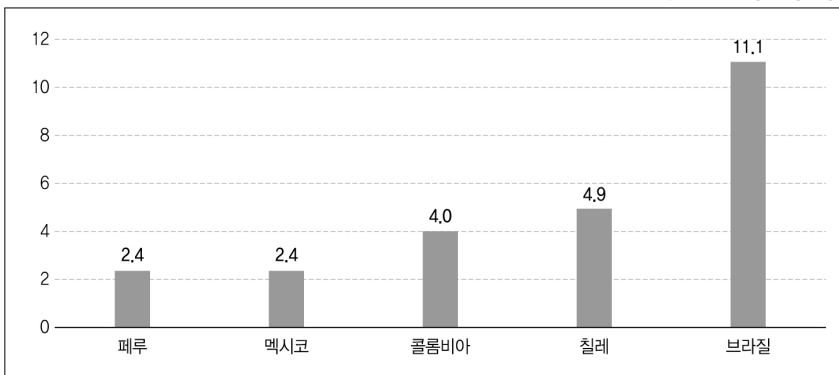
최근 멕시코의 대중남미 수출 급증세는 이 같은 변화를 입증하는 좋은 예다. 지난 10년간(2001~12년) 멕시코의 연평균 대중남미 수출 증가세(12.9%)는 대미 및 대세계 수출 증가세를 2배 이상 앞질렀다. 대중남미 수출품도 승용차, 컬러TV, 자동차 부품, 휴대전화, 컴퓨터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멕시코 시장을 북미시장 진출기지로써뿐만 아니라 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를 포괄하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빠르게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제조업 전진기지로 멕시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를 미주지역 생산기지로 활용하기에 유망한 산업으로는 가전, 컴퓨터 및 전자, 플라스틱·고무, 금속기계, 수송장비, 가구, 전자장비, 의

그림 5-9. 중남미 주요국의 노동비용 비교(2013년 기준)

(단위: 시간당 노동비용)



자료: EIU Viewswire(viewswire.eiu.com/index.asp?layout=VWCountryVW3®ion_id=&country_id=1520000152, accessed September 3, 2014).

류장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산업은 멕시코의 대표적인 민간경제연구소인 CIDAC이 중국과 멕시코의 제조업 경쟁력을 비교해 2000년대 초반 저렴한 생산비용을 겨냥해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한 제조업 부문 중 멕시코로 회귀(reshoring) 가능한 산업 부문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¹⁸⁸⁾

2)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韓國) 투자 유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관계는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향후 양국간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멕시코 기업의 투자 유치는 현재 양국간 가장 큰 현안인 멕시코의 대한국 무역역조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권기수 외(2013)¹⁸⁹⁾는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기업의 대한국 투자가 부진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중남미 기업들의 국제화 수준이 낮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까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남미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확보를 위한 것인데, 시장규모 면에서 중국과 일본에 끼여 있는 한국은 중남미 기업들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중남미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188) CIDAC(2014), “Reshoring Mexico 2014: Indice de Capacidad de Atracción de Inversión Manufacturera.”

189) 권기수 외(2013), pp. 247~248.

그러나 최근 들어 멕시코와 아시아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멕시코에서는 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직까지 크지는 않지만 많은 멕시코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시장 개척이다. 전체 응답기업의 38.9%가 새로운 시장 발굴을 가장 큰 진출 동기로 지목했다. 그 밖에 기술확보 및 R&D(22.2%)도 중요한 진출 동기로 밝혀졌다.

멕시코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 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였다. 이는 전체 응답기업의 33.3%에 달했다. 그 밖에 합작투자(22.2%), 수출(18.5%), 신규투자(11.1%)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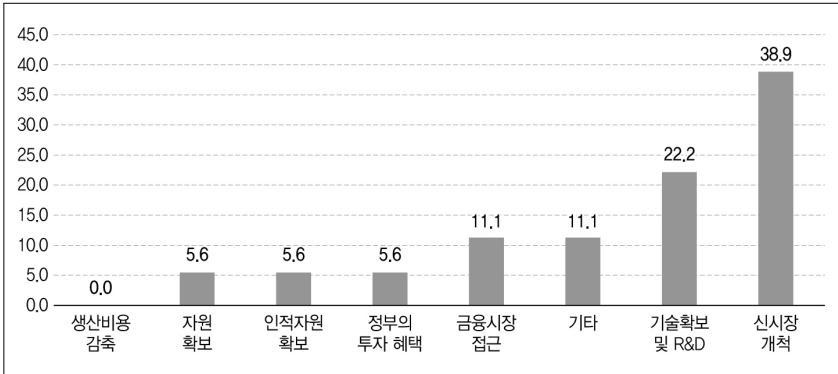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시장을 포함한 아시아시장 진출에 멕시코 기업들의 관심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전개할 경우 멕시코 기업의 한국 유치가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권기수 외(2013)¹⁹⁰⁾는 멕시코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Invest Korea 내에 Latin America Desk나 Multilatinas Desk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Invest Korea는 지금까지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유일

190) 권기수 외(2013), pp. 248~255.

그림 5-10. 멕시코 기업의 아시아시장 진출 동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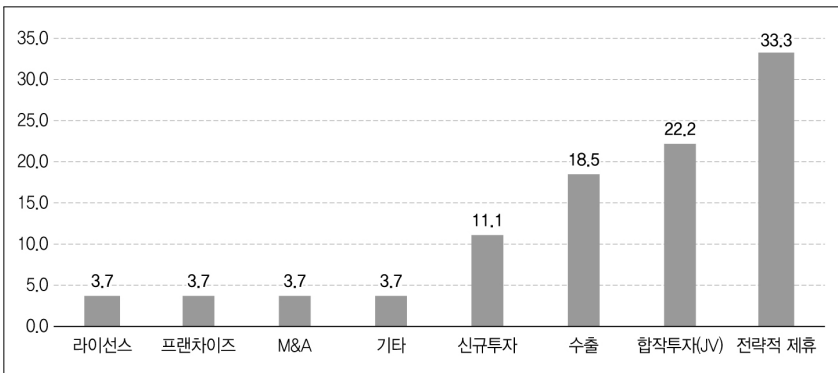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하게 브라질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IR을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브라질과 더불어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국인 멕시코와도 IR 개척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협력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등 양국 정부간 회의 시에도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를 의제로

그림 5-11. 멕시코 기업의 아시아시장 진입 방식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상정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기업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정보 제공 등 한국에 대한 정보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및 중국시장 진출의 허브로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일례로 중국 자본의 대한국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멕시코-한국-중국 3자 간 합작투자를 통해 멕시코산 농산물을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후 중국 및 동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삼각협력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한·멕시코 삼각협력 추진

브라질과 더불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리더국가인 멕시코는 역내를 물론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발협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OECD 회원국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멕시코는 공여국인 동시에 수혜국의 위치에 있다. 멕시코 국내의 불안한 치안과 경제상황,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수혜국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에는 개발협력 확대로 중남미에서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교육, 농업, 환경폐기물 처리, 특정지역(미개발지역)의 인프라 구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훈련 및 인적교류 등으로, 특히 기술훈련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주요 지원 대상국은 인접국가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다.

멕시코의 삼각협력 파트너는 주로 일본과 독일이다. 특히 일본은 2003년 ‘일본·멕시코 공동프로그램(JMPP: Japan-Mexico Joint Program)’을 설립해 멕시코와 삼각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JMPP를 통해 일본은 멕시코

코의 남남협력을 지원한다. JMPP의 주요 사업은 멕시코 전문가 파견, 제 3국 훈련프로그램, 삼각협력 프로젝트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10년간 일본은 멕시코와 환경, 산업개발, 기술교육, 보건, 재난방지 및 농촌 개발 등 6개 삼각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멕시코인, 일본인, 중남미인 등을 합쳐 총 626명에 달한다.

멕시코가 중남미, 특히 중미·카리브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위상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결합해 인근 국가를 공동으로 지원할 경우 개발협력의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과 멕시코의 상이한 경제발전 경험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삼각협력 모델은 멕시코와의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과 멕시코 간의 삼각협력 모델 개발은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협력체인 MIKTA의 공동협력 사업 개발로도 활용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멕시코와 가칭 ‘한·멕시코 동반자 프로그램(Korea-Mexico Partnership Program)’을 만들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발전 경험을 융합한 협력모델을 인근 중미·카리브 지역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삼각협력 사업 개발 시 중미통합체제(SICA)나 중미개발은행(CABEI)과의 공동협력사업 개발도 필요하다.

4) 한·멕시코 간 첨단기술 협력: 항공우주 부문 협력

한국과 멕시코 간 산업협력은 한국의 앞선 산업기술과 멕시코의 후진적 기술 분야가 결합한 남북형 산업협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첨단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필요하다. 그 중 대표적인 분야가 항공우주 부문 협력이다.

항공기산업은 멕시코의 차세대 유망산업이다. 북동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기용 부품 생산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된다. 미국계, 캐나다계, 유럽계 등 전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 메이저가 생산공장을 멕시코 이전해 현지 공급체인을 확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멕시코의 항공기 관련 업체 수는 267개사에 달하는데 이 중 211개사가 제조업체, 29개사는 보수업체, 27개사는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관련 서비스업체다. 고용자 수는 3만 4,000명으로 지난 6년간 3배가 증가했다. 항공산업의 수출은 2012년 54억 달러로 주요 수출품은 항공기용 엔진, 기체구조부품, 전기계통부품 등이다.

멕시코에서 항공기산업의 발전은 낮은 생산비용, 미국과의 2국간 항공 안전협정(BASA) 체결, 항공기산업에 대한 관세우대제도 및 수입통관상의 특별조치 등에 기인한다. 특히 멕시코에서 항공기산업의 생산비용은 미국의 84.3%로 노동비용만 놓고 볼 때 미국의 1/3에 불과하다. 2009년 12월 캐나다투자청(Invest in Canada Bureau)의 발표에 따르면 북미의 주요 항공기산업 클러스터 중 케레타로(Queretaro) 주가 항공기산업의 생산 투자처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자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투자청의 평가에 따르면 케레타로 시는 북미 항공기산업 클러스터 중 노동의 질이 세 번째로 우수하다. 케레타로를 앞서는 도시는 캐나다 토론토, 몬트리올 정도다. 이렇듯 노동의 질이 우수한 이유는 산관학이 합동으로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3월 정부는 멕시코에서는

표 5-2. 멕시코 항공기산업 교육 프로그램

	대학 및 기관	소재지	과정명	설립 연도
대학원	국립공과대학(IPN) 기계전자공학부(ESIME)	멕시코시티	- 항공우주공학과정 - 항공공학연구과정메인터넌스 및 생산전공 - 항공기구조학디플로마	2004
	Nuevo Leon 주 자치대학 (UANL)	Nuevo Leon	항공우주재료공학 · 항공시스템관리	2007
	CETYS Universidad	Baja California	항공공학과정	2008
	몬테레이공과대학교(ITESM)	Queretaro	항공공학전문기양성집중과정(80시간)	2009
	케레타로 국립항공대학교 (UNAQ)	Queretaro	항공공학(제조 · 디자인 · 연구개발)	2011
대학	IPN ESIME	멕시코시티	항공공학	1937
	Nuevo Leon 주 자치대학 (UANL)	Nuevo Leon	항공공학	2007
	치와와 주 자치대학(UACH)	Chihuahua	항공공학	2007
	CETYS Universidad	Baja California	기계공학과 항공디자인전공과정	2008
	Ciudad Juarez 시 자치대학(UACJ)	Chihuahua	항공공학	2008
	Cajeme 공과대학(ITESCA)	Sonora	기계공학 · 항공학 전공	2008
	케레타로 국립항공대학교 (UNAQ)	Queretaro	항공공학(제조 · 디자인)	2008
	Baja California 주 자치대학 (UABC)	Baja California	항공공학	2009
	이달고 수도권 공과대학 (UPMH)	Hidalgo	항공공학	2010
	케레타로 국립항공대학교 (UNAQ)	Queretaro	기업연수 항공전자공학(2년간: 상급기능공 대상)	2006 2009
기술고등 학교 및 종업원 연수	고등기술훈련센터 (CENALTEC)	Chihuahua	기업연수	2000
	EIAO	Nuevo Leon	항공기 유지보수 과정	-
	국립기술전문교육학교 (CONALEP)	멕시코시티, 케레타로	항공기산업 기능공 육성 과정	2008
	IPN과학기술센터(CECYT)	멕시코시티, 멕시코 주	항공기 유지보수 기술자 양성	2011

자료: JETRO(2014), p. 67.

처음으로 항공 분야 전문대학인 케레타로국립항공대학(UNAQ)을 설립했다.¹⁹¹⁾

멕시코와의 항공우주 분야 협력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우주 부문에서의 협력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멕시코우주청(AEM: Mexican Space Agency)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우주개발청(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의 경우 이미 멕시코우주청과 MOU 체결을 통해 협력해오고 있다.

두 번째 협력 분야는 멕시코 항공기산업 교육기관과의 협력이다. 우선적으로 양국의 대표적인 항공전문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와 케레타로국립항공대학 간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멕시코 개혁·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

가) 에너지 분야 진출 확대

멕시코의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존량에 비추어볼 때 석유산업 개방으로 인한 사업기회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석유기업들의 경우 NAFTA에서조차 개방되지 않았던 석유산업의 개방이 가시화되면서 합작투자 혹은 M&A를 활용하여 멕시코에 대한 투자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석유·가스의 탐사 및 생산 부문은 물론 수송, 정유 및 석유화학과 같은 다운스트림 분야도 정부 허가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참여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채굴 및 생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191) 설립자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 대 50으로 출자했다.

노려볼 만하다. 전술한 바 있듯이 탄화수소 탐사 및 채굴권을 민간 부문에 공개입찰로 부여하는 1차 라운드(Ronda Uno)가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직접 자원탐사에 나설 기업이나 지분투자를 통한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경우 멕시코 석유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전망이다.

둘째, 해상 플랫폼과 시추선·수송선 등 조선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우리 조선업계는 물론 해상수송 선박서비스(offshore support vessel) 기업들도 멕시코 기업들과 합작으로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가 예상된다. 멕시코는 천연가스 수송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CFE를 명실상부한 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CFE와 에너지부는 2014년 4월 민관합동사업(PPP)으로 2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신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¹⁹²⁾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5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은 ‘국가인프라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18)’¹⁹³⁾에 포함되어 있는데, 니에토 정부는 집권 기간 1,725억 페소를 투자하여 17개 주(州)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천

192) 신규로 건설될 5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길이, 처리능력, 그리고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치와와 주 북부의 Ojinaga~El Encino 구간(254km, 일일 13억 5,000만 입방피트(ft³), 4억 달러), △치와와 주 북부의 El Encino~두랑고 주 Laguna 구간(423km, 일일 15억ft³, 6억 5,000만 달러), △미국 텍사스 주 남부의 Waha~치와와 주 북부의 Samalayuca 구간(300km, 일일 14억 5,000만ft³, 5억 5,000만 달러), △Waha~Ojinaga 구간(230km, 일일 13억 5,000만ft³, 4억 달러), △미국 애리조나 주 Ehrenberg~소노라 주 San Luis Río Colorado 구간(160km, 일일 1억 3,000만ft³, 2억 5,000만 달러).

193) 교통통신, 에너지, 수자원, 보건, 주택, 관광업 등 6대 전략부문에 7조 7,000억 페소를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14년 4월 28일 대통령이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25개 전략, 83개 정책방향, 743개 프로젝트, 20대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에너지 및 수자원분야에만 2,1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Mexicana(2014), 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2018, <http://www.presidencia.gob.mx/pni/>. (accessed Septembr 21, 2014)

표 5-3. 멕시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프로젝트	주(州)	연장 (km)	추정투자액 (백만 페소)	입찰시기 (예정)	운영시기 (예정)
Ojinaga-El Encino	치와와	254	5,160	'14 상반기	'17 1/4분기
El Encino-La Laguna	두랑고	423	8,385	'14 상반기	'17 1/4분기
Waha-Norte III 발전소	치와와	300	7,095	'14 상반기	'16 1/4분기
Waha-Ojinaga	-	230	5,160	'14 상반기	'17 1/4분기
Merida-Cancún	킨타나로오/유카탄	300	5,999	'14 하반기	'16 3/4분기
Ehrenberg- Los Algodones- San Luis Rio Colorado	소노라	160	3,225	'14 하반기	'17 1/4분기
Baja California Sur 천연가스 공급	Baja California Sur/시날로아	-	7,740	'14 하반기	'17 2/4분기
Sur de Texas-Tuxpan (해저)	타마울리파스/베라크루스	625	38,700	'14 하반기	'18 2/4분기
Tula-Villa de Reyes	아과스칼리엔테스/이달고/할리 스코/산 루이스 포토시	279	5,418	'14 하반기	'17 2/4분기
Tuxpan-Tula	이달고/베라크루스	237	5,160	'14 하반기	'17 1/4분기
Samalayuca-Sásabe	치와와/소노라	558	10,836	'14 하반기	'17 2/4분기
Colombia-Escobedo	누에보 레온	254	4,838	'15 상반기	'17 2/4분기
Jáltipan-Salina Cruz	오악사카	247	8,333	'15 상반기	'17 4/4분기
Lps Ramones- Cempoala	누에보 레온/타마울리파스/베라크루스	855	26,071	'15 상반기	'17 4/4분기
Villa de Reyes- Aguascalientes- Guadalajara	산 루이스 포토시 /아과스칼리엔테스 /사카테카스/할리스코	355	7,159	'15 상반기	'18 1/4분기
La Laguna-Centro	두랑고	601	11,610	'15 상반기	'18 4/4분기
Lázaro Cárdenas- Acapulco	미초아칸/케레타로	331	5,908	2015	2018
Salina Cruz-Tapachula (중미로 연장)	오악사카/치아파스	440	5,718	2015	2018

자료: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Mexicana(2014), 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2018, www.presidencia.gob.mx/pni/, pp. 67-68. (accessed September 21, 2014)

연가스 파이프라인(총연장 1만km)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석유산업의 종류 및 하류 부문(다운스트림) 개방으로 직접투자 및 플랜트 건설시장 진출 기회가 발생할 전망이다. 먼저 정유 및 석유화

학산업에 대한 민간의 직접투자가 개방되는 동시에 오악사가 신규 정유 플랜트(남·남동부지역, 455억 페소), 살라망카 정유플랜트(30억 달러)¹⁹⁴⁾ 및 마테로 탈황설비(7억 8,000만 달러) 사업과 같은 Pemex의 기존 정유 설비의 증설 및 신설에 따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¹⁹⁵⁾가 예정되어 있다. 정유플랜트 이외에는 석유류 제품의 수송 및 저장과 관련한 설비¹⁹⁶⁾와 석유화학 플랜트(신설, 증설)¹⁹⁷⁾의 발주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전력공급 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한 다양한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도 고려해 볼만하다. 국가인프라계획(PNI)에 따르면 치코아센(Chicoasén II, 240MW), 치아판(Chiapan, Angostura II, 136MW), 누에보 게레로(Nuevo Guerrero, 455MW), 라 에스카(La

194) 삼성엔지니어링은 2014년 9월 멕시코시티 북서부 살라망카 정유공장의 초저황 디젤류 생산설비 증설 프로젝트의 상세설계 1단계 업무를 Pemex로부터 수주했다.

195) 이외에 미나티틀란 정유소 최적화사업(11억 8,300만 페소) 및 에너지설비 개선(7억 6,000만 페소), 마테로 정유소 최적화사업(17억 5,700만 페소) 등이 있다 ;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Mexicana(2014), 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2018: Anexo 1. Proyectos Estratégicos, <http://cdn.presidencia.gob.mx/pni/programas-y-proyectos-de-inversion.pdf?v=1>, pp. 4-11. (accessed on Sep 21, 2014)

196) 국가인프라프로그램(PNI)의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에는 GAR Golfo 저장 및 분배터미널 증설(Veracruz, Puebla, Yucatán, Chiapas, 3억 9,500만 페소), Tuxpan-México 정유제품 수송 파이프라인 증설(Veracruz, Hidalgo, Mexico, 10억 8,600만 페소), Tuxpan 항만 가솔린 및 첨가제 저장설비 증설, Pajaritos - Minatitlán - Salina Cruz 분배 및 저장시스템 수송능력 제고(3억 7,000만 페소), GAR Pacífico 저장 및 분배터미널 증설(Sonora, Baja California, Baja California Sur, Colima, Sinaloa, 6억 3,300만 페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Ibid.*

197) PNI에 포함된 주요 석유화학 프로젝트에는 시날로아 비료공장(39억 페소), 베라크루스 스테렌공장 확장(150→250MTA, 2억 4,000만 페소), 베라크루스 암모니아공장 No. IV 증설 및 Cosoleacaque 석유화학단지와의 통합(21억 5,000만 페소), Cosoleacaque 석유화학단지 암모니아 생산·저장·배급 능력 유지(4억 2,800만 페소), 베라크루스 방향족제품 설비 I 증설(53억 3,200만 페소), 모렐로스 석유화학단지 에탄올 I(41억 1,100만 페소) 및 III(3억 6,100만 페소) 확장 및 현대화, 타마울리카스 CPG Burgos 나프타 저장시설 증설 등이 있다 ; *Ibid.*

Yesca) U1 및 U2(750MW), 라스 크루세스(Las Cruces, 240MW) 등의 수력발전프로젝트,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그리고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전력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송배전망¹⁹⁸⁾ 구축 사업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나) 방송통신 분야 진출 기회 모색

방송통신 개혁으로 2014년 멕시코 방송통신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35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통신시장의 61%를 차지하는 모바일 광대역서비스 시장은 35%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빠른 성장 전망과 함께 멕시코 정부가 계획 중인 주요 개혁조치들이 이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안대로 멕시코 전체 가정의 70%, 중소기업의 85%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 경우 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주도의 광섬유 기반 국가기간 통신망 확충과 무선통신 접근 공유망 설치 확대(공공건물 및 장소 무료 인터넷 연결 서비스)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업기회를 활용한 진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기존 아날로그 방송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종료되고 디

198) Huasteca-Monterrey 송전망(31억 2,500만 페소), CC Topolobampo III 발전소 송전망(Sonora, Sinaloa, 16억 9,000만 페소), 소노라주 CC Guaymas II(18억 9,000만 페소) 및 III(16억 8,000만 페소) 발전소 송전망, 소노라주 CC Baja California IV 발전소 송전망(3억 6,500만 페소), Noroeste 2단계 송전망 및 변전소(6억 7,500만 페소), CC Mazatlán 발전소 송전망(Sinaloa, Nayarit, 24억 페소), CC San Luis Potosí 발전소 송전망(1억 4,000만 페소), Sureste III, IV, V, VI 송전망(Oaxaca, Puebla, Morelos, 58억 8,400만 페소), CC Noreste Escobedo 발전소 송전망(6억 7,000만 페소), Noreste 4단계 송전망(7억 8,000만 페소) 등이 대표적이다 ; *Ibid.*.

디지털 TV 방송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TV 수상기, 셋톱 박스 등 관련 제품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멕시코의 디지털 TV 방송 전환 프로그램은 교통통신부(SCT)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무료로 제공할 1,380만 대를 포함한 대규모의 디지털TV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방송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독과점 기업에 대한 연방방송통신청(IFETEL)의 규제가 시작되어 신규 시장 진입자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그만큼 완화되었다.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로 기존 자산 매입이나 신규 투자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방송통신시장 진출도 가능

표 5-4. 멕시코 산업구조 개혁에 따른 우리와의 협력기회

개혁 부문	협력 및 사업기회
방송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 외국인직접투자 개방(통신 100%, 방송 49%) - 시장 독과점 해체(투자진출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점유율 50% 이하 조정에 따른 독과점기업(América Móvil) 자산 매각 및 해외시장 진출 • 공중파 TV 채널 3개 신설(2개 상업방송, 1개 공영방송) - 인프라 공급 확대(수출 및 투자진출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섬유 기반 국가기간통신망 확충 • 무선통신 접근 공유망 설치 확대(공공건물 및 장소 무료 인터넷 연결 서비스) • 공중파 방송업체: 전체 국토 50% 이상 수신 가능한 신호 무료제공 -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TV 전환(수출 기회)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채굴,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Ronda Uno' 시행 - 중류 및 하류 부문(다운스트림)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플랫폼과 시추선·수송선 등 조선 수요 증가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 정유 및 석유화학 직접투자 진출 • 정유 플랜트(신설, 증설) 수주 • 석유화학 플랜트(신설, 증설) 수주: 화공설비, 비료·플라스틱 공장 건설 - 발전,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인프라 5개년(2014~18년) 계획 - 에너지 및 수자원 분야에 2,120억 달러 투자 계획 - 정유 프로젝트: 살라망카 정유플랜트(30억 달러), 마데로 탈황설비(7억 8,000만 달러) - 발전: Noreste 복합발전(1,006MW), Rumorosa 풍력발전 I, II, III(296MW) - 5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자료: 저자 작성.

할 전망이다. 현재 독점기업 관정을 받은 América Móvil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일부 사업 및 자산의 매각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América Móvil의 사업 및 자산을 일부 인수하거나 통신(100%)과 방송(49%)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이용해 신규 사업자로서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

나. 상생협력 방안

1)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최근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미국 경제 특수에 따른 수혜는 대부분 외국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멕시코 제조업 부상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멕시코 제조업의 독특한 생산구조 때문이다. 멕시코 내에 자체 부품 및 소재 생산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멕시코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해와 조립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멕시코가 단순한 생산조립기지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하에 멕시코 정부는 현지 부품 및 소재 기업 육성에 관심이 많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외국기업의 사례에 속한다. Aymes & Salas-Porras(2012)의 연구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멕시코 토종기업과 협력하는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기껏해야 무역업체가 자사 제품의 현지 마케팅을 위해 현지 소매업체와 합작투자를 하는 것이 전부

였다.¹⁹⁹⁾

이에 따라 양국간 산업협력은 우선적으로 멕시코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필자가 멕시코에서 만난 몬테레이 대학의 아돌포 라보르데(Adolfo Laborde) 교수는 대한국 무역적자가 심해 한국과의 FTA에 회의적인 멕시코와 FTA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특정산업 분야에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멕시코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멕시코의 산업 중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편입도가 낮은 분야를 찾아내 멕시코가 부족한 자본재 공급이나 인력양성 부문에서 협력사업이나 원조사업을 제안한다면 멕시코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제언이었다.

일본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을 간파하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혹은 부품소재산업(supporting industries)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지원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6월 JICA와 멕시코국제개발협력청(AMEXCID)은 ‘멕시코 자동차 공급체인 개발 프로젝트(Project for Automotive Supply Chain Development in Mexico)’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멕시코의 자동차 공급체인 개발을 위해 일차적으로 주정부, ProMexico, 멕시코 현지 Tier-2 업체, 일본 Tier-1 업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또한 공급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주정부의 시스템과 제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멕시코 측에서

199) Juan Felipe Lopez Aymes and Alejandra Salas-Porras, Korean Companies in Mexico: Business Practices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Asia-Pacific Business, p. 360.

과나후아토 주정부, 누에보 레온 주정부, 케레타로 주정부, ProMexico가 참여하고 일본측에서는 일본대사관, JETRO, JICA가 참여한다.

우리나라도 2005년 한·멕시코 21세기 위원회 보고서에서 마킬라도라 지역을 비롯한 멕시코 지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멕시코의 생산구조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멕시코의 연관지원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적합한 산업 분야로는 자동차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을 지목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멕시코와의 메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멕시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많은 전기전자 분야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과 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한국과 멕시코 간 상호 보완성이 커 협력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다. 현 멕시코 대통령도 대선 유세 연설에서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적 경험을 자주 언급하곤 했다. 필자가 멕시코에서 접한 여러 인사들도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양국 간 협력의 가장 유망한 분야로 지목하였다.

양국간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 수단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양국의 주요 대학교 및 연구소 대표(CEO)들이 참석하는 가칭 ‘교육 및 혁신 서밋(Korea-Mexico Education and Innovation Summit)’을 조직해 개최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및 혁신 서밋 개최는 양국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를 통해 협력수요를 발굴하는 채널로서 의의가 크다. 우리의 기

대와 달리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멕시코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다. 한국의 교육 수준이나 과학기술 발전 수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양자간 서밋은 멕시코 내에서 낮은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발전 정도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멕시코와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해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해오고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 멕시코와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일본-멕시코 대학총장 서밋(Japan-Mexico Rectors' Summit)’을 개최해오고 있다. 2014년 아베 총리의 멕시코 방문에 맞추어 두 번째 서밋이 개최된 바 있다.

미국은 2013년 멕시코와 21세기 경제에 필요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양자간 고등교육혁신연구포럼(Bilateral Forum on Higher Education, Innovation, and Research)’ 설립에 합의하고, 2014년 5월 공식 출범시켰다. 이 포럼을 통해 양국 정부는 학생, 학자 및 교원의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연구 확대, 고등교육 및 혁신 분야에서 경험 공유를 추구할 계획이다.

일본과 미국의 협력 사례를 참고해 한국과 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은 단순한 회의 성격을 탈피해 양국간 학생 및 연구자 교류,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한·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과학기술계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s), 기존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및 혁신 서밋과 별도로 차세대 지도자인 대학생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협력 수단으로 ‘한·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을 설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성공적으로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브라질의 ‘국경 없는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아르헨티나, 칠레 등 개별국가와 접촉을 통해 현지 유학생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1971년부터 양국간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일본-멕시코 연구생 및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3년 8월까지 매년 약 50명씩 41차례에 걸쳐 약 4,00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글로벌 전략적 관계 증진을 위한 일본-멕시코 교류 프로그램(Japan-Mexico Exchange Program for the Global Strategic Relationship)’으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프런티어 프로그램은 기존 한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통한 일방향의 교류가 아닌 쌍방향의 교류를 지향해야 한다. 멕시코 학생의 한국 유학은 물론 한국 학생의 멕시코 유학을 지원하는 형태여야 한다. 둘째, 브라질과의 경험을 살려 양국 기업과의 인턴십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유학생의 국내기업 인턴십을 연계하는 것은 물론 한국 유학생의 멕시코 기업, 특히 멕시코 다국적 기업과의 인턴십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4) 한·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숙련인력 부족이다. 멕시코의 전반적인 인건비가 낮고 비공식 부문이 커 미숙련 노동인력을 구하기는 쉬우나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춘 숙련인력을 확보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멕시코 정부는 제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숙련인력 부족을 인식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멕시코 정부의 니즈에 부응해 KSP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마이스터고의 운영경험을 전수한 바 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요, 멕시코 정부의 고민을 감안할 때 숙련노동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직업훈련원 설립은 양국간 유망한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직업훈련원 설립을 협력사업으로 제기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한국정부, 현지 주 정부나 연방정부, 현지 진출 한국기업으로 하되 필요 시 미주개발은행(IDB) 등 중남미 국제기구도 포함시킬 수 있다. 직업훈련원은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많은 바하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 멕시코시티,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등이 우선적인 설립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방안

1) 한·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한국과 멕시코 간에는 경제 및 기술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한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멕시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확인되듯 멕시코 측에서 볼 때 한국 기업과의 우선적인 협력 분야는 기술협력이다. 기술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기업과의 기술협력에 관심이 매우 많다. 최근 미주투자공사(IIC)와 한·중남미협회가 공동으로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공화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 지역 중소기업간 합작투자 매칭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큰지, 기술협력이 얼마나 유망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양국 기업간의 높은 기술협력 잠재력과 수요를 매칭해줄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이 없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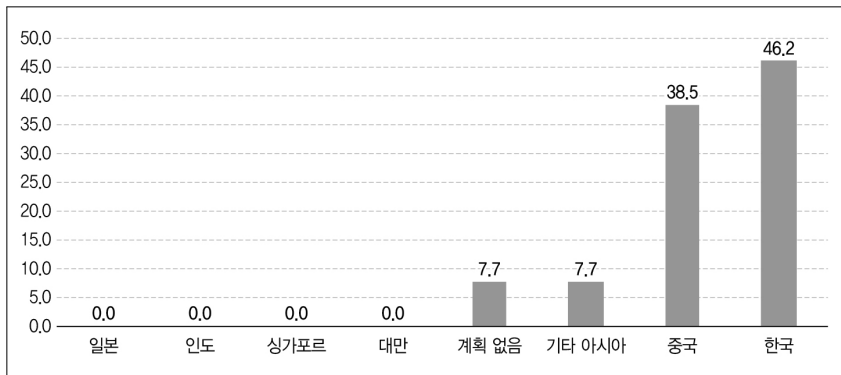
따라서 한국과 멕시코의 기술협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관련 기업을 상호 연결해주고 공동 협력사업도 개발할 수 있는 ‘한·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이 긴요하다. 마침 한국은 멕시코와 2004~06년 ICT국제협력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의 경험을 잘 활용할 경우 양국간 기술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특히 기술혁신센터는 기술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한 채널로 매우 유용할 전망이다.

2) 한·멕시코 기업 간 R&D 및 기술협력 확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3년 멕시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기업들은 아시아 기업 중에서도 한국 기업과 가장 많은 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응답기업 중 46.2%가 한국 기업을 우선 협력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 밖에 중국(38.5%)과의 협력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수요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 기업들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아 기업의 선진 경영기술 활용(17.6%), 첨단생산기술의 활용(17.6%), 아시아 기업과의 R&D(17.6%)를 위해서이다. 이 밖에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링 능력(11.8%)과 자금동원력(11.8%)도 중요한 협력 동기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 기업들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이유는 아시아 기업들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생산기술과 경영기술, R&D 역량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5-12. 향후 협력 대상 아시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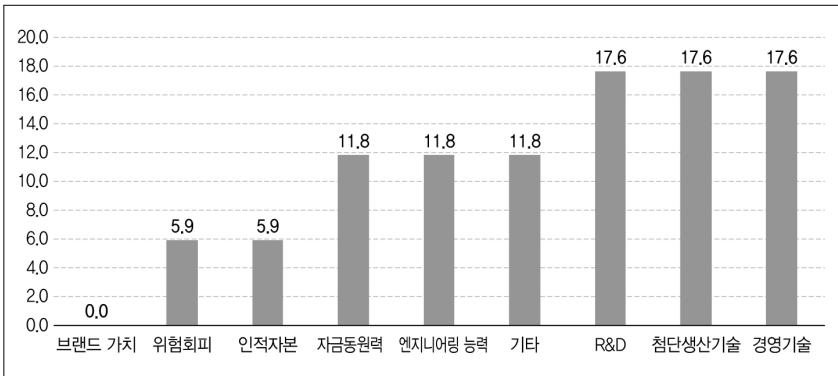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그림 5-13.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 동기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따라서 멕시코 기업과의 협력 시 R&D나 기술협력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IDB 산하의 IIC와 한·중남미협회가 2013년부터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중소기업의 합작투자를 주선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기술협력사업을 멕시코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한·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한·멕시코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협력의 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한·멕시코 간 협력에서는 대기업만큼이나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멕시코가 중남미 국가 중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니에토 정부도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국가창업원(INADEM)을 설립했다.

마침 우리 정부(중소기업청)도 이 같은 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해 2013년 9월 멕시코 국가창업원(INADEM)과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4년 9월에는 양국간 중소기업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멕시코 중소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한·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 구성, 한·멕시코 글로벌 창업 협력 등 양국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 차원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양국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만나 협력 수요와 기회를 파악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정기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한·중남미협회와 IIC가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중남미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주선을 위한 B2B 미팅 사업은 한·멕시코 간 중소기업협력 채널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좋은 예다. IDB 산하의 IIC와 한·중남미협회는 2013년 9월 25일~10월 1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한국의 15개 중소기업과 콜롬비아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지원을 위한 상담회를 개최했다. 2014년 8월에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페루에서 같은 형식의 상담회를 개최했다. 미주투자공사는 투자상담회에 참여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참가비, 기술협력, 금융지원 자문 등을 제공했으며, 투자상담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이 IDB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했다. 한·중남미협회는 투자상담회에 참여할 우리 중소기업을 선별모집하고 참여 기업들의 현지 수행 및 상담회 주선 등 모든 과정을 맡아 수행했다. 협력대상 기업은 현지 상공회의소 등의 협조를 얻어 모집하였다. 3차례에 걸친 상담회 결과,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 협력 파트너와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협의 중이다.

IIC와 한·중남미협회의 B2B 사업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먼저 우리기업의 중남미 시장 등 신시장에 대한 진출 의지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협력의 기회만 마련해주면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사가 크다는 것이다. 둘째, 일회성 접촉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내기에 한계가 많다는 점이다. 양국 기업이 기술이전이든 합작투자든 진정한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멕시코 중소기업과 서로 만나 사업기회를 논의하고 신뢰할 만한 사업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는 정기 채널로 ‘한·멕시코 중소기업포럼’을 개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포럼 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청과 멕시코 국가창업원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수도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민관합동으로 멕시코와 중소기업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라.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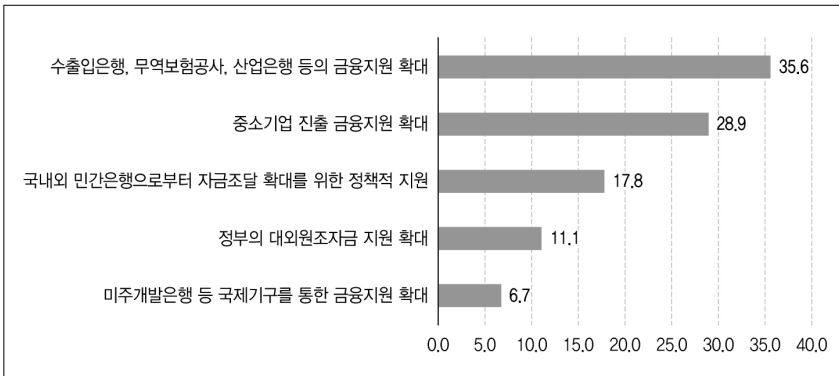
1) 대정부 지원요청 사항

지난 8~10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을 청취했다. 설문조사는 크게 ① 금융지원에 대한 요구 ② 국가간 제도(협정)적 협력 기반 구축에 대한 요구 ③ 민관 부문간의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요구 ④ 협력센터 설립 및 시장진출 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로 구분해 실시했다.

먼저 자금조달 등 금융 부문은 현지시장 진출 시 우리 기업이 겪는 커다란 어려움 중의 하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멕시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림 5-14. 금융지원에 대한 요구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우리 기업들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약 70%)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멕시코는 은행산업의 발전정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아 현지 금융 조달이 다른 나라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대(전체 응답자의 35.6%)를 가장 크게 희망하고 있다. 멕시코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중소기업의 진출 많은 편이다. 이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28.9%)도 컸다. 그 밖에 국내외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17.8%)하는 기업도 많았다. 그에 반해 IDB 등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를 희망기업은 많지 않았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IDB가 어떠한 기관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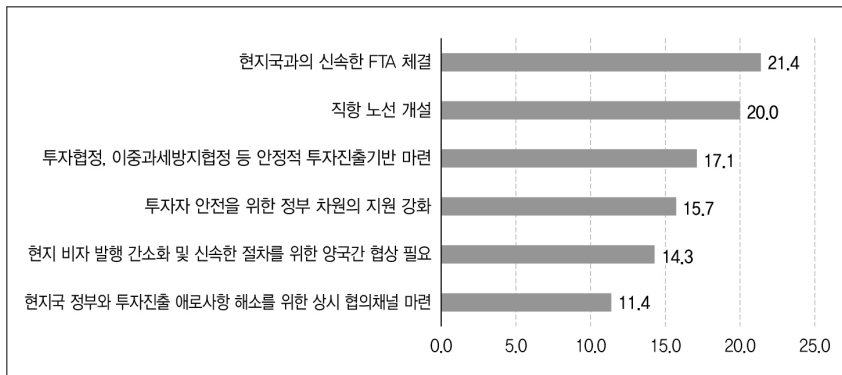
두 번째로 국가간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멕시코와의 FTA 체결(21.4%)을 요구했다. 우

리 기업들은 양국간에 FTA가 체결되지 않아 피해를 보거나 FTA 체결이 가져올 경쟁력 확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인식 아래 FTA 체결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직항노선 개설(20.0%)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우리 국민은 양국간 직항노선이 마련되지 않아 제3국을 경유해 멕시코에 입국해야 한다. 이웃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멕시코와의 직항노선을 개설해 운행하고 있다. 직항노선 개설 유무는 단순한 이동시간과 항공비용 절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을 좁힌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밖에 투자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안정적인 투자기반 마련, 투자자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등이 우리 기업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로 민관 부문간의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물었다. 그 결과, 멕시코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달라는 요청(27.4%)이 가장 많았다.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진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조달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

그림 5-15. 국가간 제도(협정)적 협력 기반 구축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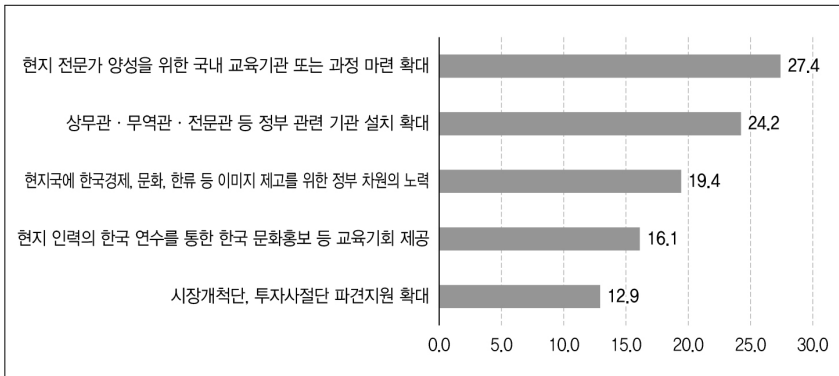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그림 5-16. 민관 부문간의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요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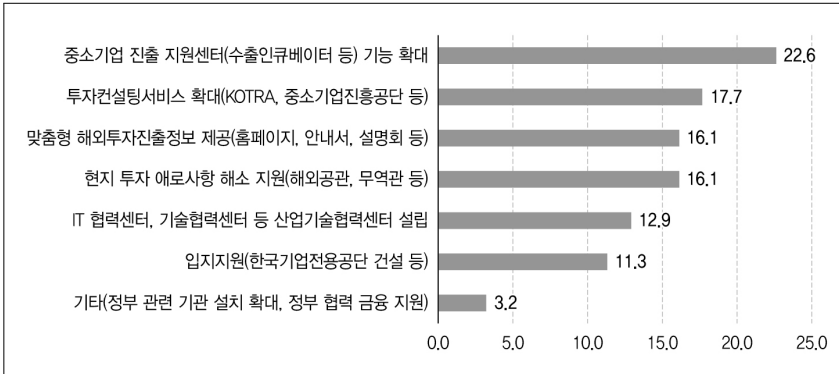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과 현지문화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고루 갖춘 인력을 찾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상무관이나 무역관, 전문관 등 정부 관련 기관의 설치 확대에 대한 요청(24.2%)도 높았다. 이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기존의 대사관이나 KOTRA의 인력으로는 현재 점증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현지 멕시코 인력의 한국 연수를 통한 한국홍보 지원에 대한 요구도 컸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력센터 설립이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수출인큐베이터 등의 기능 확대를 요구(22.6%)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대기업은 풍부한 자본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 현지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중소기업은 자본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그림 5-17. 협력센터 설립 및 시장진출 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그 밖에 투자컨설팅 서비스 확대(17.7%), 현지 맞춤형 투자진출 정보 제공(16.1%), 현지 투자 애로사항 해소(16.1%)도 높게 나타났다.

2) 한·멕시코 FTA 협상 신속 재개

현재 한국과 멕시코 경제관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는 FTA 협상 재개 여부다. FTA 협상은 멕시코 측보다는 한국 측의 관심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멕시코 정부에 FTA 협상 재개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양국간 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해 FTA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FTA는 한국 기업의 대멕시코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멕시코가 제3국과 체결한 FTA로 인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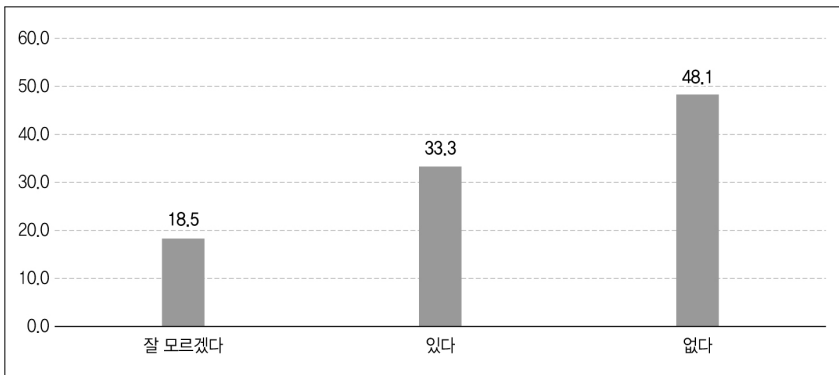
한국의 대멕시코 진출에서 FTA의 중요성은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멕시코 시장에서 FTA 미체결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기업 중 33%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답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와의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가에 대한 설문에 일본·멕시코 FTA로 응답한 기업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 경협관계에 놓인 제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EU FTA로 인한 피해도 23.5%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특징은 멕시코 정부의 FTA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이다. 우리 기업은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로 인해 건설인프라시장 참여 제한, 자동차 시장 수출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와의 FTA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기업의 약 81%가 멕시코와의 FTA 체결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이같이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의 FTA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FTA 미체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도

그림 5-18. FTA 미체결로 인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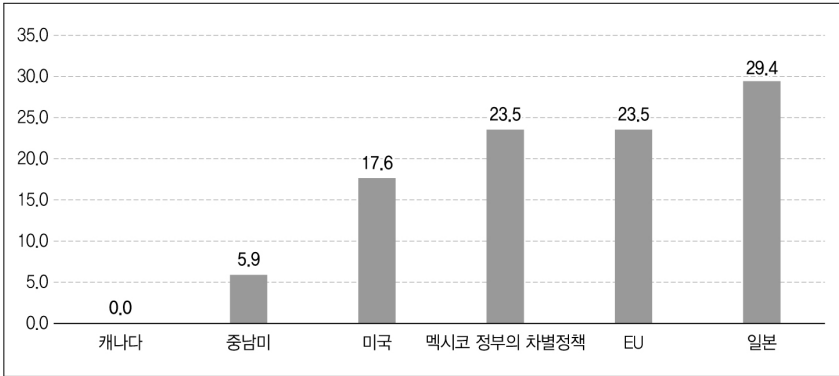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그림 5-19.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멕시코와 제3국 간의 FTA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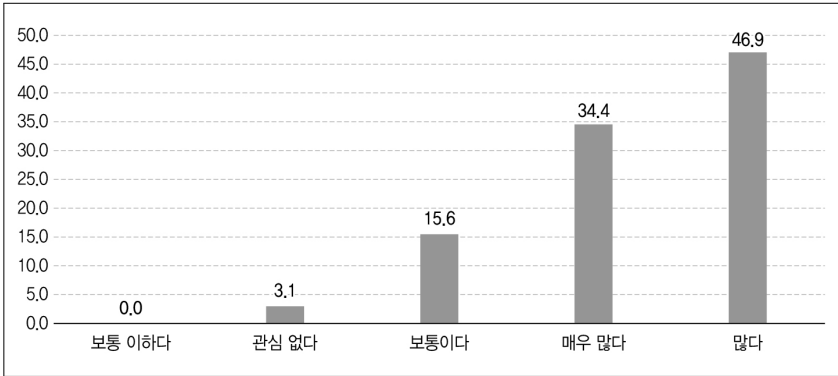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있지만 양국간 FTA 체결이 가져올 혜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의 FTA 협상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는 관세 인하 및 철폐(68.8%)로 나타났다. 그 밖에 통관절차 간소화(18.8%), 정부조달시장 참여(12.5%)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2008년 6월 중단된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까? 먼저 정공법으로 멕시코에 FTA 협상 재개를 요청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양자간 FTA 협상이 중단된 이후 멕시코와의 FTA를 둘러싼 환경이 거의 달라진 게 없어 이를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많다. 2008년 멕시코 재계가 한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한 이유는 ① 멕시코 제조업 경쟁력 열세 ② 한국 기업과 멕시코 기업 간의 저조한 협업 실태 ③ 한국 기업들의 낮은 기술이전 ④ 멕시코의 대한 무역역조 심화 및 한국시장 진출 저조 ⑤ FTA 체결로 인한 피해산업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보호 및 보상조치 전무 ⑥ 멕시코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FTA의 낮은 우선순위 ⑦ 멕시코 수출입시장에서 중국의 큰 위협 등 일곱 가지였다.²⁰⁰⁾ FTA 협상

그림 5-20. 한-멕시코 FTA에 대한 관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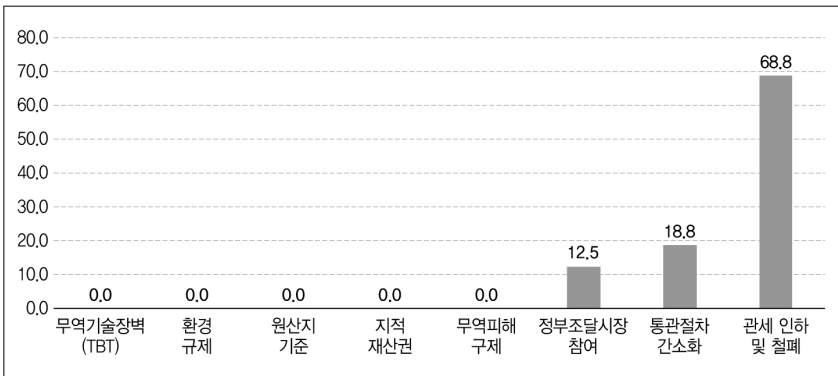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이 중단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멕시코 재계가 FTA를 반대하는 요인 중 개선되거나 환경이 바뀐 것이 거의 없다. 한국 정부나 기업의 멕시코 재계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그림 5-21. FTA 협상 관심 분야

(단위: %)



자료: 저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200) 김수동(2012), p. 19.

니에토 대통령이 대외통상정책으로 추가적인 FTA 체결에 대한 가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국내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어 한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국내 산업계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양자간 FTA가 단기간에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필자가 멕시코 경제부 인사 등과 인터뷰한 결과, 현재 멕시코 정부가 한국과 양자간 FTA를 추진할 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터키, 파나마, TPP 등 여러 FTA 협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FTA를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한편 우회적으로 FTA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FTA 전략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²⁰¹⁾ 가입을 통한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TPP 가입 의사를 밝혔고, 멕시코와 TPP 예비 협상을 마친 상태여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은 멕시코와 자동적으로 FTA를 체결하게 된다. 멕시코 경제부 인사와의 인터뷰 결과,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해 아직까지 재개를 비롯한 멕시코 내에서 특별한 반대가 있어 보이

201) 한국은 TPP 참여국들의 협상 진전 속도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4년 9월 1~10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TPP 수석대표회의에서 국영기업, 지적권, 투자, 원산지, 규제 조화, 노동 등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협상 진전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멕시코와 TPP 예비양자협의를 통해 TPP 참여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 조선비즈(2014. 9. 17), “산업부, TPP 협상 일부 진전…韓 참여 여부 계속 검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7/2014091702045.html. (검색일: 2014. 9. 17)

지는 않는다.

본 연구진이 멕시코에서 만난 많은 인사들은 멕시코가 한국과의 FTA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FTA 전략을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협력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특히 멕시코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산업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충고다.

멕시코 인사들의 제언을 종합해보면 다양한 협력사업 개발을 통해 멕시코 정부나 재계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멕시코 측이 일방적으로 한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한 이유도 알고 보면 일방적 진출로 이득을 보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전략을 추진하든 TPP 전략을 추진하든 멕시코와의 성공적인 FTA 협상 추진을 위해서는 멕시코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개발을 통해 멕시코 정부나 기업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정부간 협력사업에서 컨트롤타워의 존재는 매우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예산이 제한적인데다 부처간 경쟁이 심한 국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 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 사업의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과 멕시코 양국 간 경제협력에서 컨트롤타워는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가 될 수 있다. 2014년

3월 3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 멕시코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과 양자간 최고위급 협의체로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브라질과는 2008년 고위급 대화협의체 신설 합의 이후 2014년까지 네 번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양자간 재무장관 회의는 체계적인 의제 발굴 미흡, 각 부처의 지원 미비로 컨트롤타워로서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제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고위급 대화협의체 운영을 일부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3년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고위급 대화협의체(HLED: High-Level Economic Dialogue)’를 설립했다. HLED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갖는다. 먼저 HLED는 어느 특정 부처가 협의체의 대표를 맡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는다. 미

표 5-5.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주요 내용

1. 명칭: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Korea-Mexico Committee for Economic Cooperation)
2. 성격: 한국의 경제부총리와 멕시코 재무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양국간 종합적인 정례 경제협의체
3. 의제: 경제, 산업, 금융, 건설·교통, 에너지, 교육, 정보·통신, 해양, 농림수산, 환경, 보건 등 범부처적 협력과제 논의
 - 가스, 정유 등 에너지 분야 및 교통·통신 등 인프라 분야 국책사업 참여 협조
 - 전자, 철강, 자동차, IT, 물류 등 무역·투자 확대
 - 금융, 재정, 교육 등 멕시코 개혁정책과 연계하여 지식공유 협력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멕시코 재무장관 면담 -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 보도자료(2014. 3. 31)

국의 경우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으며 농업부, 에너지부, 국토안전부, 노동부, 교통부 및 USAID 등 여러 부처와 유관기관의 대표가 참석한다. 멕시코의 경우도 외교부, 재무부, 경제부가 대표를 맡으며 농업부, 통신교통부, 에너지부, 노동 및 관광부, 국세청, ProMexico, 이민청 등 여러 관련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다. 둘째, 의제 발굴을 위해 민간 부문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이의 일환으로 1차 HLED 회의에서는 민간 부문의 의견 청취를 위해 양국의 기업인 및 시민단체 대표와 별도의 회의를 개최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양자간 경제협력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우선 협력 분야별로 민관합동 소위원회나 실무그룹을 결성해 상시적으로 협력 의제를 발굴 및 검토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멕시코 시장 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진출 과정이나 현지 경영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은 치안 불안, 노무관리, 비효율적 관료주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지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정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청취해 협의하고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간헐적으로 개최되는 경제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회의를 통해 일부 애로사항이 전달되기는 하나 기업들의 집중하는 요구에 대응하

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통로로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은 2004년 멕시코와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하면서 협정문 137조에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²⁰²⁾ 위원회 설치에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채택되었다.

위원회는 일·멕시코 EPA 발효 이후 매년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 주멕시코 일본대사관, 일본 경단련, 멕시코일본상공회의소, 일본마킬라도라협회(JMA), JETRO가 민관을 대표해 참석한다.

일본의 위원회 운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정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애로사항을 취합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JMA는 법제도 변경, 노동, 치안, 규제개혁, 에너지·자원, 환경, 회계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멕시코일본상공회의소는 치안위원회, 지재권·기준인증위원회, 세무 및 통관위원회, 관광위원회 등을 설치해 운영한다. 각 위원회는 해당 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문제점을 취합하고 검토해 일본의 담당부처와 수시로 협의한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매우 광범위하다. 일본 측에서는 치안, 지식재산권, 채권회수, 기준·인증절차 간소화, 수송인프라 정비,

202) 일본 정부는 멕시코와의 성공적인 위원회 운영에 고무되어 이후 페루 등 중남미 국가와의 EPA에서도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 세무 및 통관절차 간소화, 관광·사회인프라 정비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멕시코 측에서는 일본의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의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권고 사항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JETRO는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일·멕시코 EPA의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한다. 분야별로는 입국관리와 치안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통해 멕시코 정부로부터 일본 기업과 전향적으로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끌어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지목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시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취합해 멕시코 당국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로 가칭 ‘한·멕시코 비즈니스환경개선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⁰³⁾ 일·멕시코 EPA 협상에 참가했고 그 성과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우르테아가(Urteaga) 멕시코 농업부 국제협력조정관도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채널로 일본과 같은 성격의 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203) 멕시코 현지 진출 기업의 인터뷰 결과, 현재 파견되어 있는 한국 정부기관에서 멕시코에 주재한 한국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일 년에 두 번 정도 대사관 직원이 한국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요청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멕시코는 지리가 방대하고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며 진출한 기업도 업종별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청사항이나 정보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이 의견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멕시코 진출 A사와의 인터뷰, 2014년 8월 26일, 멕시코시티).

5) 한·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 역할 및 기능 강화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처음²⁰⁴⁾으로 멕시코에 한국상공회의소(KOCHAM)²⁰⁵⁾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 한국상공회의소는 양국간 경제협력 및 무역증진에 이바지하고, 멕시코 정부와 경제계 등에 한국 기업의 실상과 기여도를 홍보하는 한편, 멕시코 내 기업활동 애로사항 및 통상증진 관련 건의 및 FTA outreach 활동 전개 등 우리 나라 및 우리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출범했다.

한국상공회의소가 출범한 지 5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당초 기대대로 멕시코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멕시코일본상공회의소의 활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멕시코 상공회의소(Camara Japonesa de Comercio e Industria de Mexico, A.C.)는 1964년 회원간의 친목과 권익 증진, 일본·멕시코 간 경제교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회원사는 설립 초기 30개사에서 2012년 248개사²⁰⁶⁾로 증가했다.

일·멕시코 상공회의소 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2005년 일본·멕시코 EPA 출범 이후 양국 정부 간에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의 민간대표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시로 주멕시코

204) 브라질에 한국상공회의소는 2012년 1월에 설립되었다.

205) 멕시코·한국상공회의소는 멕시코 지상사협의회, 해외한인무역인협회(OKTA) 멕시코 지부, 양말제조자협회 등 이미 결성된 단체들과 개인기업들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206) 이 중 정회원은 133개사, 지방회원은 100개사, 개인회원은 12개사, 명예회원은 3개사 등이다.

코 일본대사관과 공조해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안을 멕시코 정부 기관 등에 직접 전달한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상공회의소는 산하에 지적재산권·기준인증위원회, 세무·통관위원회, 치안문제위원회, 사회인프라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각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각종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주제별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공회의소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전달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적·인적 차원에서 열악한 우리 상공회의소가 일본상공회의소와 같은 역할을 단시일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매년 일정 정도의 자금지원을 통해 우리 상공회의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수집 및 분석 등은 연구기관이나 한·중남미협회 같은 관련단체에 위탁을 주어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직항노선 개설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지역과의 비즈니스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멕시코는 남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깝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들에는 여전히 먼 국가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과만 유일하게 직항로가 개설된 상황이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직항노선 개설은 우리 기업들이 양국간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요청 중에서 FTA 체결만큼이나 중시하는 사항이다.

이 같은 필요성을 인식해 직항노선 개설은 오래 전부터 양국간의 중요한 경제협력 현안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객 부문에서 직항노선 개설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2010년 4월 양국은 인천~시애틀~멕시코시티를 연결하는 직항로를 개설해 주 3회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화물 부문에서는 2013년 8월부터 대한항공이 주 2회 과달라하라에 정기 화물기를 취항하면서 직항노선이 개설되었다.²⁰⁷⁾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직항노선이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7) 멕시코 중서부에 위치한 과달라하라는 과일과 IT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많은 곳이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 상파울루와 페루 리마에 주 2회 우리나라 화물기가 취항한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빠른 부상과 니에토 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따라 급변하는 멕시코의 경제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2010년 이후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멕시코 경제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인 제조업의 부상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해보았다. 먼저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은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자동차 등 기계 및 운송 부문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 컸다.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2000년대 후반(2007~13년) 들어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의 위상이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했다.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글로벌 생산기지로써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

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를 하회하며, 2030년까지도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노동비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물류 측면에서도 중국과 비교해 월등한 우위를 갖고 있다. 둘째, 안정적인 경제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멕시코는 또한 전 세계 2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2013년 현재 멕시코의 FTA 커버율은 91.2%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어링 전략에서 리쇼어링 전략이나 니어쇼어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멕시코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수출에 참여하는 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당분간 대미 제조업 생산기지로써 멕시코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멕시코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와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멕시코는 대미(對美) 전진기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겨냥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써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써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부품산업과 소재산업에서 국내 산업을 육성해 중간재 수입 비중을 낮추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제조업의 고용을 늘려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공식 부문 노동자로 흡수해야 한다. 넷째, 은행을 통한 신용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니에토 정부는 정치적 독재 타도와 사회적·경제적 식민지 잔재 청산을 목표로 발생했던 ‘멕시코혁명(1910~17년)’ 이래 국가적으로 가장 야심찬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 세제, 노동을 비롯한 각종 제도개혁과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과

같은 주요 산업 부문의 개혁이 변화의 핵심이다. 그동안 멕시코에서는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혁들이 추진되었고, 금융 및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개혁만도 수차례 시도되었다. 그러나 과거 개혁들은 대부분 정치적·사회적 저항으로 인해 무산되거나 취지나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 니에토 정부 출범 초기에 개혁추진에 대한 국내외적 반응은 기대와 회의적인 시각으로 엇갈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20개월 만인 2014년 8월 에너지개혁 이행법안을 끝으로 개혁에 필요한 모든 입법과정이 종료되면서 개혁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가 한층 제고되고 있다. 특히 입법에 기초한 정책 집행단계에 들어선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입법이 완료된 시점을 전후하여 거둔 개혁의 성과는 향후 정책 집행으로 나타날 중장기적 성과에 대한 기대를 제고시키고 있다. 비록 교육 분야에서는 강력한 저항으로 개혁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을 개선하기 위한 세제개혁으로 세수기반이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방송통신시장의 독과점 해체 및 경쟁도입 시도는 독과점 기업들의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고, 에너지 부문의 개방은 국내외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이 커다란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대부분의 개혁조치들이 헌법수정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범정당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였고, 천연자원 개방에 대한 일종의 금기(자원민족주

의) 해체를 국민들이 수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범정당 및 범국민적 협력과 이해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개혁이 국가수준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득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장에서 기술한 주요 산업 및 제도개혁은 미완의 진행형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가 많다. 경제성장 둔화와 외자유치 한계와 같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개혁성과의 퇴색, 개혁 대상인 기업과 이익단체의 반개혁적 저항, 치안 불안 심화와 정치변동에 따른 개혁추진력의 상대적인 약화 등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 장애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멕시코가 현시점에서 직면해 있거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혁이 저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개혁으로 인한 비용이 편익보다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개혁과정에서 시장이 인지하는 규제 불확실성, 조세부담 증가, 고용 및 금융 중개의 질적 악화 등은 소비와 투자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니에토 정부가 개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인프라 투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신규 건설과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추진이 대표적인 인프라 투자 사례이다.

둘째, 정부는 개혁의 성과를 모든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1988~94년에 이루어진 살리나스(Carlos Salinas) 정부의 개혁 및 개방정책은 그 편익이 일부 대기업, 수출 제조업종, 그리고 자본가에게 집중됨으로써 저평가된 바 있다. NAFTA 가입의 경우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지역별, 계층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셋째, 산업 및 제도 개혁의 핵심이 되는 연방경제경쟁위원회(CFCE), 국가탄화수소위원회(CHN), 에너지규제위원회(CRE), 국가에너지통제센터(CENECE), 국가천연가스통제센터(CENAGAS), 연방방송통신청(Ifetel),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Conducef), 국가교육평가원(INEE) 등 각종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기능적 운영이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 가운데 약 1세기 만에 개방되는 에너지 부문 규제기관과 그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즉 멕시코는 에너지산업 개방을 위한 입찰 시행과 라이선스 관리 경험이 일천하고, 이 부분에서 가장 숙련된 인력조차 대부분 개혁으로 산업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Pemex에 소속되어 있어 규제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향후 에너지산업 개방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다양한 도전과 과제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한 문제이지만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편입시켜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통한 비공식 부문 축소(노동개혁), 교육정보 관리 및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한 성과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교육개혁), 시장경쟁 활성화(방송통신시장 개혁), 비공식 부문을 위한 연금 및 실업보험제도 개편(세제개혁), 민관합동으로 개방적 시장경제체제에 운용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정책 수립 모색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제4장에서는 한·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이를 위

해 먼저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는 2000년대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제조업 부흥과 성공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은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러시를 이루면서 양국간 관계는 한층 긴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한·멕시코 간 경제관계가 질적으로 우수하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은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번째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대멕시코 흑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실현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투자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우리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는 여전히 미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 건설에 집중되고 있다. 중남미 시장 진출기로서 멕시코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만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우리 기업의 투자가 늘고는 있지만 멕시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아직까지 매우 미미하다. R&D 투자는 고사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원부자재 조달도 미미하다. 이는 우리 기업의 양적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경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치안 불안으로 조사되었다. 치안 문제가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치안 불안에 따른 기업인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중소기업 투자가 멕시코 투자의 과반(129개, 진출기업 수 기준)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다섯째,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시장 진출 시 투자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필요한 투자 및 운영 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며, 현지 금융기관이나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미미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투자관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는 아직까지 매우 미미하다.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멕시코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부족도 크지만 우리 측에서도 멕시코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 잠재력이 있는 멕시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한국 투자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인 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국간에 체결했거나 구축한 협력협정 및 협력채널 중 현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문을 찾아 재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양국간 직항로 개설을 들 수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교통정리할 경제협력의 컨트롤타워 구축도 필요하다. 2014년 신설된 양국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고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력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화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 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표 6-1. 한·멕시코 간 내외부적 경제협력 환경

강점(S)	약점(W)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높은 기술 경쟁력 2.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3.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4. 마케팅 능력 5.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2. 시장 정보 부족 3. 정부의 지원 부족 4.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5. 실질적·심리적 거리감
기회(O)	위협(T)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화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2.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3.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사업기회 확대 4. 저렴한 노동비용 5. 자동차, 전기, 항공 등 분야의 클러스터 발전 6. 제조업 생산성 향상 7. 개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8. 전문인력 활용 개선 9.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안 불안 2.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3. 인프라 부족 4. 노무관리 비용 증대 5. 조세부담 증가 6. 개혁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자료: 저자 작성.

멕시코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다섯 가지 위협요소 중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의 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다섯 가지 약점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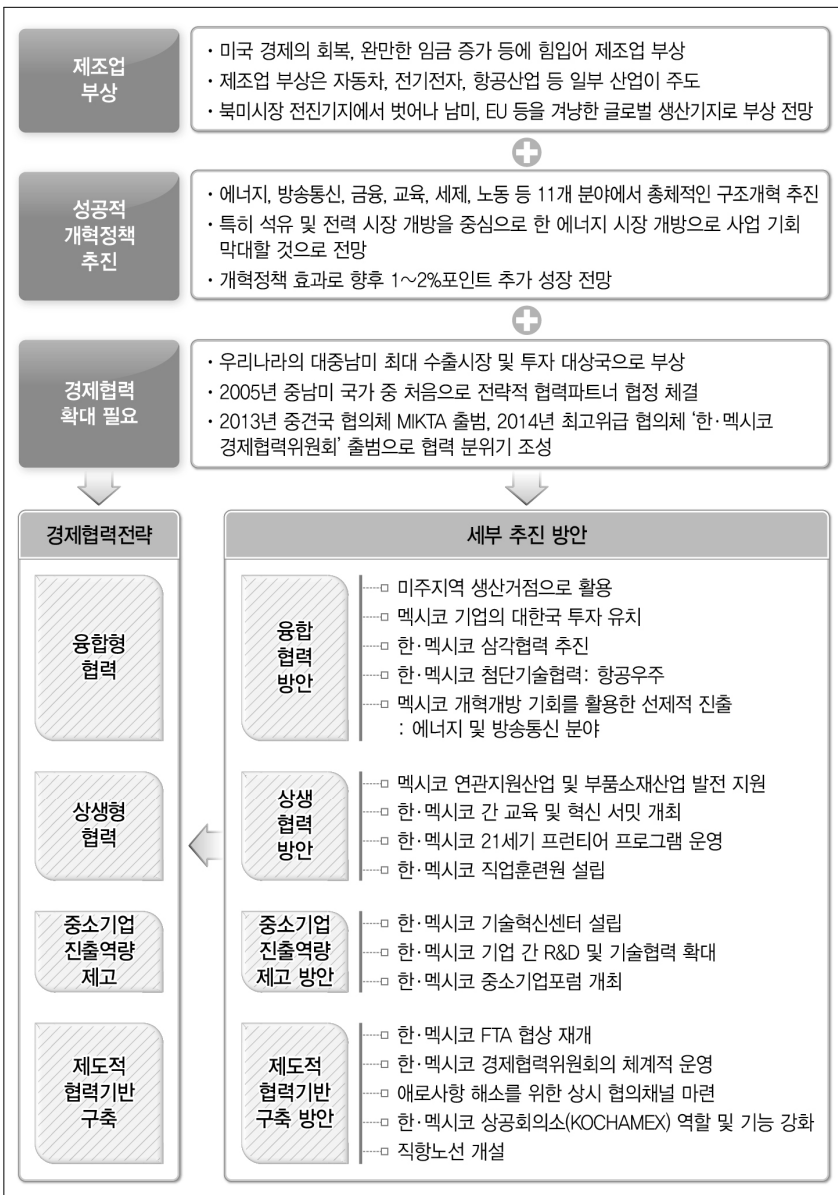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

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 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 개최 ③ 한·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에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그림 6-1. 한·멕시코 경제협력 환경 및 협력방안



자료: 저자 작성.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민국 기술
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
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
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과정에서 발
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멕시코 상공회
의소의(KOCHAMEX)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본 연구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빠른 부상과 총
제적인 개혁정책에 따라 급변하는 멕시코 경제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
구를 통해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석유 및 전력시장 개방
등 에너지 시장 개방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및 협력 기회를 발굴, 제시하
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중점 연구대상으로 분
석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완전한 개혁정책의 내용을 파악해 분석하고 개혁의 성과를 평가
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모든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추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당초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했으나 입수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²⁰⁸⁾ 셋째, 본 연구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한 설문조사의 샘플이 당초 기대보다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설문에서는 멕시코에 진출한 현지법인 224개 업체 중 접촉 가능업체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업체 수는 전체 설문대상 기업의 20%를 조금 상회하는 33개사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분석과 현지 인터뷰, 그리고 정성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대응방안과 멕시코의 경제환경 변화를 활용한 기업차원의 거시적 진출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진출기업의 투자유형과 방식이나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춘 미시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208) 제조업 데이터를 이용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21개 대분류 제조업 중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중고위 기술 분야의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세분화된 제조업 산업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227개의 제조업에서 외국인 투자가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의 데이터를 입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향후 세부 분야별로 외국인 투자 통계가 주어진다면 외국인 투자가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유덕 · 이철원 · 이현진 · 오현정. 2012. 『한 · 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
과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기수. 2005. 「멕시코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 NAFTA의 최대 수혜자」. 『국
제지역정보』, Vol. 143.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임태균. 2013.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
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2014. 3. 31. 「현오석 부총리, 멕시코 재무장관 면담-한 · 멕시코 경제협
력위원회 설치 합의」. 보도자료.
- 김남두 · 원용걸 · 전재욱 · 정훈. 1997. 『동아시아 무역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수동. 2012. 『한-멕시코 특혜관세협정의 경제효과 분석 및 협상전략 연구』. 산업연
구원.
- 김원호(편). 2004. 『한 · 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 멕시
코21세기위원회.
- 김진오 · 이시은. 2012. 『멕시코의 주요 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형일 · 안성희. 2013.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멕시코』. KOTRA
- 배찬권 · 금혜윤 · 김진오. 2012.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
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인범. 1993.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2010. 『멕시코 국가 현황 및 진출방안』.
- 한 · 멕시코21세기위원회. 2005. 『21세기 한 · 멕시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비전과 협
력과제』.
- Hernández, Lylia Palacios. 2014. 「멕시코의 노동개혁」. 트랜스라틴.

[일문자료]

JETRO. 2014. 『멕시코 경제의 基礎知識』, 第2版.

[영문자료]

Alejandro García. 2014. Mexico, “Seminario de los Expertos Coreanos en los Asuntos Económicos-Comerciales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KCLAC. (Octubre 8, 2014)

Arias, Javier, Oliver Azuara, Pedro Bernal, James Heckman and Cajeme Villarreal. 2010. “Policies to Promote Growth and Economic Efficiency in Mexico.” MPRA.

BBC News. 2014. “Why is it taking so long to reform Mexico's dysfunctional schools?” (June 7)

BBVA. 2014a. “Competitiveness in the Latin American manufacturing sector: trends and determinants.”

_____. 2014b. “Situación Regional Sectorial México.” Primer Semestre 2014.

Bensusán, Graciela. 2013. “Reforma laboral, desarrollo incluyente e igualdad en México.” CEPAL.

Bolio, Eduardo, Jaana Remes, Tomas Lajous, James Manyika, Morten Rosse, and Eugenia Ramirez. 2014. “A tale of two Mexicos: Growth and prospectiy in a two-speed economy.” Mckinsey Global Institute.

Boston Consulting Group. 2014. “The Shifting Economics of Global Manufacturing.”

Campos, Mauricio, Lilia Dominguez Villalobos, Flor Brown Grossman and Armando Sanchez. 2013. “El desarrollo de la industria mexicana en el encrucijada.” Universidad Iberoamericana.

CIDAC. 2011. Hacerlo Mejor, “Índice de Productividad México.”

_____. 2014. “Reshoring Mexico 2014: Índice de Capacidad de Atracción de Inversión Manufacturera.”

- ECLAC. 2013.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3*.
- _____. 2014a. *Economic Surve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4*.
- _____. 2014b.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3*.
- EIU ViewsWire. 2014a. "Mexico economy: New Strategy Against Informality is Launched."
- _____. 2014b. "Mexico: Tax Regulations."
- EIU. 2014a. "Mexico: Country Report."
- _____. 2014b. "Mexico Politics: Government's Commitment to Education Reform Questioned."
- Gabriel Zinny and James McBride, Brookings. 2014. "Mexico's Education Reforms and Latin America's Struggle to Raise Education Quality."
- Gobierno de la República Mexicana. 2013. "Reforma Energética."
- Juan Felipe Lopez Aymes and Alejandra Salas-Porras. "Korean Companies in Mexico: Business Practices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Asia-Pacific Business*.
- López-córdova, Gerardo Esquivel Hernández and Alexander Monge' Naranjo. 2003. "NAFTA and manufacturing productivity in Mexico." *Economía*, Vol. 4, No. 1, p. 80, pp. 83-85(Fall).
- OECD. 2012a. "Getting It Right: Una Agenda Estratégica para las Reformas en México." OECD Publishing.
- _____. 2012b. "OECD Review of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Regulation in Mexico." OECD Publishing.
- _____. 2013a. "Getting It Right: Strategic agenda for reforms in Mexico."
- _____. 2013b. "OECD Economic Surveys: Mexico 2013."
- _____. 2013c. "PISA 2012 Results in Focus."

- Pemex. 2014. “Reforma Energética en México y PENEX como Empresa Productiva del Estado.”
- _____. “Reservas de Hidrocarburos.” 각연호.
- Preira, Mariana and Isidro Soloaga. 2012. “Determinantes del crecimiento regional por sector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en México, 1988-2008,” p. 47. El colegio de México.
- Promexico. 2013. “Why Manufacture in Mexico?”
- PWC. 2013. “Global wage projections to 2030.”
- Raku Yomi. 2013. “미주대륙의 공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 Nikko AM Fund Academy Market Series.
- René Cabral and Andre Varella Mollick. 2011. “Intra-industry trade effects on Mexican manufacturing productivity before and after NAFTA.”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Review*, 87-112, p. 108.
- Sergio Legorreta G. and Hector Olavarria Tapia. 2013. “2013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Reform in Mexico.” Baker & McKenzie Abogados, S.C.
- SHCP. 2014. “Reforma Hacendaria.”
- The Economist. 2008. “Testing the teachers.” (May 22)
- _____. 2012. “Labour pains.” (Nov. 3)
- _____. 2014. “Phantom Teachers.” (April 7)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 “Bribe Payers Index 2011.”
- World Bank. 2011. “Effects of the 2008-09 Economic Crisis on Labor Markets in Mexico.”
- _____. 2012. “Labor Markets for Inclusive Growth.”
- _____. 2014. World Doing Business Report 2014.
- World Bank and IFC. 2013. “Doing Business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 World Economic Forum. 2013.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Zinny, Gabriel and James McBride. 2014. "Mexico's Education Reforms and Latin America's Struggle to Raise Education Quality." Brookings.

[온라인 자료]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홈페이지. 2014. <http://www.ksp.go.kr>. (9월 21일)

기획재정부. 2014. 3. 31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설치…KSP 적극 공유.” http://www.mosf.go.kr/policy/policy06.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ory=131&hdnFlag=1&cat=&hdnDiv=&select=subject&keyword=%EB%A9%95%EC%8B%9C%EC%BD%94&hdnSubject=%EB%A9%95%EC%8B%9C%EC%BD%94&date_start=2014-03-10&date_end=2014-09-19&&actionType=view&runno=4090271&hdnTopicDate=2014-03-31&hdnPage=1. (9월 19일)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과 멕시코의 협정 체결 현황: 한국과 멕시코 기관 간 협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2923&cid=43970&categoryId=43972>.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2014.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8월 20일)

조선비즈. 2014. “산업부, TPP 협상 일부 진전…韓 참여 여부 계속 검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7/2014091702045.html. (9월 17일)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4a. “한-멕시코 정부간 협정체결 현황.” <http://mex.mofa.go.kr/korean/am/mex/policy/relation/index.jsp>. (9월 17일)

_____. 2014b. “한-멕시코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현황.” <http://mex.mofa.go.kr/korean/am/mex/policy/relation/index.jsp>. (9월 1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 “수출인큐베이터.” <http://www.sbc.or.kr/sbc/business/market/exhibition/center.jsp>. (9월 19일)

투데이에너지. 2014. 9. 10. “자원개발 추진방향 결정.”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95811>. (9월 19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 <http://www.kita.net>. (8월 1일)

- 한국수출입은행. 2014. “(KSP 공동컨설팅) ‘멕시코 노동시스템 개선 지원’ 사업 입찰 공고.”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 (9월 21일)
- _____. 2014b. “해외투자통계” <http://www.koreaexim.go.kr/kr/index.jsp>. (8월 2일)
- América Economía. 2014. 8. 31. “México: aprietan el paso de la reforma energética con la creación de Cenace y Cenagas.” <http://www.americaeconomia.com/negocios-industrias/mexico-aprietan-el-paso-de-la-reforma-energetica-con-la-creacion-de-cenace-y-cen>. (accessed Sep 13, 2014)
- ADNPólitico.com. 2012. “Vázquez Mota acusa ‘guerra sucia’ en redes sociales.” <http://www.adnpolitico.com/2012/2012/03/16/vazquez-mota-acusa-guerra-sucia-en-redes-sociales>. (accessed June 9, 2014)
- Bloomberg. 2009. “Pemex may renegotiate current oil-service contracts.”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newsarchive&sid=aLt8B5N12N6E>. (accessed June 12, 2014)
- BNAmerica. 2014. “Ronda Cero fija bases para expansión de Pemex.” <http://www.bnamericas.com/news/petroleoygas/ronda-cero-fija-bases-para-expansion-de-pemex>. (accessed Sep 13, 2014)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4. “International Labor Comparisons.” <http://www.bls.gov/fls/#compensation>. (accessed Sep 7, 2014).
- CEIC Database. (accessed Sep 20, 2014).
- CNN. 2014. 8. 12. “10 pasos para ‘aterrizar’ la ley energética (y cómo Peña Nieto busca apurarlos).” <http://mexico.cnn.com/nacional/2014/08/12/10-pasos-para-aterrizar-la-ley-energetica-y-como-pena-busca-apurarlos>. (accessed Sep 13, 2014)
- Dyer, Dwight. 2014. 1. 15. “Mexico's Reform: The Devil in the Details.” *Forbes*. <http://www.forbes.com/sites/riskmap/2014/1/15/mexicos-reforms-the-devil-in-the-details/print/>. (accessed May 9, 2014)
- EIA. 2014.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Electricity.” <http://www.eia.gov>. (accessed Sep 15, 2014)
- EIU. “Data.” <http://data.eiu.com>. (accessed Sep 11, 2014)

- EIU. Viewswire. "Country and Region." http://viewswire.eiu.com/index.asp?layout=VWCCountryVW3®ion_id=&country_id=152.000152. (accessed September 3, 2014)
- El Economista. 2012. 5. 11. "Vásquez Mota impulsará reformas estructurales junto a CCE." <http://eleconomista.com.mx/sociedad/2012/05/11/vazquez-mota-impulsara-reformas-estructurales-junto-cce>.(accessed June 11, 2014)
- _____. 2013. "Competitividad, eje de la reforma en telecomunicaciones." <http://eleconomista.com.mx/industrias/2013/03/10/competitividad-eje-reforma-telcos>.(accessed June 11, 2014)
- _____. 2014.8.14. "Ronda Uno traerá US\$8,500 millones en inversiones." <http://eleconomista.com.mx/industrias/2014/08/14/ronda-traera-us8500-millones-inversiones>.(accessed Sep 13, 2014)
- El Financiero. 2014a. "Comisión de Energía avala a consejeros independientes de Pemex, CFE y Fondo del Petróleo." <http://www.elfinanciero.com.mx/politica/comision-de-energia-avala-a-consejeros-independientes-de-pemex-cfe-y-fondo-del-petroleo.html>.(accessed Sep 13, 2014)
- _____. 2014b. "Telléz y Reyes Heróles son propuestos para el Fondo Mexicano del Petróleo." <http://www.elfinanciero.com.mx/economia/tellez-y-reyes-heroles-son-propuestos-para-el-fondo-mexicano-del-petroleo.html>.(accessed Sep 13, 2014)
- _____. 2014c. "Comisión del Senado elige a comisionados de CRE." <http://www.elfinanciero.com.mx/economia/comision-del-senado-elige-a-comisionados-de-cre.html>.(accessed Sep 13, 2014)
- El Heraldo de Chiapas. 2014. "Necesario democratizar el acceso al sistema financiero: Peña Nieto." <http://www.oem.com.mx/elheraldodechiapas/notas/n3443352.htm>.(accessed June 27, 2014)
- Fox news latino. 2014. "Mexico sets minimum bid price for new TV networksEIU." <http://latino.foxnews.com/latino/news/2014/04/16/mexico-sets-minimum-bid-price-for-new-tv-networks/>. (accessed Sep 11, 2014)

- Fredrick, James. 2013. "Pemex's Chicontepec round disappoints, surprises." <http://www.bnamerica.com/news/oilandgas/pemexs-chicontepec-round-disappoints-surprises>. (accessed June 12, 2014)
- Gobierno de la República Mexicana. 2013. "Reforma Energética: Beneficios." <http://reformas.gob.mx/reforma-energetica/beneficios>. (accessed Sep. 14, 2014)
- _____. 2014a. "Reforma Energética: Avances." <http://reformas.gob.mx/reforma-energetica/avances>. (accessed Sep 14, 2014)
- _____. 2014b. "Reforma Financiera: ¿Qué es?" <http://reformas.gob.mx/reforma-financiera/que-es>, pp. 3-4, pp. 5-14. (accessed June 27, 2014)
- Gómez, Christian. 2013. "Viewpoint: Mexico's Energy Reform." ASs/COA. <http://www.as-coa.org/articles/viewpoint-mexicos-energy-reform>. (accessed May 8, 2014)
- _____. 2014. 4. 30. "Get the Facts: Secondary Laws for Energy Reform Presented to Mexico's Senate." <http://www.as-coa.org/blogs/get-facts-secondary-laws-energy-reform-presented-mexicos-senate>. (accessed May 8, 2014)
- INEGI. "Ocupación y Empleo." <http://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5433&t=1>. (accessed Aug 6, 2014)
- _____. "Encuesta Anual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http://www.inegi.org.mx/est/contenidos/proyectos/accesomicrodatos/eia/eaim/Default.aspx>. (accessed Aug 1, 2014)
- _____. "Setores Económicos." 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7 and August 18, 2014)
- _____. 2012. "Presenta INEGI Encuesta sobre Caliad de Trámites y Servicios del Gobierno." Boletín de Prensa Núm. 358/12. <http://www.inegi.org.mx/inegi/contenidos/espanol/prensa/boletines/boletin/Comunicados/Especiales/2012/Octubre/comunica8.pdf>. (Accessed June 10, 2014)
- JETRO 통상홍보. 2014. <https://news.jetro.go.jp>. (accessed July 7, 2014)

- La Jornada. 2014. 5. 12. "Comienzá la entrega de México Pemex-Ronda Cero." <http://www.jornada.unam.mx/2014/05/21/politica/016alpol>. (Accessed Sep 11, 2014)
- Landa, Maria del Carmen. 2014., "Mexico's Energy Reform: The Timeline." Energy reform Series. Mexico Institute of Wilson Center. <http://www.wilsoncenter.org/article/mexicos-energy-reform-the-timeline>. (accessed Sep 4, 2014)
- Negroponte, Diana Villiers. 2013. "Mexican Energy Reform: Opportunities for Historic Change." Brookings. <http://www.brookings.edu/research/opinions/2013/12/23-mexican-energy-reform-opportunities-historic-change-negroponte>. (accessed May 8, 2014)
- _____. 2014. "Mexico's Energy Reforms Become Law." Brookings, <http://www.brookings.edu/research/articles/2014/08/14-mexico-energy-law-negroponte>. (accessed Sep 14, 2014)
-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accessed Sep 22, 2014)
- _____. "Real Minimum Wage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MW>. (accessed Aug 22, 2014)
- Pemex. 2014. "Anuario Estadístico 2003-2013." <http://www.pemex.com/informespemex/anuarioestadistico.html>. (accessed Sep 15, 2014)
- Pactopormexico. 2012a. "¿Cómo se logró?." <http://pactopormexico.org/como/>. (accessed May 8, 2014)
- _____. 2012b. "Pacto por México." <http://pactopormexico.org/PACTO-POR-MEXICO-25.pdf>.(accessed June 20, 2014)
-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Mexicana. 2014. "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2018." <http://www.presidencia.gob.mx/pni/>. (accessed Sep 21, 2014)
- Reuters. 2013. 5. 9. "UPDATE 3-Mexican government unveils bank reform bill to spur lending."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5/09/mexico-reforms-idUSL2N0DP2EN20130509>. (accessed Sep 5, 2014)

- _____. 2014. 8. 13. "Mexico hopes to lure \$ 50.5B in historical oil tender." http://www.rigzone.com/mecos/articlexasp?hp=1&a_id=134522. (accessed Sep 11, 2014)
- SEP(멕시코 교육부). "Estadística Educativa." <http://www.sep.gob.mx>. (accessed July 15, 2014)
- Secretaria del Trabajo y Prevision Social. "Estadísticas del sector." http://stps.gob.mx/bp/secciones/conoce/areas_atencion/areas_atencion/web/menu_infsector.html. (accessed June 7, 2014).
- S&P. 2014. 1. 13. "Mexico's Financial Reform Delivers Mixed Results." <http://www.standardandpoors.com/ratings/articles/en/us/?articleType=HTML&assetID=1245362875468>. (accessed May 8, 2014)
-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2006. "MEXICO: Lobbying occupies power vacuum."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DB125296&v=pdf>. (accessed June 13, 2014)
- _____. 2012. "Mexico: Candidates are hostage to powerful interests."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DB176015&v=pdf>. (accessed June 13, 2014)
- _____. 2014a. "Telecoms liberalisation will boost growth in Mexico."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DB189869&StoryDate=20140327>. (accessed May 29, 2014)
- _____. 2014b. "Mexican telecoms players test new institutions."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ES189966>. (accessed June 13, 2014)
- _____. 2014c. "Mexico energy reform drives corporate bond issues."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ES189786>. (accessed June 13, 2014)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3.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3: Full Table and Rankings." <http://www.transparency.org/cpi2013/results>. (accessed June 10, 2014)
- UNCOMTRADE. 2014. "Date of query." <http://comtrade.un.org>. (accessed May 7, 2014)

- Wikipedia. “Reforma energética(México).” [http://es.wikipedia.org/wiki/Reforma_energ%C3%A9tica_\(M%C3%A9xico\)](http://es.wikipedia.org/wiki/Reforma_energ%C3%A9tica_(M%C3%A9xico)). (accessed Sep 11, 2014)
- World Bank. 2014. “EDStats Expenditure.”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E.XPD.TOTL.GB.ZS>. (accessed Aug 5, 2014)
- World Bank Database. 2014.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E.XPD.TOTL.GB.ZS>. (accessed June 12, 2014)
- World Economic Forum. 2014. “Global-Competitiveness.” www.weforum.org/issues/global-competitiveness. (accessed August 18, 2014)
- Yost, Mark. 2014. “Mexico to see \$10B per year in oil revenues from industry reforms.” <http://www.bizjournals.com/houston/news/2014/02/07/mexico-to-see-10b-per-year-in-oil-revenues-from.html?page=all>. (accessed June 12, 2014)

[인터뷰 자료]

- David Kaplan(IDB) 인터뷰(2014년 8월 27일, 멕시코시티).
- Gerardo Castillo Ramos 민간경제연구센터(CEESP) 박사 인터뷰(2014년 8월 26일, 멕시코시티).
- Isidro Sologas 이베로아메리카대학 교수 인터뷰(2014년 8월 26일, 멕시코시티).
- Justo Diaz ICEUABJO 교육연구소 연구원 인터뷰(2014년 8월 29일, 멕시코 오악사카).
- Karel Dehesa 오악사카 주 교육청 연구원 인터뷰(2014년 8월 29일, 멕시코 오악사카).
- Sergio Ley Lopez 멕시코 국제문제이사회(COMEXI) 부이사장 인터뷰(2014년 8월 26일, 멕시코시티).
- 멕시코 진출 A사와의 인터뷰(2014년 8월 26일, 멕시코시티).

부 록



멕시코 시장 진출환경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최근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멕시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주재원과 멕시코 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근 시장환경에 대한 평가, 경영상의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본 설문지는 향후 우리 기업의 대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모색과 우리 정부의 대멕시코 통상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되며, 그 결과는 정부의 연구·조사 및 정책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일동

(TEL : 82-2-3460-1081, 1085)

(FAX : 82-2-3460-1164)

(전자메일: latinkiep@kiep.go.kr)

※ 기업자 기본 정보

성명:	업체명:		
업종:	기업형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기타 중 택1		
전화:	e-mail:		

시장 진출환경 평가

1. 멕시코 시장 진출 시 기회요인으로 생각되는 모든 항목에 척도를 표기해주시시오. (5=가장 큰 기회요인이다, 1=전혀 기회요인이 아니다)

기회 요인	낮은 기회요인		높은 기회요인		
	①	②	③	④	⑤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로 부상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중산층 성장에 따른 내수시장 규모 확대					
풍부한 숙련노동자 보유					
태평양동맹 결성 등 남미시장 진출 교두보로 부상					
저렴한 노동비용					
대규모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멕시코 경제의 안정적 성장					
안정적인 환율(환율 변동폭이 작음)					
기타 기회요인					

2. 멕시코 시장 진출 시 위험요인으로 생각되는 모든 항목에 척도를 표기해주시시오. (5=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1=전혀 위험요인이 아니다)

위험 요인	낮은 위험요인		높은 위험요인		
	①	②	③	④	⑤
FTA 미체결에 따른 각종 차별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치안 불안 심화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및 비효율적 관료주의					
전력, 도로 등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					
세제 문제					
노동관리 문제					
비관세 장벽 강화					
멕시코 재계의 한국기업 진출에 대한 경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기타 위험요인: _____					

3. 멕시코 시장 진출 시 우리나라(정부 및 기업)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 생각되는 모든 항목에 척도를 표기해주시시오.
(5=가장 큰 강점이다, 1=전혀 강점이 아니다)

강점 요인	낮은 강점요인			높은 강점요인	
	①	②	③	④	⑤
높은 가격경쟁력 보유					
높은 기술경쟁력 보유					
대기업-중소기업 해외 동반 진출					
멕시코에 전수 가능한 경제발전 · 산업화 경험					
첨단기술강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지원					
기타 강점: _____					

4. 멕시코 시장 진출 시 우리나라(정부 및 기업)가 갖고 있는 약점으로 생각되는 모든 항목에 척도를 표기해주시시오.
(5=가장 심각한 약점이다, 1=전혀 약점이 아니다)

약점 요인	작은 약점			큰 약점	
	①	②	③	④	⑤
경쟁국과 비교해 자본력 부족					
경쟁국과 비교해 기술경쟁력 부족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 · 심리적 거리감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					
멕시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부족					
멕시코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무관심					
정부의 멕시코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정책 미비					
기타 약점: _____					

투자 동기

5. 귀사의 투자 동기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예) (1) 현지시장 진출, (2)...., (3)>

- | | |
|--|--|
| <input type="checkbox"/> () 현지 내수시장 진출 | <input type="checkbox"/> () 저렴한 노동력 |
| <input type="checkbox"/> () 제3국 우회수출(인접국 진출 용이) | <input type="checkbox"/> () 해외 고객(바이어) 요구에 대한 부응 |
| <input type="checkbox"/> () 원자재/부품 확보 용이 | <input type="checkbox"/> () 생산공정상 여타 기업과의 연계 진출 |
| <input type="checkbox"/> () 현지의 투자(조세) 우대조치 | <input type="checkbox"/> () 한국 내수시장 부진 |
| <input type="checkbox"/> () 한국 내 규제(환경 등) | <input type="checkbox"/> () 현지의 특화기술 활용(예: IT 활용) |
| <input type="checkbox"/> () 자원개발 | <input type="checkbox"/> () 기타 (_____) |

투자 자원 및 금융 조달

6. 현지 투자 및 운영자금은 어디서 조달하고 계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 <input type="checkbox"/> () 한국 모기업 | <input type="checkbox"/> () 미국 법인 | <input type="checkbox"/> () 한국 금융기관의 융자 |
| <input type="checkbox"/> () 현지 협력선 | <input type="checkbox"/> () 제3국 금융기관의 융자 | <input type="checkbox"/> () 현지 금융기관의 융자 |
| <input type="checkbox"/> () 현지법인 유보이익 | <input type="checkbox"/> () 기타 (_____) | |

원부자재 조달

7. 현지공장의 원부자재는 어디로부터 조달하고 계십니까?

- | | |
|-----------------|------------|
| (1) 현지시장에서 직접조달 | (_____)% |
| (2) 한국으로부터 수입 | (_____)% |
| (3) 제3국으로부터 수입 | (_____)% |
| | 100% |

경영상의 애로사항

8. 현지 경영 과정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별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예) (1) 생산코스트 상승, (2)..., (3) ...>

- | | | |
|--------------------------------------|-------------------------------------|-------------------------------------|
| <input type="checkbox"/> 노무관리 | <input type="checkbox"/> 노동비용 상승 | <input type="checkbox"/> 현지금융 조달난 |
| <input type="checkbox"/> 판매대금 회수 곤란 | <input type="checkbox"/> 인프라시설 부족 | <input type="checkbox"/> 내수시장 진출 곤란 |
| <input type="checkbox"/> 한국기업과의 과당경쟁 | <input type="checkbox"/> 외자정책(투자규제) | <input type="checkbox"/> 원자재/부품 조달난 |
| <input type="checkbox"/> 세제 문제 | <input type="checkbox"/> 원료비용 상승 |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공급 |
| <input type="checkbox"/> 치안 불안 | <input type="checkbox"/> 환경규제 | <input type="checkbox"/> 비효율적 관료주의 |
| <input type="checkbox"/> 원산지 규정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 |

멕시코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9. 현재 멕시코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에 대한 귀사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 매우 많다 ☐ 많다 ☐ 보통이다 ☐ 관심 없다

10. 개혁정책 가운데 귀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 | |
|-------------------------------|------------------------------|-----------------------------|-----------------------------|
| <input type="checkbox"/> 방송통신 |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 <input type="checkbox"/> 금융 | <input type="checkbox"/> 교육 |
| <input type="checkbox"/> 세제 | <input type="checkbox"/> 노동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11.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 멕시코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 () 멕시코 경제발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 모르겠다

12. 개혁정책이 귀사의 경영 환경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 ()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 () 경영 환경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 () 모르겠다

13. 개혁정책이 귀사의 경영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
|---------------------|----------------------|
| () 내수시장 진출 확대 | ()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
| () 원부자재 조달환경 개선 | () 금융조달 환경 개선 |
| () 조세부담 및 납세시스템 개선 | () 전문인력 활용 개선 |
| () 노무관리 환경 개선 | () 기타 |

14. 개혁정책이 귀사의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
|-----------------------|----------------|
| () 시장 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 () 투자비용 증대 |
| () 조세부담 증대 | () 노무관리 비용 증대 |
| () 기타 | |

멕시코 제조업 경쟁력 변화

15. 최근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십니까?
- () 높아졌다
 - () 아니다
 - () 낮아졌다
 - () 모르겠다
16. 멕시코의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다른 경쟁국에 비해 멕시코 제조업 임금이 완만하게 상승
 - () 풍부한 노동력
 - () 물류 인프라 개선 또는 낮은 물류 비용
 - () 안정적인 환율
 - () 비즈니스 관련 제도 개선
 - () 미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 멕시코의 지리적 중요성 재인식
 - () 기타
17.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미국시장에서 멕시코 제품의 수요 증가
 - () 멕시코 제조품의 품질 제고
 - () 멕시코 제조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현지국에서 FTA로 인한 피해와 우려

18. 현재 멕시코 시장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 () 있다 () 없다 () 잘 모르겠다

19.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어느 국가와의 FTA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미국 ☐ 캐나다 ☐ EU ☐ 일본
☐ 중남미 ☐ 멕시코 정부의 차별정책 ☐ 기타

한·멕시코 FTA 관련

20. 한·멕시코 간 FTA 체결에 대한 관심 정도는?

- ☐ 매우 많다 ☐ 많다 ☐ 보통이다 ☐ 보통 이하다 ☐ 관심 없다

21. 한·멕시코 간 FTA 협상 시 귀사가 관심이 많은 분야는?

- ☐ 관세인하 및 철폐
☐ 무역기술장벽(TBT)
☐ 통관절차 간소화
☐ 환경규제
☐ 정부조달시장 참여
☐ 원산지 기준
☐ 지적재산권
☐ 무역피해 구제
☐ 기타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 사항

22. 멕시코 시장 진출 시 우리 정부/기관이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당 우선순위별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예) (1) 입지지원 (2)..., (3) ...>

- (1) 금융지원
☐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
☐ 정부의 대외원조자금 지원 확대

-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의 금융지원 확대
- () 국내외 민간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 () 중소기업 진출 금융지원 확대

(2) 국가간 제도(협정)적 협력기반 구축

- () 현지국과의 신속한 FTA 체결
- () 현지 비자 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 () 투자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안정적 투자진출 기반 마련
- () 현지국 정부와 투자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 () 투자자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 () 직항 노선 개설

(3) 민관 부문간의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 () 상무관, 무역관, 전문관 등 정부 관련 기관 설치 확대
- () 시장개척단, 투자사절단 파견 지원 확대
- () 현지 인력의 한국연수를 통한 한국문화 홍보 등 교육기회 제공
- ()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 () 현지국에 한국경제, 문화, 한류 등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4) 협력센터 설립 및 시장진출 서비스 강화

- () IT 협력센터, 기술협력센터 등 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
- () 현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학교 설립
- () 중소기업 진출 지원센터(수출인큐베이터 등) 기능 확대
- () 투자컨설팅서비스 확대(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 현지 투자 애로사항 해소지원(해외공관, 무역관 등)
- () 입지지원(한국기업전용공단 건설 등)
- () 맞춤형 해외투자진출정보 제공(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5) 기타 (_____)

23.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_____)

귀하의 성실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ecutive Summary ■

Mexican Economy on the Rise and Expanding Korea-Mexico Economic Cooperation

Kisu Kwon, Jino Kim, Misook Park and Siun Yi

Mexico is emerging as a new center of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Some have taken to calling the country the "Aztec Tiger," an analogy reminiscent of the "Asian Tigers" that led the economic miracle of East Asia. Mexico can attribute its recent economic surge to two drivers. First would be the nation's swift growth into a global production base, backed by the enhanced competitiveness of its manufacturing industry. Improved competitiveness thanks to moderate wage increases, enhanced manufacturing productivity, a stable exchange rate, China's ongoing loss of competitiveness due to rising wages, the US manufacturing renaissance, an extensive FTA network with 45 countries, and better business environments; these are the foundations upon which Mexico has been able to make the swift transformation into a global production base targeting not only North America, but also the South American and EU markets. The second driver would be the successful reform measures rolled out by the Peña Nieto government. Seen as the largest reform in terms of scale since the launch of NAFTA in 1994, Peña Nieto's reforms have an extremely broad scope, from industrial structure reform in the energy, telecommunications, and financial sectors to institutional reform in education, tax and labor. These structural reform policies have been garnering special attention due to hopes that they may serve as a tipp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the Mexican economy. As it is, the reform measures are expected to propel the Mexican economy

toward additional growth by up to 2 percentage points, maximum. Another reason Nieto's policies are in the spotlight is because the formerly closed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s have opened up, possibly revealing huge business opportunities. There are even some observations that say the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 effect of opening up Mexico's oil market will reach USD 1 trillion, and that it will have a more powerful economic impact than the US shale gas revolu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strategic suggestions in order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Mexico given the recent dynamic changes in Mexico, including its emergence as a manufacturing powerhouse and successful structural reforms of the Peña Nieto government.

To this end, this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First chapter contains the purpose of this study, methodology, and literature review. The second chapter concerns Mexico's recent manufacturing surge, how it was possible and how it can be taken further. Also, in order to see whether Mexico's recent changes in manufacturing sector is sustainable or not, total factor productivity was measured at the industry level. Lastly, based on all these analysis, this study evaluates the substantiality of the manufacturing sector growth and the proba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of Mexico.

In chapter three, major reforms that the Peña Nieto government has pushed forward are analyzed and evaluated in depth for policy implications: the background of these reforms and how these reforms were planned and implemented were considered in the first part. This study categorized all eleven reforms that the Mexic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into two main 'pillars': structural reforms in industrial sectors and institutional reforms. For the structural reforms in the industrial sector, reforms in telecommunications, energy, and finance are discussed in depth; while for the institutional reforms, education, tax and

labor reforms are scrutinized.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mplications of these reforms and how they could affect the Mexican economy in the near future are introduced.

In chapter four,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Mexico and Korea is evaluated. Divided into three sub categories, i.e. trade, investment, and institutions; economic cooperation is assessed comprehensively. In addition, the difficulties and obstacles facing Korean enterprises investing in Mexico were surveyed in order to elicit measures for improvement.

In chapter five, policy suggestions are specified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Mexico. Along with the surveys conducted on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Mexico, SWOT analysis is used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cooperation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Mexico.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four strateg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i.e. converged cooperation strategy, win-win cooperation strategy, SME cooperation strategy and institutional cooperation strategy.

The four strategies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Mexico are listed below. The first would be a "converged cooperation strategy," which creates the most powerful model for cooperation by merging the strengths that each country possesses in different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ompanies, Mexico offers the advantage of being a forwarding base for manufacturing, and having a broad FTA network, that would serve as the basis for strategies targeting not only the North American but also the South American market. On the opposite side, Mexican companies can devise strategies to enter Asian markets, for instance China, by using Korea's strength as a "gateway to Asia" on account of it being a logistics and FTA hub. The two countries could also draw from Mexico's powerful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over the Central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 and its experienc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ombine this with Korea's experiences and know-how in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to formulate a triangular cooperation strategy providing joint assistance to neighboring countries.

Next would be a "win-win cooperation strategy" that utilizes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in technology and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experiences to help solve the problems in the Mexican economy. Policies and projects that support insertion of Mexican components and materials industries into the global supply chain by transferring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and technologies will simultaneously resolve challenges facing Mexico's manufacturing sector and create a friendly environment for Korean businesses seeking to enter the market. There should also be a cooperation program in education, along with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s, which calls for swift improvements in order to support Mexico's economic development. To this end, it will be necessary to host a "Korea-Mexico Education and Innovation Summit" attended by presidents of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 CEOs from both countries, as a channel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identify cooperation demand in the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s. Another measure that may be necessary is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job training institute run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in collaboration with the Mexican government, to help solve labor shortages in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Mexico and to support the Mexican government in education of skilled manpower.

Third is an SME cooperation strategy. Enterprises will play a key role as an agent of cooperation in th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exico. SMEs, in particular, will play as much an important role as large conglomerates. This is because Mexico is a Latin American country with the highest number of Korean SMEs operating within its borders. As a demonstration of its strong interest in fostering SMEs, in 2014 the Mexican government founded INADEM (National Entrepreneur's Institute). Priority

measures to consider in expanding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Mexican SMEs are the establishment of a Korea-Mexico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to support SME technology cooperation and exports, and the creation of a Korea-Mexico SME Forum to serve as a network for SME cooperation.

The fourth and final strategy would be to form a basis for institutional cooperation. The best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Mexico is an FTA. Since 2008, Korea-Mexico FTA negotiations have been stalled following Mexico's decision to halt discussions, and have yet to be resumed. The grounds for this decision were that an FTA with Korea would bring more harm than good, due to the unfavorable balance in trade from Mexico's viewpoint. Fortunately, the Korean government's announcement to join the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has rekindled the possibility of concluding an FTA with Mexico. As important as an FTA is, so is opening a direct flight route between the two nations. Not only would this save travel time and airfare, but it would also be a meaningful step that narrows the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the people of Korea and Mexico.

In the concluding chapter, the summary of the result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ossible future research are proposed.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4년

-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세별 · 김양희 · 김한성
-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2013년

-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율
-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곤 · 이주미
-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균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 13-15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곤 · 이유진 · 안병민

-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호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 13-20 중국의 채권 · 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 13-21 중국 권역별 · 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김유미
-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용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곽성일 ·박재은 ·손성현
-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 ·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 장종문 · 전해린 · 김영기
-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임태균

■ 2012년

-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한진희
-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 · 서진교 · 송백훈 · 안덕근
-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
-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윤선
-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김종덕 · 강준구 · 김혁황
-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 · 정지원 · 박혜리 · 조명환
-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박은선 · 강삼모
-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 · 이동은 · 박영준 · 강은정
-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 · 김균태 · 오테현 · 이철원 · 이현진
- 12-13 한·중·일 경제협의회 구상 /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율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 · 박민숙 · 나수엽 · 여지나 · 은종학
-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 · 양평섭 · 문익준 · 노수연 · 정지현 · 여지나
-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 · 이성봉 · Alexey Kuznetsov · 민지영
-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윤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금
-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 웅 · 정혜원
-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해린 · 이시욱
-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 ·곽성일 · 전해린 · 장종문
-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 · 김종혁 · 고희채 · 박경로
-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이우광
-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율

■ 2011년

-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고희채 · 이준규 · 오민아 · 이보람
-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 · 방호경
-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 · 오승환 · 백승관
-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 · 오승환 · 정용승 · 박영준
-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 · 강은정 · 박영준
-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영준 · 이형근 · 양다영
-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 · 이준원 · 김한호
-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 · 이철원 · 이현진 · 오현정
-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 · 김영귀 · 박지현 · 강준하
-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강준구 · 김혁황 · 현혜정
-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김정곤 · 박순찬
-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율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윤미경
-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험 방향 /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원 · 홍익표
-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해린 · 김성남 · 김민희
-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교회채
-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 · 김규판 · 오윤아 · 이재호 · 신민급 · Siwage Dharma Negara · Latif Adam
-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 · 권기수 · 교회채 · 박미숙 · 김형주
-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 · 윤서영 · 박광순

권기수(權奇洙)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브라질리아연방대학교(UnB) 초청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장
(現, E-mail: kskwon@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공저, 2013)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공저, 2013) 외

김진오(金眞梧)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중남미지역학 전공)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o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공저, 2012)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공저, 2013) 외

박미숙(朴美淑)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남미 지역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isookp@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공저, 2013)
『유망국가 산업연구: 에콰도르의 주요산업』(공저, 2013) 외

이시은(李時恩)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실 미주팀 연구원
(現, E-mail: suyi@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공저, 2013)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공저, 2013) 외

Mexican Economy on the Rise and Expanding Korea-Mexico Economic Cooperation

Kisu Kwon, Jino Kim, Misook Park, and Siun Yi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은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빠른 부상과 니에토 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멕시코가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센터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개혁정책에 대한 다각적이며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